



교과서연구

계간지

2012년 가을

통권 제69호

C o n t e n t s

권두언

- 04 교과서 출판사의 길 김영진

특별기획 · 초등 국정도서, 이렇게 만든다

- 08 초등 국정도서 편찬 방향 김형철
13 통합 교과 : 한 달에 한 주제씩 공부하는 주제별 교과서 정광순
17 국어 교과서 이재승
21 도덕 교과서 유병열
27 사회 교과서 박용조
32 수학 교과서 안병곤
36 과학 교과서 이대형

제언 · “이런 교과서를 만들어 주세요!”

- 42 학교현장이 바라는 교과서의 모습 이형래
44 학교 현장이 바라는 교과서, 이랬으면 좋겠어요. 김주현
46 주제별 통합교과서에 대한 학교 현장에서의 제안 박명선
48 학생을 위한 교과서, 교사를 위한 지도서 이상우
50 창의지성교육에 기반한 교과서의 모습 현주복
52 참신하고 친절한 교과서 신희은

현장교육 · 학교 폭력, 다시 생각해보기

- 55 교실 수업 변화, 학교 폭력에 대한 간접적이지만 근본적인 대책 이혁규
58 학교폭력예방교육에서, 평화감수성교육으로 전환하기 박숙영
62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체육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조호제
65 음악활동을 통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만들기 이경희

연재

- 70 스웨덴의 교육제도(I) -교육연구부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의 역할 양혜원
75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 교육제도 및 교과서 김소형

교과서 편집자의 변

- 82 무한 학습 김량희

교과서 개발 사례 연구

- 85 우리 학교의 교과서 최형우

연구논문

- 94 인정도서 정책의 쟁점과 발전 전략 김정호
100 교과구분 기준 연구 -공통필수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황수아

교과서에 실린 작품 이야기

- 110 삶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표현한 화가, 샤갈 박희숙

탐방

- 115 오늘의 교과서 출판인 : YBM시사(민선식 사장)

독자의 소리

- 120 「교과서 연구」를 통해 다양하고 소중한 생각을 만들어가기를... 김현아

- 121 특수분야 연수 홍보
122 교과서 개별 구입 안내
125 원고 모집
126 '교과서정보관' 이용 안내

교과서 출판사의 길



김 영 진 | (주)미래엔 대표이사

최근 출판계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과제는 사회적 여건과 독자 니즈 등 그 변화와 발전의 속도가 어느 분야의 산업 못지않게 급변하는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고 대응하느냐이다. 특히, 출판계에서 ‘스마트’와 ‘디지털’이라는 두 단어가 주는 무게감은 무서울 정도로 확대되고 있어 이제 이와 관련된 ‘변화’와 ‘혁신’은 시대적인 요청이 되었다. 이러한 외부적인 환경은 국내 출판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과서 출판계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국정 교과서 경쟁 입찰제의 도입, 국정 및 검정 도서의 축소 정책에 따른 인정 도서의 확대, 검·인정 교과서의 과잉 개발 및 채택 경쟁 등으로 인하여 교과서 출판 사업이 과거에 비해, 또 타 업종에 비해 수익 창출 구조 기반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정보 통신(IT) 매체를 활용한 디지털 교과서의 등장, 지상파 방송의 통신 교육 확대, 인터넷 온라인(on-line) 교육의 상용화 등은 기존 교과서 출판사들을 위기로 내몰고 있는 동시에 변화의 장으로 이끌고 있는 핵심 요인이다.

물론, 출판계가 당면한 현재의 위기가 이와 같은 외적인 환경 변화에만 기인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검·인정에 출원하는 출판사의 대부분이 영세하여 교과서 사업을 일회성 특화 사업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로 인해 전문 인력을 상시적으로 확보하지 못하고 검·인정 출원 당시에만 일시적으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가 흔하며, 검·인정 실시 때마다 경험이 일천한 일부 출판사들이 완성도 낮은 심사본을 제출하는 현상도 되풀이되고 있다. 또, 때로는 과도한 투자로 인해 파산하는 경우도 있으며, 기존의 출판사들도 여러 교과목의 교

과서를 한꺼번에 출원하기 때문에 질 높은 교과서 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 결과 그동안 교육 문화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교과서 출판사들의 자부심과 긍지는 떨어지고 오히려 교육 수요자로부터 개선의 노력을 요구받을 정도로 그 위상이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이러한 교과서 출판계 내부의 환경은 외적인 환경 변화 못지않게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그렇다면 교과서 출판계가 직면하고 있는 이와 같은 안팎의 환경을 인식하고 현재의 위기 탈출, 나아가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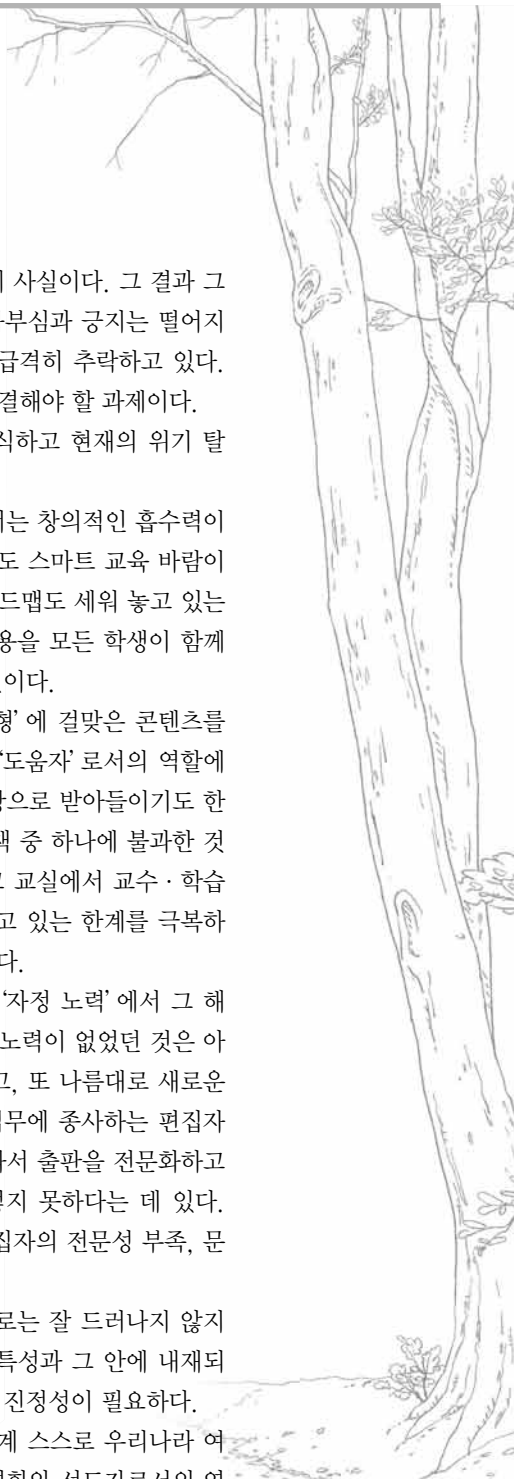
우선 사회적 여건과 독자의 니즈 등에 의한 외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흡수력이 필요하다. 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스마트 바람이 불면서 교육 시장에도 스마트 교육 바람이 거세다. 정부에서는 단계적으로 스마트 교육을 도입하기 위해 구체적인 로드맵도 세워 놓고 있는데, 그 핵심은 ‘맞춤형’과 ‘자기 주도형’이다. 즉, 똑같은 수준의 수업 내용을 모든 학생이 함께 듣고 동일한 잣대로 측정하고 시험을 보는 교실의 모습을 바꾸어 보자는 것이다.

따라서 교과서 출판계는 스마트 교육의 핵심인 ‘맞춤형’과 ‘자기 주도형’에 걸맞은 콘텐츠를 개발, 생산, 보급함으로써 교육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이른바 ‘도움자’로서의 역할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 혹자는 디지털 교과서의 등장을 서책형 교과서의 퇴장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하지만, 디지털 교과서는 스마트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중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에서 서책형 교과서는 언제나 그래왔듯이 학교 교실에서 교수·학습의 주인공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왜냐하면 디지털은 서책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보완하는 또 하나의 교과서 콘텐츠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과서 출판계가 안고 있는 또 하나의 이슈인 내부 문제는 ‘전문화’와 ‘자정 노력’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 물론, 지금까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교과서 출판계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정책 당국이나 출판사 모두 교과서 출판의 전문화와 특화를 주장했고, 또 나름대로 새로운 교과서 출판 방안을 모색해 왔던 것도 사실이며, 교과서 출판 경영자나 업무에 종사하는 편집자도 새로운 교과서 발행 방식을 익히고 연구하는 등 전문성을 제고하여 교과서 출판을 전문화하고 특화하자는 자정·자성의 목소리를 높였었다. 문제는 여전히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데 있다. 그것은 교과서 출판의 주체인 출판사 조직의 보수성, 교과서 발행사 및 편집자의 전문성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성 부족 등 여러 이유에 기인한다.


따라서 시대 흐름에 맞게 교과서 출판사의 경영 선진화를 꾀하고,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실제 교과서 출판 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조직적 활동의 특성과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일상적인 교과서 출판사의 업무 관행을 개선하려는 강력한 의지와 진정성이 필요하다.

이제 교과서 출판계가 직면하고 있는 외적·내적인 환경은 교과서 출판계 스스로 우리나라 여러 산업 중에서 하나의 중요한 개체라는 냉철한 인식에 기초한 능동적인 변화와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필자가 하나의 산업을 이끄는 주체자로서 창의적인 흡수력과 철저한 자기반성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011년 8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별 교육과정을 고시하고, 8월 12일에는 이 교육과정에 따른 현장·실생활 중심의 교과용도서 개발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2010 교과서 제도 선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 구현에 적합한 교과용도서를 개발·보급하고자 한 것으로, 국정도서는 초등학교 통합교과와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을 대상으로 하고(교과서 37종, 지도서 16종), 검정도서는 초등학교 실과,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와 중등학교 국어, 사회(역사 포함)/도덕을 대상으로 하며(중학교 교과서 6종, 고등학교 교과서 18종), 그 나머지 교과용도서는 모두 인정으로 전환하여 우리나라 교과용도서의 84%를 인정도서가 차지하게 되었다.

본지에서는 그동안 2회에 걸쳐 인정도서 정책의 방향과 구현을 살펴보았으며, 이번 호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국정도서 편찬 방향과 각 교과별 교과서 개발 방향을 구체적으로 들어보게 되었다. 국정도서는 비록 적용 범위는 초등학교 일부 교과에 국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도서들의 편찬 방향과 변화 내용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교원들은 물론, 국·검·인정도서를 막론하고 교과용도서를 개발하는 이들에게 큰 관심거리가 될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특.별.기.획.

초등 국정도서, 이렇게 만든다

- △ 초등 국정도서 편찬 방향
- △ 통합 교과
- △ 국어 교과서
- △ 도덕 교과서
- △ 사회 교과서
- △ 수학 교과서
- △ 과학 교과서



초등 국정도서 편찬방향



김 형 철

교육과학기술부 연구사

국정도서의 주요 특징과 편찬 과정 등을 자세히 안내하여, 2013년부터 적용되는 초등학교 국정도서의 현장 활용 및 이해도를 높이고자 한다.

1. 국정도서의 제도적 위상

국정도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교과용도서를 말한다. 검정도서의 저작권이 출판사와 집필진에게 있는 것과 달리 국정도서는 국가가 직접 또는 편찬기관 위탁을 통해 교과용도서(교과서, 지도서)를 편찬·개발하고, 그 저작권(저작권인격권, 저작재산권 등)을 갖는 도서이다.

국정도서는 7차 교육과정기에서 2007, 2009 개정 교육과정기로 오면서, 교과서 제도의 선진화 방안에 의해 상당수 검·인정도서로 전환되었다. 국가가 직접 교과서를 개발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연구집필진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사회의 변화 및 학문의 발전을 반영한 다양하고 질 높은 교과용도서를 개발·촉진하기 위해서이다.

국·검·인정도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과정 고시에 근거하여 구분한다. 검정도서는 검정 기준 및 편찬상의 유의점 등을 발표하고, 출판사나 저작자가 이를 참조하여 개발한 검정 도서의 심사를 통과한 도서이다. 검정도서의 장점은 출판사 간 자유 경쟁을 통해 어떤 교과 교육과정에 대해 다양한 교과서를 개발·보급함으로써 학교에게 교과서 선택권이 주어진다는 점이다. 다만 교과서 사용 1년 6개월 전에 검정 실시 공고를 해야 하고, 심사가 엄격하기 때문에 합격률이 대체로 인정도서보다는 낮다.

인정도서는 사용하기 6개월 전에 인정출원하면 되기 때문에 보다 충분한 기간을 갖고 개발할 수 있고, 집필진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더 많이 작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검·인정교과서만을 놓고 볼 때, 교과서 개발이 국정도서에서 인정도서 중심으로 대폭 변화함으로써, 외적 규모로는 국정도서가 대폭 축소되었다. 국정도서는 현재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교과용도서에만 남아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도 영어, 미술, 음악, 체육, 실과 등은 검정도서로 전환되었다.

교과서	교육과정 (국정/국·검·인정)	2007 교육과정기		2009 교육과정기 (국정/국·검·인정)
		2007년 (국정/국·검·인정)	2009년 (국정/국·검·인정)	
국정교과서	548책/679책(81%)	462책/664책(69%)	374/700책(53%)	53종/591종(9%)
검정교과서	99책/679책(14%)	170책/664책(26%)	170/700책(24%)	43종/591종(7%)
인정교과서	32책/679책(5%)	32책/664책(5%)	156/700책(22%)	495종/591종(84%)
비고		구분고시 제 2007-82 호, 인정도서 심의회 심의 없는 인정도서 83책 제외	구분고시 제 2009-4호	2012년 현재

이처럼 국정도서는 규모면에서는 축소되었지만, 나름대로의 장점도 있다. 해당 교과 분야 우수 인력들이 참여함으로써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고, 교과용도서편찬심의회와의 충분한 검증을 거쳐 수정·보완이 이루어지며, 무엇보다도 1년 동안의 현장적합성 검토를 통해 교육 현장의 요구와 상황에 맞는 교과서를 공급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검정 도서에 비해 낮은 개발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 증액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 초등학교 교과서에 집중함으로써 양질의 교과서를 편찬·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즉 규모면에서는 축소되었지만, 품질면에서는 한층 개선된 좋은 교과서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다.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전학이 상대적으로 빈번하여 교과서가 다룰 경우 학습 결손이 발생할 수 있으나, 국정도서의 경우에는 어느 지역에서도 공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학생, 학부모 입장에서 안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 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 수준의 품질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국정도서가 갖는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더불어 외형체제 자율화에 따라 국정도서의 교과별 특성에 맞는 변화가 현장의 요구에 최적화된다면, 선진형 국정도서 개발 모델로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2. 국정도서 편찬의 방향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에 의해 편찬되는 국정도서는 몇 가지 편찬상의 방향을 갖고 있다. 교육과정의 취지를 잘 실현할 수 있는 교과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전제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논외로 한다.

무엇보다도 이전의 초등학교 국정교과서에 대한 학부모나 학생의 반응 중에는 어렵다는 비판이 많다. 학생들의 수준에 맞지 않는 난이도의 내용을 담은 경우가 있고, 교사가 가르쳐야 할 사항도 상당히 많아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식 중심 교과서라서 참고서나 교사의 설명이 있어야 이해가 되는 불친절한 교과서라는 지적도 듣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현재 편찬 중인 교과서는 쉽고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친절하게 풍부한 자료를 담은 교과서를 지향한다. 가급적이면 이해하기 쉬운 설명과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재미있는 내용을 담고자 한다. 또한 참고서 없이도 공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 자료 및 사진, 삽화 등도 곁들여 학생들이 학습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교과서가 되도록 추진 중이다.

다음으로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습자 중심 학습 활동에 초점을 둔 교과서를 지향한다. 교사 주도의 수업을 위한 교과서는 학생들의 학습 능력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학생들의 능동적 학습 참여와 활발한 자극, 동기 등을 부

여하는 교과서를 제공하여, 교육과정상의 성취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자 한다. 국어활동, 수학익힘책, 통합교과의 활동 중심 프로그램 등은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국정도서 외형체제도 집필진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여, 표지, 판형, 삽화, 사진, 색도, 쪽수 등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보다 다양한 개발이 가능토록 했다. 이는 기존의 외형체제의 일정한 규정이 교과서의 질적 향상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교사와 학생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고, 교과 특성에 맞는 외형체제를 갖춘 교과서가 되도록 집필진의 참신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새 교과서는 보다 좋은 품질의 사진과 삽화, 어린 학생들의 책가방의 무게를 줄이기 위한 책당 쪽수 조정 및 분권(分券), 교과 학습에 적합한 판형 등이 적용되므로 한층 개선된 면모를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3. 새 국정도서 개발 현황

2011년 8월 9일,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이 고시됨에 따라 초·중등 교과용도서가 새로 개발·편찬되고 있다.

2013년 초등 1~2학년, 2014년 초등 3~4학년, 2015년 초등 5~6학년 등 초등학교 국정도서는 연차적으로 현장 적용될 예정이다. 중학교는 2013년, 고등학교는 2014년에 새 교과서가 발행된다.

현재 초등 1~2학년 국어, 수학, 통합교과(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와 3~4학년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교과서가 편찬되고 있다.

또한 올해 초등 5~6학년 국정도서 편찬기관 공모에 의해 해당 학년 교과별 편찬기관이 선정되면 즉시 집필에 들어가, 2014년 말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학년군	편찬 대상 교과	적용연도
초등 1~2학년군	국어, 통합교과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수학	2013년
초등 3~4학년군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2014년
초등 5~6학년군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2015년

4. 국정도서 편찬 과정

국정도서의 편찬 과정을 살펴보면, 교과서의 품질 제고를 위한 절차가 구조적으로 잘 짜여 있다. 국정도서의 절차는 교과서의 개선을 위한 상호 협조 체계를 기반으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거친다.

- ① 편찬기관 공모, 선정 (교육과학기술부)
- ② 교과용도서편찬심의회 심의위원 공모, 심의회 구성 (교육과학기술부)

- ③ 집필세목 → 교과용도서 원고본 → 개고본 → 실험본 기획, 집필, 수정(편찬기관)
- ④ 집필세목 → 교과용도서 원고본 → 개고본 심의 → 실험본 심의(교과용도서편찬심의회)
- ⑤ 현장적합성 검토 연구학교 실험 적용 및 결과 반영(교육과학기술부)
- ⑥ 최종본 집필, 심의, 승인(편찬기관, 심의회, 교과부)

위의 편찬 과정을 살펴보면, 국정도서는 편찬기관, 교과용도서편찬심의회, 현장적합성검토연구학교 등이 참여하여 만들어진다. 그 만큼 밀도 있는

검증을 통해 만들어진다. 이리하여 국정도서는 내용이나 표현이 갖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점들이 철저히 검토되어, 그에 대한 적절한 개선이 이루어짐으로써 국정도서 제도가 갖는 순기능적 측면이 발휘된다.

국정도서 편찬기관은 공모를 거쳐 객관적인 심사 에 의해 결정된다. 즉, 국정도서 편찬 응모 기관의 역량, 편찬세부계획서, 교과서 예시 단원 등을 심사 하여 선정위원회에서 가장 우수한 기관을 선정한다. 편찬기관이 선정되면, 편찬 일정에 의해 교과용 도서에 대한 집필세목을 확정하고, 교과용 도서 원고본, 개고본, 실험본, 수정본, 최종본 등의 과정을 거쳐 집필을 완료한다.

편찬기관의 국정도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편찬 기관 연수 및 편찬기관 간 협의회도 실시한다. 특히 편찬기관 간 협의회는 학기별로 개최하여, 편찬기관의 현재 교과용도서 개발 현황과 개선 상황에 대해 발표하고 협의하며, 제작되고 있는 교과용도서의 전년도 검함으로써 편찬기관 상호간의 정보 공유 및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다.

교과용도서편찬심의회는 편찬기관이 각 단계별로 제작한 결과물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교과용도서심의회는 편찬기관과 마찬가지로 공모에 의해 추천된 위원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구성된다. 교과용도서심의회는 교과별, 도서별로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 임기는 2년이다. 교과용도서심의회는 교과용도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많은 제안들을 제시하며, 집필진이 교과서를 잘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현장적합성 검토 연구학교는 국정도서를 실제 학교에 보급하기 1년 전에 적용상의 문제점을 최소화 하고 현장이 원하는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운영한다. 대상 학년의 실험 운영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들을 정리하고, 학기별 결과물을 연구학교 교과별, 학년별 협의회를 통해 정리하여 집필진들과 함께 검토하는 과정을 거친다.

연구학교 협의회는 반드시 수정해야 할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편찬기관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현장 연구학교에서 나온 결과들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한 장치이다. 이때 편찬기관, 심의회에서도 같이 참여하여 국정도서의 질적 제고를 위한 교과용도서의 개선할 사항에 대해 협의한다.

국정도서는 이처럼 편찬기관의 연구집필진들이 편찬하는 교과용도서에 대해 교과용도서편찬심의회와 현장적합성검토연구학교 교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개선안을 함께 협의함으로써 현장이 필요로 하는 교과서를 만들어 내는 데 노력한다.

5. 교과별 특징과 기대 효과

2013년 적용 초등학교 1~2학년 국어, 통합 교과, 수학의 경우, 내년도 1학기 교과용도서의 편찬이 완료 단계에 들어섰다.


교과서의 특징을 보면, 국어 교과서는 듣기·말하기, 쓰기, 읽기 등 기존의 3권 체제에서 단권 체제로 바뀌었다. 사용 기능 중심으로 세분화되었던 교과서를 한 권으로 통합하여, 학생들이 각각의 교과서가 아닌 한 권의 국어 교과서를 통해 국어 사용 기능을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어활동이라는 보조 교과서를 두어, 국어 교과서의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생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 하였다. 국어활동은 학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어,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언제든지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 하고, 풍부한 설명 자료들을 곁들여 이해하기 쉽게 하였다. 또한 듣기·말하기·쓰기, 읽기 등 2~3책으로 되어 있던 것을 1권으로 통합함에 따라, 책이 두꺼워져 글쓰기가 불편해지고, 책가방이 무거워지는 것을 고려하여 물리적 분권을 함으로써 학생들의 편의성을 최대한 도모하였다. 국어는 학기당 2책, 연간 4책이며, 국어활동도 국어와 연계하여 학기당 2책, 연간 4책

이 나온다. 또 국어와 국어활동을 동시에 학습하는 일도 거의 없도록 하여 현장의 편의성을 최대한 살렸다.

1~2학년 통합교과 역시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등 3개 교과로 분리되어 있던 것을 하나의 교과서로 통합하고, 주제 중심의 통합 교과 학습을 구현할 수 있게 만들고 있다. 새 교과서는 월별로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 구성된다. 학습 내용은 학교에서 일정을 계획하여 융통성 있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심화 또는 보충, 통합 운영 등 다양한 방식의 접근이 가능하다. 통합 교과의 월별 교과서는 학기당 4책, 연간 8책이 나온다. 지도서는 모든 교과가 학기당 1책이다.

수학은 스토리텔링을 도입하여 학생들이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맥락 속에서 수학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학생들이 수학적 아이디어를 생활 속에 적용하여, 수학적 원리가 우리에게 가까이 있고, 그 해결의 실마리가 수학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측면도 있다. 교과서를 수학과 보조 교과서인 수학익힘책으로 구분한 것과 책수 등은 이전 교과서와 동일하다.

2014년 적용을 위해 편찬 중인 3~4학년 도덕, 사회, 과학 교과서 또한 쉽고 재미있는 교과서, 현장공감형 교과서, 탐구형 교과서를 지향하여 개발 중이다. 특히 도덕, 사회는 인성 교육을 강화한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에 의한 일부 성취 기준의 변화를 반영하여, 학생들의 인성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학습자가 실제 생활이나 사회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이해·탐구하고, 바람직한 가치관을 정립하여 상대를 배려하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13년부터 적용되는 국정도서는 기존 교과서보다 한층 개선된 삽화와 사진 등의 외형체제를 갖춘 교과서, 교과서의 무게와 학습에 적합한 판형 등으로 현장 편의성을 최대한 살린 교과서, 학생 활동 중심의 쉽고 재미있는 교과서, 풍부한 설명과 예시 자료 등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교과서, 창의적 사고와 인성을 고려한 교과서로서의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참신하고 새로운 교과서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과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 교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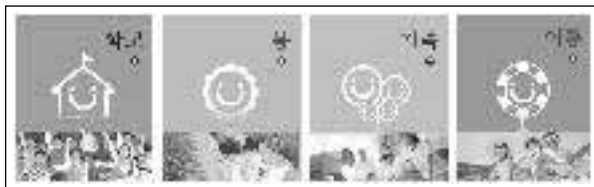
-한 달에 한 주제씩 공부하는 주제별 교과서-



정 광 순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2013학년도부터 초등학교 1, 2학년 통합교과 수업 풍경이 좀 더 학생 중심 교실 중심으로 변할 것이다. 새로 사용할 교과서가 교사와 학생들이 한 달에 한 권씩 하나의 주제를 공부할 수 있도록 나오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우리들은 1학년』, 『바른 생활』(『생활의 길잡이』 포함),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이라는 교과 이름을 가진 교과서가 아니라, 한 권의 교과서에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을 모두 담아서 『학교』 혹은 『나』, 『봄』, 『가족』, 『여름』, 『가을』, 『우리나라』, 『이웃』, 『겨울』 이름의 주제별 교과서를 개발하였다.



〈그림〉 주제 중심 논리적 이기보다는

가령, 4월 즈음 학교 주변에 봄이 오면 『봄』교과서를 사용하여, 바른 생활과에서 ‘봄 철 건강’을, 슬기로운 생활과에서 ‘봄 날씨와 생활의 특징’을 조사하며 탐구하고, 즐거운 생활과에서 ‘봄을 표현하고 놀이하는’ 공부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이런 학습 주제는 3개의 교과에 각각 나눠 담았기 때문에 교과별로 학습 주제는 서로 연속·연계되어 있었지만, 정작 이것은 통합이 아니라 중복으로 여겨질 정도로 따로 따로 공부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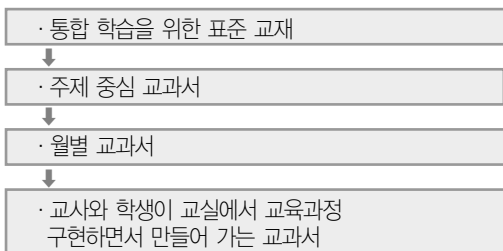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구상 단계의 주제별 교과서와 지도서, 그리고 권장하는 운영 시기들을 열거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교육과정 대주제에 기초한 교과서 구분

교육과정	...	교과서			
대주제	구분 (권장하는운영시기)	1학년		2학년	
		교과서	지도서	교과서	지도서
		1학년		2학년	
학교와 나	1학기	3월	학교 1	나 2	교사용 지도서 2-1
봄		4월	봄 1	봄 2	
가족		5월	가족 1	가족 2	
여름		6-7월	여름 1	여름 2	
이웃		9월	이웃 1	이웃 2	
가을	2학기	10월	가을 1	가을 2	교사용지도서 2-2
우리나라		11월	우리나라 1	우리나라 2	
겨울		12-2월	겨울 1	겨울 2	

교사와 학생들은 매월 다른 주제의 교과서를 한 달 동안 사용하면서 어떤 주제를 충분히 탐구하고 배우는 활동에 몰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교과서의 변화로 초등학교 교실에서 통합수업이나 학습이 일반화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렇게 바뀌는 통합 교과서의 특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주제 중심 교과서, 초등학교 교실에서 통합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교재, 월별 교과서, 더 궁극적으로는 교사와 학생이 참여하여 교실에서 교육과정을 구현하면서 만들어 가는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주제 교과서

새 교과서는 주제중심 교과서이다. 즉 하나의 학습주제를 중심으로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3개의 교과에서 배울 내용을 한권에 통합한 것이다.

주제 중심 교과서는 교과자체보다는 학습자가 배우고자하는 구체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 교과 내용이나 방법을 묶어 줌으로써 교수가 아니라 학습이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보다 3개의 통합교과 교육과정의 주제를 통일한 개정 초등통합교과 교육과정의 취지에 맞다. 특히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의 발달 특성과 단계를 고려해 볼 때, 이 시기 학생은 보편적으로 객관적이기보다는 주관적이고, 논리적이기보다는 심리적이며, 사회적이기 보다는 개인적인 경험 세계를 가지고 있고, 이런 특징을 존중하면서 새로운 교과의 세계에 입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에게는 교과를 분과적으로 접하기 보다는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교과를 통합해서 접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적절하다.

또 주제 중심 교과서는 세 권의 교과서를 한 권으로 줄여 책가방 무게를 줄이는 등 초등학교 1, 2학년

에게 실용적이다. 국어, 수학,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5권의 교과서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지금과는 달리 국어, 수학, 통합교과의 주제 교과서 총 3권만 사용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 이런 주제 교과서는 학생에게 친숙하고 선호하는 교과서명을 사용하고, 매달 새 책을 받아 보는 기대와 기쁨을 주는 실용성도 있다.

통합학습을 위한 표준 교재(교수학습 표준 자료)

초등학교에서 통합수업은 한 차시 안에 2개 교과를 통합한 수업, 혹은 2~3개 교과를 연결해서 블록화하여 공개 수업이나 할 때 볼 수 있는 수업으로 교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소의 수업 모습은 아니었다. 배움 중심의 학습에 관심이 있는 교사에 따라서 프로젝트학습이나 통합단원을 확산 운영하는 교실을 드물게 볼 수는 있었다. 하지만 이런 수업을 하는 교사는 어마어마한 재구성 노력과 진도, 평가 등의 현실적인 문제를 고스란히 안고 하는 애환이 많은 수업이었다. 이런 여건에서 새 통합 교과서는 초등학교 교실에서 일어나는 평소의 수업을 통합 수업으로 일반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에게 교과를 가르치고, 모든 교과에서 학습한 것을 스스로 통합할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즉 이들을 위해서는 교과별 수업뿐만 아니라, 교과를 통합한 형태의 수업도 필요하다. 특히 후자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교사는 통합수업을 해본 경험이 부족하고 학생은 통합학습을 해본 경험이 부족하다. 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통합된 교수·학습 자료 즉 통합 교과서와 같은 표준자료이다. 이 자료는 궁극적으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이나 통합학습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새 교과서는 초등학교 교실에서 하는 일상적인 수업을 통합학습 혹은 통합수업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교수·학습 자료 혹은 수업 교재 역할을 할 것이다.

월별 교과서

새 교과서는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월별 교과서이다.

통상 1권의 교과서는 매월 1일에 시작하여 말일에

하도록 되어 있다. 학교의 학사일정에 따라 동학년 별로 월별 주제를 선택할 수 있고, 교실의 일과에 따라 계획한 것을 다 했을 경우 학생의 관심과 흥미를 반영하여 주제 관련 탐구 심화 학습을 추가하기도 하고, 시간이 모자랄 경우 차시들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서 단위학교나 지역 교육의 상황에 따라 동학년별로 운영하는 교과서 주제를 임의 선택할 수 있어, 상황에 따른 교과서 재구성성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에서 보편적인 동학년 집단의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때문에 새 교과서는 교과서 체제 측면에서부터 교과서 재구성의 현실성을 높여 놓았다. 이는 한편으로 학교마다 교실마다 융통성 있으면서도 다양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학교별로 혹은 동학년별로 어느 정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성과 일관성, 차이와 통일 이런 역설적인 두 상황을 유연하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월별 교과서로 교사는 학생에게 맞는 학습의 선택과 몰입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월별 주제에 맞춰서 분과 형으로 운영하는 국어와 수학과에서 배운 3R's를 주제 학습 때 사용할 수 있어 교과학습 기능의 적용의 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국어 수학과 통합 교과 간의 기능적 통합 또한 가능할 것이다.

만들어 가는 교과서

교과서, 특히 국정 교과서는 국가 교육과정을 구현하는 대표적인 자료이며, 표준화 자료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과서는 또한 교실에서 학생의 참여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어야 바람직하다. 새 통합 교과서는 이를 가능하게 했다.

교과서 한권(한달용)을 기준으로 평균 20% 감축 개발하였기 때문이다. 출석일수 대비 수업일수나 시간은 대부분 여유가 있다. 이 여유 시간을 활용하여 교실에서는 학생이 요청한 것을 유연하게 수용하여 교육과정 및 주제 한계 내에서 반영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이 원하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배움 중심의, 학생과 함께 만들어 가는 교과서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 즉 이런 운영으로 교사는 학생에게 학습에 필요한 선택과 자율을 되돌려 준다.

또 교사는 학생의 요청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교과

서보다는 교육과정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점점 교과서 중심의 수업을 넘어서 교육과정 중심의 수업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교사는 학생의 요청을 수용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상시적으로 그들과 교육적으로 민주적으로 협상해야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교사-학생의 교육적·민주적 협상 능력이 발달할 것이다. 학생은 한 달 동안 공부할 것을 모두 계산해 둔 학습 계산판을 보면서 자신의 학습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서 주제에 벗어나지 않으면서 자신이 공부하고 싶은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는 방식을 경험할 것이다. 수업의 내용과 방법 순서를 스스로 정해보는 경험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새 교과서를 교실에서 실제로 사용할 때, 이 교과서는 이미 교육과정을 구현하는 과정에 교사와 학생이 참여하여 스스로 만들어 가는 교과서가 될 것이다.

이런 새 교과서로 통합교과가 꿈꾸는 궁극적인 이상이 무엇인가? 그것은 아이들이 학업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해서 학교가 그들에게 행복한 곳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지금의 교실 수업 풍경을 그려보면, 교실에서는 1교시, 2교시 매 시간 '시간표'에 어떤 '교과'를 가르쳐야 하는지를 표기해 놓고, 교사는 그 교과의 교과서를 가르치고, 학생은 교사가 가르치는 것을 받아들이는 수많은 수업을 받고 있다. 다시말해서 그동안 우리는 학교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배워야 할 것은 국어, 수학,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이라는 교과에 담아 놓고, 이들 교과의 시간표를 정해서 그것을 참으로 열심히 많이 가르쳐 왔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교교육은 지금 우리에게 도래한 지식 기반 사회에 걸맞게 상식이나 정보 지식이 풍부한 아이, 많이 아는 아이, 똑똑한 아이들을 사회에 배출하는 데 기여했다. 이런 긍정적인 면과 더불어 공부에 대한 이미지는 해야 하는 것, 시키는 것, 경쟁적인 것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배움의 즐거움이나 의지, 자율성이 충분히 발달시키기 어려웠다.

점점 학교 안에서 행복을 느끼기 어려워하는 요즘 아이들, 나는 이것이 학교폭력을 비롯해서 요즘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의 궁극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즉 학교 내부에서 본 학교교육 현안 문제들의 근본적인 이유는 아이들이 학업의

즐거움을 느끼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수업, 소통하기 어려운 학교 수업 문화로 아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지쳐가고 있고, 자신을 추스르기 바빠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력이 없고, 점점 시험성적이라는 단일화된 평가에 예속되고 있다. 이쯤 되면 아이들은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에 시달리는 것이다. 문제의 원인은 여러 가지이고 그래서 해결책도 여러 가지이지만, 학교의 문제는 학교 안에서 찾아야 한다. 그 해결점의 한 가운데에 학교 시간이나 생활의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수업이 위치하고 있다.

새 통합교과는 교과로 분절되고, 시간표로 파편화된 학교 학습이 대단히 열심히 많이 가르치고 또 배

우게 한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학습의 의미를 점점 상실해 가는 이런 추세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과의 분절화나 파편화를 통합으로 이어줄 필요가 있다. 한 권의 주제 교과서는 이런 맥락에서 교육적으로 의미 있다. 즉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교과를 함께 담은 한 권의 주제 교과서를 제공함으로써 교사와 학생은 1권의 교과서가 담고 있는 학습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 교과를 통합하면서 한 달 정도는 몰입해서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배울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학생들이 학교에서의 배움의 즐거움을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그래서 새 교과서의 제공으로 학교의 시간표는 아마도 다음과 같이 변할 것이다.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1교시	바른 생활	국어	수학	수학	국어	국어
2교시	국어	수학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수학	슬기로운 생활
3교시	수학	즐거운 생활	국어	국어	즐거운 생활	즐거운 생활
4교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슬기로운 생활	국어	즐거운 생활	즐거운 생활




구분	월	화	수	목	금
1	수학	수학	국어	국어	수학
2	국어	국어	수학	국어	국어
3	가 족				
4~5					

교과로 고정된 시간표에 주제를 넣어 분과와 통합의 조화를 도모하고, 월별로 유동적인 시간표를 운영할 수 있다. 새 교과서가 주제별 월별 교과서이지만, 교과가 이수해야 할 교과별 주당 시수에 기초해서 개발했기 때문에 교과별로 배당한 수업 시수를 이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주제 중심 학습도 구현할 수 있다. 이것은 여러 교과를 한꺼번에 운영하는 초등교사에게 변화에 따르는 지나친 부담이나 무리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혁신 및 변화에는 무리가 따르기 마련이다. 변화에 필요한 여건 마련 및 정비, 추가적인 교사 교육

및 연수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주제 교과서 도입으로 인한 수업의 변화는 혁신적이지만, 그 변화로 인한 부담이나 충격은 수업의 변화에 비하면 매우 적다. 새 교과서는 변화로 인한 부담과 충격을 최소화 하면서 통합교과가 학교에서 하고자 하는 테마가 있는 초등학교 교실, 테마가 흐르는 수업 풍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우리는 모두 이미 선진적인 초등학교교육을 하고 있는 외국의 초등학교 교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제 중심 통합학습을 우리나라 초등학교 1, 2학년 교실에서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어 교과서



이 재 승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1. 새 국어 교과서, 이 점에 주목했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이제 새 국어 교과서를 개발하게 되었다. 새 국어 교과서는 서울교육대학교와 한국교원대학교를 개발기관으로 하되, 전국의 교육대학 교수진과 현장 선생님들의 말 그대로 피와 땀으로 만들어졌다. 새 국어 교과서는 2013년에 1·2학년, 2014년에 3·4학년, 2014년에 5·6학년이 전국에 공급된다.

교육과정이 개정되면 으레 새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가 만들어지게 마련이지만, 새 국어 교과서는 이전에 비해 한 차원 높은 교과서를 지향했다. 무엇보다 학생들에게 쉽고 재미있는 교과서, 학생들의 실제 언어 생활을 고스란히 담은 교과서, 통합적인 언어 활동을 강조한 교과서를 개발하고자 했다.

체제상의 큰 변화는 이전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로 분책되었던 것을 〈국어〉 교과서로 통합했다. 따라서 영역별 통합적 지도가 좀 더 용이해졌고, 활동 중심의 교과서를 편찬할 수 있는 여력이 확대되었으며, 책을 일일이 바꾸어 와야 하는 현상의 불편함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학생들이 국어 수업 시간에 배운 것을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해 보게 함으로써 배운 것을 정착, 습관화할 수 있도록 〈국어 활동〉이라는 보조 교과서를 개발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체제상의 큰 변화로는 교사와 학생들이 무거운 책을 활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 나의 두 권으로 나눈 점, 단원 구성 방식의 체계화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편집상에 변화를 주어 좀 더 학생들에게 친숙하면서도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단원 도입, 삽화나 사진, 편집 등을 개선했다.

새 국어 교과서의 내용 및 방법 면에서의 큰 변화는 교육과정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다.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들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성취기준들을 통합한 점, 제재나 활동을 구성할 때 학생들의 실제 언어 생활에서 가져온 점, 구체적인 교수 학습 방법을 제공한 점, 활동 중심의 교과서를 지향한 점 등 많은 점에서 이전 교과서보다 한 차원 개선된 교과서를 개발하고자 했다. 그리고 정부의 시책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제재나 활동을 구안할 때, 창의적인 사고와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내용을 적극 반영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국어〉와 〈국어 활동〉 교과서의 특징을 차례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다만, 〈국어 활동〉이 교사들에게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2. 〈국어〉 교과서, 이렇게 만들었다.

가. 〈국어〉 교과서의 특징

국어 교과서는 주 교과서로 학생들에게 재미있는 교과서, 친절한 교과서,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과서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학생들에게 친숙하면서도 재미있는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제재나 활동을 선정할 때 학생들이 흥미 있어야 할 만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학생들이 실제 생활에서 친숙함을 느낄 수 있는 소재, 그러면서도 교육적인 가치가 있는 소재를 선정했다.

학생들에게 친절한 교과서를 구현하기 위해 학습 도우미를 등장시켜 이전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했다. 교과서 여백 지면을 활용하거나 삽화나 사진을 활용할 때에도 학생들이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장치들을 포함했다.

학생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언어 행위의 맥락을 강조했다. 실제 언어 생활에서는 항상 맥락이 있게 마련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글을 쓸 때, 그 글을 쓰는 목적과 주제, 독자, 상황이 있다. 목적이나 주제, 독자가 구체적이면서 학생들이 실제의 언어 생활에 접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새 국어 교과서는 최대한 학생들이 실제 삶에서 접하게 되는 언어 사용 상황을 설정한 다음, 여

기에 필요한 지식, 기능, 전략을 가르치고자 했다. 예를 들어 학급 문집을 만들게 되는 상황이 있다면, 학급 문집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글을 선정하거나 실제 쓰고, 이것을 편집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자 했다. 그리고 실제 학생들의 삶에서는 언어 매체들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텔레비전, 인터넷, 휴대폰 등과 같은 전자 매체에 대한 교육 역시 강화했다.

나. 〈국어〉 교과서 단위 구성 체계

단위 구성 체계에서는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큰 흐름은 기존 방식을 취하고자 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해 학습과 적용 학습으로 나누되 실제 포함된 내용은 이전보다 좀 더 정교화하고 체계화하고자 했다.

도입 학습에서는 이 단원의 학습 목표가 무엇이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학습하게 된다. 특히 단위 전체와 관련하여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해 학습에서는 하나의 텍스트를 생산하거나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능, 전략을 학습하는데 초점을 둔다. 이 때에는 이해 차원에서 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운다.

단위 전개	도입 학습	이해 학습			적용 학습	정리 학습
	도입	실제에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학습			앞에서 배운 지식 · 기능 · 태도의 종합 적용 학습	정리
내용	· 단위 목표 · 관련 상황 제시(삽화, 사진) · 단원의 학 습 목표	〈지식 학습〉 · 차시목표 · 원리(장르 지식, 맥락 파악 및 이 해, 조건 지 식)의 학습 활동	〈기능 학습〉 · 차시목표 · (본문 읽기) · 낱말 학습 · 원리(기능) 의 학습 활동(기능 이해) · 통합 활동 · 기능 연습 (안내된 연 습 활동)	〈태도 학습〉 · 차시목표 · 태도 학습 내용 · 통합 활동	차시 목표 · (본문 읽기) · 과정 중심 활동 · 내용 이해 · 정서적 반응하기 · 태도 활동 · 통합 활동 · 맥락의 운용 및 점검	· 학습내용 정 리, 평가 · 태도 점검, 평가
차시	1~2차시		3~4차시	1~2차시	3~6차시	
분량	2		6~10		6~10	1

적용 학습에서는 앞에서 이해한 것을 좀 더 실제적인 상황에서 적용해 보게 하는 데 있다. 주로 과정 중심이나 활동 중심으로, 통합 중심 앞에서 배운 기능이나 전략을 적용해 보는 과정을 통해 배운 것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제대로 부려 쓸 수 있도록 한다.

단원 정리 학습에서는 단원에서 배운 것을 놀이 중심으로 정리해 본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실천과 관련하여 배운 것을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 볼 지를 생각해 보게 한다. 예를 들어 일기 쓰기를 배웠으면 지금까지 쓴 일기를 점검해 보고, 앞으로 좀 더 나은 일기를 쓸 수 있게 했다.

3. 〈국어 활동〉 교과서, 이렇게 만들었다.

가. 〈국어 활동〉 교과서의 필요성

〈국어 활동〉 교과서는 국어 교과서 개발 역사상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교과서이다. 그런 만큼 학교 현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어 활동〉 교과서는 이번 새 교과서 개발에서 역점을 둔 일이다. 〈국어 활동〉은 다음과 같은 필요가 있어서 개발하게 되었다.

국어 과목의 성격상 학생들이 다양한 읽기 자료를 읽고 생활 실천적인 활동을 자기 주도적으로 하면서 학교에서 배운 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 내면화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이 읽어야 할 자료가 풍부해야 하고, 실천 내면화할 수 있는 연습 공간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를 〈국어〉 책에서 하기는 어렵다. 우선 분량면에서도 하기 어렵고, 수업 시수에 모두 배정해 두면 교사나 학생 모두 엄청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꼭 수업 시간에 하지 않더라도 가정이나 다른 공간에서 스스로 연습해 보고 배운 것을 정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국어 활동〉에서 감당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리고 국어 교과서의 경우, 한 단원으로만 해결할 수 없고 꾸준히 해야 하는 활동(예를 들어 발음, 글씨쓰기)들이 많다. 수업 시간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학생이 주도적으로 학습해야 할 활동이 많다.

현실적으로 〈국어〉 책만으로는 많은 양의 학습 분량을 감당할 수 없다. 2학년을 예로 들면, 연간 최소 수업 시수가 238차시인데, 차시당 3쪽만 배당해도 연간 700쪽이 넘는 교과서를 공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초등학생들에게 이 정도 분량의 교과서를 매일 가져오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국어 활동〉을 통해 역할 분담을 할 필요가 있었다.

나. 〈국어 활동〉 교과서 개관

이해의 편의를 위해 〈국어 활동〉 교과서의 특징과 활용 방안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내용
성격	보조 교과서
목적	〈국어〉에서 배운 것을 삶(일상, 학교) 속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실천, 활용해 봄으로써 배운 내용을 내면화, 습관화하여 바람직한 국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학습 내용	〈국어〉 해당 단원 관련 학습, 창의성과 인성과 관련된 읽기 자료, 우리말에 대한 이해와 사랑(발음 학습, 글씨쓰기, 우리말 이해와 태도), 놀이터(창의적 사고)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업 시에 활용할 수도 있고, 학교나 가정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활용 교사나 학생의 편의의 효율성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수업 시간에 〈국어〉와 〈국어 활동〉 책을 동시에 활용하지 않아도 되게 함
차시 배정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업 차시에 배정되는 코너는 대부분 〈생각 펼치기〉임. 수업 시간에 활용한 것을 전제로 한 수업 차시 배정 비율은 〈국어〉와 〈국어 활동〉의 차시 배정 비율은 대략 8대 2정도.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활용
구성 관점	활동 중심, 놀이 중심, 통합 중심

다. 〈국어 활동〉 교과서의 단위 구성 체계

학습 성격	도입	〈국어〉 단위 통합 활용 학습	〈국어〉 단위 정착 활동	우리말 이해와 사랑	창의적/비판적 사고 함양
활동명		삶 속에서 (생각 펼치기)	더 찾아 읽기	우리말 다지기	놀이터
국어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원명 • 단원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원 학습 관련 통합, 적용, 활용 학습 • 생활 실천 활동 중심 학습 • 언어 태도 점검 및 습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원 관련 주제, 소재, 구조, 장르, 작가 등의 상호텍스트적 읽기 • 창의적 사고와 인성을 함양 • 독서 능력 및 태도 함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사용 • 발음, 글씨 쓰기, 읽기 유창성 등의 기초 학습 • 우리말 사랑과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 함양
분량(쪽)	2	4, 6	4-10	3	1

라. 〈국어 활동〉의 코너별 특징

‘삶 속에서’는 〈국어〉의 해당 단원을 배운 후에, 해당 단원의 학습 내용과 직결되면서 배운 것을 연습, 실천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가급적 생활 속에서 ‘실천’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하되, 놀이 중심, 통합 중심, 활동 중심으로 구성한다. ‘삶 속에서’는 주로 2차시 연속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하나의 완결된 학습 결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했다.


‘더 찾아 읽기’는 해당 단원의 학습 목표나 내용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읽어볼 자료를 제시하여 배운 것을 확대, 내면화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가급적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와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구체적인 읽기 자료(텍스트)는 상호 텍스트성을 강조하여 해당 〈국어〉 단원에서 다룬 내용들과 작가, 주제, 소재, 목표 등과 연관성을 갖게 한다. 문학적인 글이 많이 포함되지만 다른 종류의 글도 적절히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글을 읽음으로써 해당 단위 학습을 심화하기도 하면서 독서 능력과 태도를 함양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게 한다.

‘우리말 다지기’는 기초 학습과 국어 전반에 대한 이해에 대한 것이다. 발음, 글씨쓰기, 우리말 이해와 사랑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구성하되, 〈국어〉의 해당 단위와 어느 정도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놀이터’는 창의적, 비판적 사고를 함양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놀이 중심으로 구성하되, 학생들의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

초등학교 현장에서 국어 교과서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매일 한 시간 이상 국어 수업을 하는 데, 국어 교과서가 없는 국어 수업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교사와 학생들은 국어 시간마다 국어 교과서를 통해 만난다.

모든 교과서가 마찬가지겠지만 국어 교과서는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될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교과서의 의도가 제대로 구현되어야만 학생들이 국어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올바른 언어 사용과 함께 국어 활동을 통한 정서나 사고력 함양, 인성 등을 함양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는 교과서의 개발 의도나 활용 방안 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학급 실정에 맞게 재구성이 필요하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교과서가 내가 맡고 있는 교실 아이들의 흥미나 능력에 부합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학급 실정에 맞게 수정, 재구성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 국어 교과서 개발진의 의도가 학교 현장에 충분히 구현되어, 국어를 통해 아이들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도덕 교과서



유 병 mul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1. 도덕과 교과용 도서의 편찬 방향

이번에 새로이 개발하는 도덕과 교과용 도서의 주요 편찬 방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사회적 요구와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을 충실히 구현해 내고자 하였다. 이 때 국가·사회적 요청 사항으로서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인성교육, 다문화·다민족·글로벌 사회에 대한 준비로서의 국가정체성 교육, 전 지구적 관심사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녹색성장 교육 등이 중점을 이루었다. 그리고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으로서는 도덕적 인격을 함양하기 위한 덕교육적 접근의 추구, 주요 가치·덕목의 설정과 이의 함양을 통한 유덕한 인격의 형성, 그리고 바람직한 가치관의 정립과 실천 성향의 증진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점들을 구현하는 데 이번 교과서 개발의 역점이 두어졌다.

다음, 학문적·이론적 정통성의 토대 위에서 교육현장의 실제적 적실성을 확보하는 교과용 도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도덕교육의 최근 이론 동향인 인격·덕교육적 접근 이론에 기초하여 도덕과 교육과정 상에 설정된 목표와 내용을 구현해 내는 데 필요한 이론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옳고 좋은 삶에 대한 깊은 이해와 깨우침을 통해 바람직한 가치·도덕성을 내면화하고 스스로 실천해 가는 성향을 기를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 체제 구안과 내용 선정 및 조직, 구체적인 단원 구성과 교수·학습활동의 전개, 각종 자료의 수합 및 배치와 편집 등에서 현장 적실성을 최대한 높이도록 하였다.

또한, 도덕교육의 본질과 특성을 제대로 구현하여 초등 도덕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오늘날 도덕과의 본질과 특성은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도덕 문제에 대한 성찰과 탐구를 통해 올바른 판단능력과 도덕적 덕성 및 바람직한 가치관을 확립하여 각자 자율적이고 통합적인 인격을 형성하도록 교육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이번 교과용 도서 개발에서는 유덕한 인격의 성향적 요소들을 분명히 설정하고 추구해 들어가도록 하였다. 즉, 도덕적 가치규범에 대한 이해와 내면화, 도덕적 사고·판단력의 증진, 실천 동기와 도덕적 삶의 태도 등 도덕적 심정의 형성, 행동적 측면의 도덕적 실천과 습관 성향의 함양 등을 통합적으로 추구하고자 한 것이다.

학습자 중심의 현장친화적 교과용 도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편찬방향의 하나가 되었다. 이를 위해 우선 학생들의 실생활과 연계, 융합되고 그것을 반영하는 교

재를 만들고자 하였다. 학생들의 생활과 경험을 살려 그 속에서 공부할 거리와 자료를 찾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배우고 탐구하고 논의하는 가운데 깨우치고 터득하는 도덕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다. 동시에 학생들의 지적·도덕적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내용과 활동을 담아내는 한편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과 양질의 학습자료 등을 통해 매차시마다 재미와 감동이 있는 교재를 만드는 일을 우선시하여 추구하였다. 나아가 학습량의 적정화를 철저히 추구하는 한편 교과서가 바람직한 도덕수업과 의미 있는 학습활동을 안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에 걸맞는 체제·구성과 전개 방식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2012년 7월 9일 개정 고시된 프로젝트형 인성교육 중심의 도덕과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을 충실히 구현하기 위해 활동과 체험 및 실천 중심의 탐구형 교과서를 만들고자 하였다. 여기서의 활동 중심이란 마음, 정신의 활동과 몸의 활동 두 가지를 포괄하는 의미이다. 체험 중심이란 직접 겪어보면서 깨닫고 터득하도록 기회를 제공함을 중시하는 것이며, 실천 중심이란 순이론적 관념적 언어주의 도덕학습이 아니라 실제로 생활 속에서 실천을 통해 가치를 체험하고 그것이 다시 삶과 행동으로 구현되도록 한다는 의미이다. 인간의 학습 자체가 그러하듯이 그리고 특히 아직 어린 초등학생의 단계에서는 정신과 육체 중 어느 하나에 치중하여 도덕학습을 전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 보다는 학생들이 몸과 마음과 사고 및 정서와 의지 등 지·정·행의 모든 측면들이 통합적으로 학습과 연계되면서 적극적이고도 자기주도적으로 도덕학습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바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진정한 탐구와 활동 체험 및 실천이 어우러지는 그러한 교재를 만들고자 한 것이다.

2. 외형체제와 편집 구성 등에서의 변화

먼저, 외형 체제 측면에서 이전과 달라진 점 중의 중요한 하나는 보조 교과서이었던 '생활의 길잡이'가 폐지되었다는 점이다. 생활의 길잡이는 주 교과

서 하나에만 의존하는 폐단을 방지하면서 도덕수업의 질적 제고를 위한 다양한 원천(학습자료, 활동 등)을 제공하는 동시에 학생들의 자율적 도덕학습을 촉진하는 등 여러 가지 순기능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과중한 학습량을 부여한다는 문제가 줄곧 지적되어 오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교육당국의 교과서 수의 축소 방침에 의거 이번에 폐지하게 되었는데 바 그만큼 학습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보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지니고 있던 여러 가지 좋은 측면들 또한 같이 잃어버리게 된 점이 아쉬워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고 있다. 즉, 새로 개발하는 도덕 교과서 내 단원별 말미에 자율학습 부분을 설치하여 그 속에 종래의 생활의 길잡이가 지니고 있던 여러 가지 장점과 순기능은 최대한 담아내는 방향으로 개발해 가고 있다. 그리고 종래에는 3, 4학년별로 1, 2학기 교과서들을 개발했으나 이번에는 학기 구분 없이 3~4학년군 전체에 걸쳐 도덕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를 각각 2권씩으로 개발하고 있어 이전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과서 편집상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이루어졌다. 그 하나는 패러다임적·논리과학적 사고 양식(paradigmatic or logico-scientific mode)과 내러티브적 사고 양식(narrative mode)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덕 교육계에서 전자가 도덕적 토론을 통한 추론과 판단, 가치명료화, 합리적 의사결정론류의 이론으로 대표된다면 후자는 여성·어머니의 목소리로서의 배려와 책임의 도덕, 배려교육론, 도덕이야기법 등이 주축을 이루는 바, 이 두 가지 접근은 도덕교육 분야에서 반드시 구현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에 따라 교과서 개발에서도 최소한 위 두 가지 접근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던 바, 전체적으로 내러티브 접근에 기조하면서 각 차시의 필요한 곳에 논리적 추론 및 합리적 도덕판단 접근을 배치하였다(특히 제1차시와 제2차시 등). 특히 내러티브 접근과 관련해서는 좋은 이야기 및 여러 가지 도덕이야기법을 적용하고자 하였으며 최소한 각 단원마다 전체 차시에 걸쳐 동일한 남녀 주인공을 등장시켜 이 주인공들

이 생활 속에서 겪는 일을 소재로 하여 이야기식으로 단원 전체의 흐름을 구성하고자 하였다.¹⁾

마지막으로 교과서 편집상에서의 또 다른 중대한 변화는 이전의 다소 평면적·단선적 구성에서 입체적·복합적 구성으로의 발전과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래의 그림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듯이, 이전에는 교육내용과 학습활동, 삽화·사진 등을 정해진 구역 속에 획일적으로 배치해 놓는 정도에 그치는 편집 방식을 취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교과서 지면을 전체적으로 활용하는 가운데 제요소를 역동적, 입체적으로 배치하여 다채로우면서도 시원하게 구성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교과서 좌우에 여백을 두고 도덕학습에 필요한 정보나 해설, 참고자료의 제공, 중요한 학습내용의 강조, 심화보충 학습의 장려 등을 도모하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보다 풍부히 하기 위해 교과서의 가로 폭을 증대시킬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할 경우 종래 도덕교과서의 규격인 4×6배판보다 가로 길이가 커지는 셈이 되어 중대한 외형상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고 하겠다. 또한 매 단원마다 ‘스스로 공부해 봅시다’ 부분을 두어 종래의 생활의 길잡이의 순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동시에 학생들의 자율적 도덕학습과 인성교육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고 있다.

3. 새 도덕과 교과용 도서의 주요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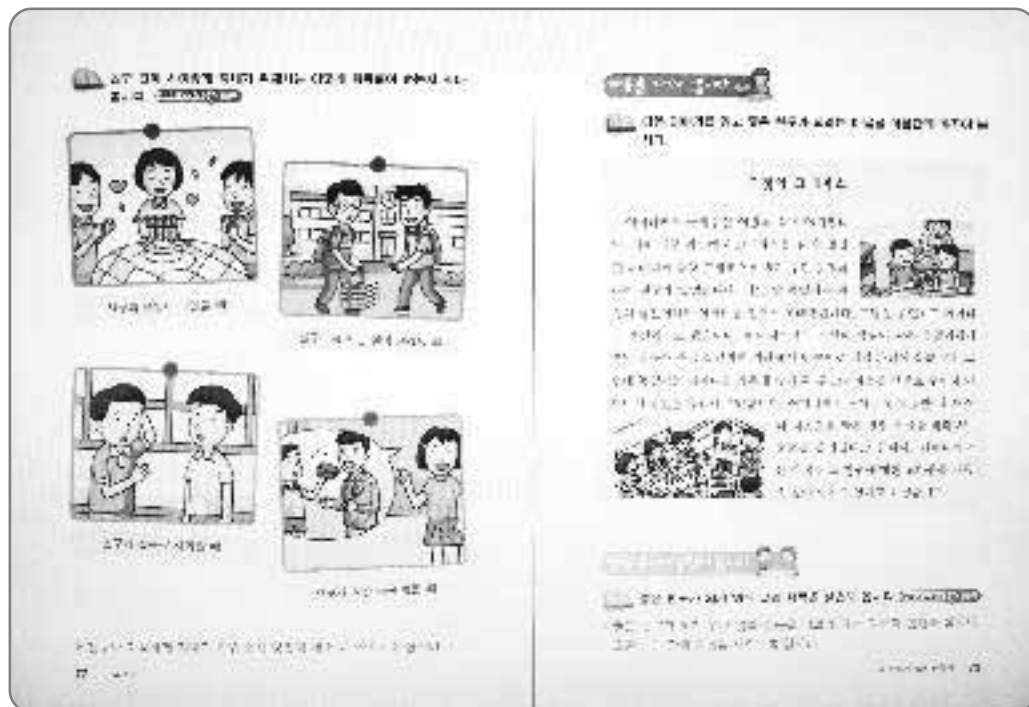
이번 초등 도덕과 교과용 도서를 개발함에 있어 이전의 교과서와 달라진 점들을 중심으로 그 주요 특징들을 짚어보기로 한다.

먼저, 생활밀착형 교과서를 개발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생활밀착형이란 학생들의 생활과 유리된 공허한 논변의 교과서를 탈피하고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과서를 추구한다는 의미이다. 그것은 학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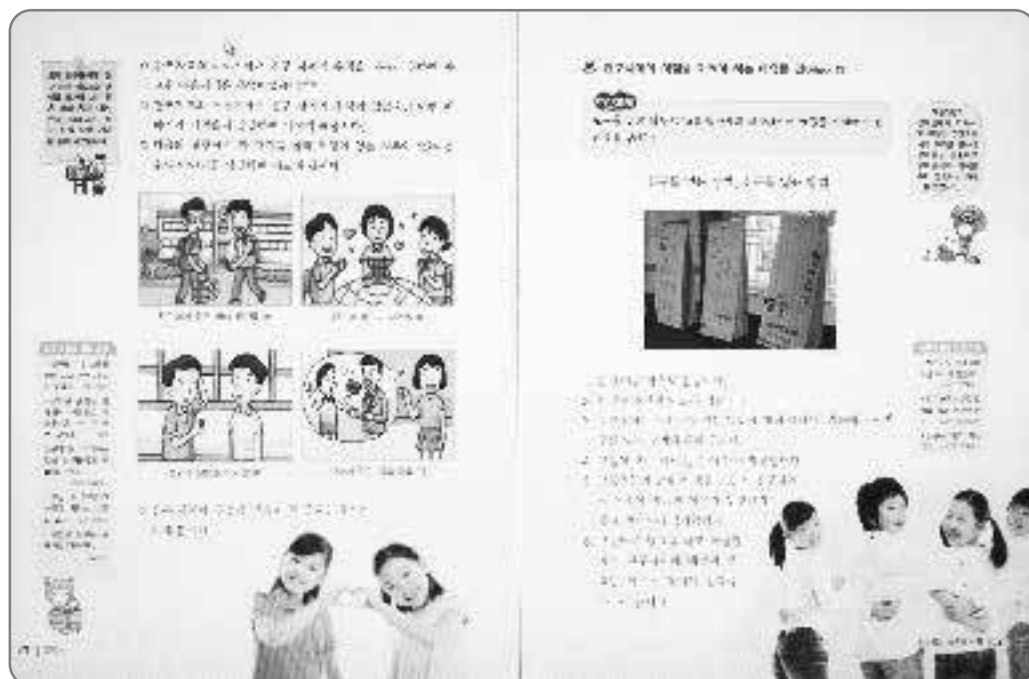
의 생활에서 출발하여(문제인식과 동기유발) 참된 삶의 보다 나은 가치 세계를 탐구하고 학습한 후(성찰과 체험) 다시 학생들의 생활로 돌아가는(개선과 발전) 그러한 교과서를 개발함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생활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로부터 도덕적 탐구를 시작하여 합리적이고 타당한 판단 및 바람직한 가치 형성을 도모하는 방안을 추구하고 있다. 동시에 실제적 맥락을 고려한 생활 속 문제해결 중심의 교과서 구성 추구하고 있다. 예컨대 왕따 문제, 친구 사이의 갈등 문제, 우리 주변 생활 속에서의 생명윤리 문제, 인터넷 활용과 중독, 휴대폰·스마트폰 사용 행태 등과 같은 문제들을 놓고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탐구해 보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도덕 교과서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수업이 학생들의 실생활과 맞물려 돌아가도록 하는 것도 생활밀착형 교과서 개발의 한 모습이 된다. 예컨대 시기별로 계기교육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월별로 주요 가치·덕목을 1-2개를 설정하고 추구하고도록 하는 등) 및 학급 운영과 조화가 될 수 있도록 단원 순서를 편성하여(일례로 학기 초 학급과 학교의 규율 및 질서 지키기와 올바른 친구 생활에 관한 도덕 학습을 추구하는 등) 학교 및 학급 운영에서의 도덕·인성교육에 실질적으로 연계되고 또 그것에 도움을 줄 수 있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음, 학습내용의 적정화를 철저하게 추구하고 있다. 2007 도덕과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현행 교과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긍정적 평가들이 주어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 학습내용이 많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어 오고 있다. 이렇게 된 주된 원인은 역시 주당 수업시수는 부족한데 가르치고 배울 것은 많아 조금이라도 더 담아 보려고 하다가 그리 된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학습량이 많게 되면 배울 것들을 깊이 탐구하여 자기 것으로 만들지도 못한 채 스쳐 지나가기에 바쁘게

1) 이는 베네수엘라의 볼머(C. M. Vollmer) 여사 등에 의해 개발되어 현재 남미 거의 전 국가와 영국, 스페인, 미국 등에서 도덕교육 교재로 활용되고 있는 *Alive to the World*에서 시사 받은 바가 크다. 이 도덕교육 교재에는 찰리(Charlie)와 그의 사촌인 앨리스(Alice)가 어린 시절 초등 1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일관되게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이들과 그 가족 및 친구와 관련 인물들이 실제 삶 속에서 겪고 느끼고 생각하고 경험하는 과정을 일반 학생들이 보고 탐구하면서 도덕 학습을 해나가게 되어 있는데 생활밀착형과 내러티브 접근 측면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Christine de Marcellus Vollmer and AFF(Alliance for the Family), *Alive to the World: Age4-8*(Herefordshire, England: Gracewing, 2009) 참조.



[기존 교과서의 편집구성 방식]



[새 교과서의 편집구성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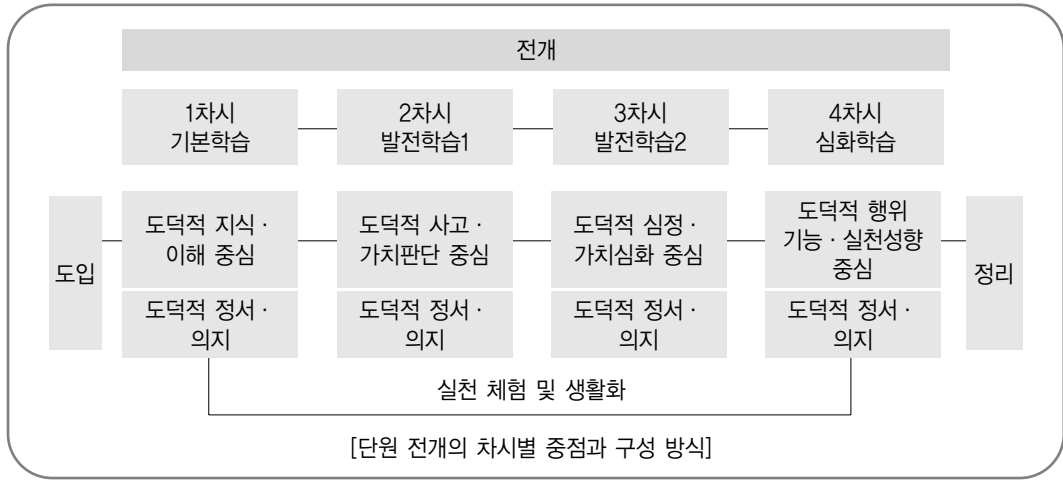
되며 그런 만큼 도덕학습의 성과가 심하게 저해를 받게 된다. 바로 이러한 점을 통감하여 금번에는 학습량을 알맞게 하는 일을 매우 중요한 역점 과제로 하여 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단원별로 교육 과정을 상세화 하고 집필세목을 구안할 때부터 이미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의거하여 교육내용의 최소필수화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차시별, 단원별로 교과서의 쪽수를 한정 지워 놓고 그 안에서 개발하도록 하는 한편 한 차시에 다루는 내용 요소를 2-3개 정도로 제한하여 학습량의 적정화를 최대한 구현하고자 노력해 가고 있다.

도덕교육의 본질인 유덕한 인격의 함양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3측면 6요소의 통합적 접근의 관점을 설정하고 이의 연장선상에서 6교재유형을 개발하여 이를 융·복합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교과서의 효율성과 유연성 및 통일성 속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덕론에 기반하는 도덕교육의 인격·덕교육적 접근 이론에 의하면 자라나는 세대들이 바람직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건전한 인성을 지닌 유덕한 인격인으로 자라나게 하려면 덕과 인격을 구성하는 제요소를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길러가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길러야 할 것으로서의 덕·인격의 3측면 6요소와 이를 효과적이고도 타당하게 추구하기 위한 도덕 교과서의 6교재유형이 그것이다. 3측면 6요소란 덕·인격을 구성하는 지·정·행 측면의 요소들로서 도덕교육을 통해 기르고 형성시켜야 할 핵심적인 성향, 능력, 자질, 품성 등에 해당되는 것이다. 인지적 측면의 도덕적 지식이해와 도덕적 사고판단력, 정의적 측면의 도덕적 감정정서와 도덕적 열정의지, 그리고 행동적 측면의 도덕적 행위기능과 도덕적 실천습관이 그것으로서 이들에 대한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접근이 이번 교과서 개발에서의 주된 특징 중의 하나가 된다. 그리고 이들 각각의 특성에 맞게 그것을 집중적으로 추구하여 기르는 데 유력한 교과서 유형을 설정하였으니 도덕 교과서의 6교재유형이 그것이다. 구체적으로 지식이해형과 가치판단형, 감동감화형과 가치심화형, 그리고 실습실현형과 실천체험형 등이 그것이다. 물론 이러한 교재유형들

은 교과서 속에서 각각 단독으로 적용될 때도 있고 두 가지 이상이 서로 융합 또는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적용될 때도 있다.

도덕 교과서의 단원 및 차시 구성을 도모함에 있어서는 이번에 개정 고시된 프로젝트형 인성 교육 중심의 도덕과 도덕과정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4단계 심층화 모델에 의거하면서 그 속에 3측면 6요소의 통합적 추구하고 6교재유형의 융·복합적 적용을 조화롭게 담아냄으로써 도덕과의 본질을 제대로 구현하고자 하는 접근을 취하였다. 여기서 4단계 심층화 모델이란 한 단원을 기본학습 → 발전학습1 → 발전학습2 → 심화학습으로 구조화함을 의미한다. 현재 초등 도덕과 교육과정상 3-4학년 부분에는 학년 당 8개씩의 주제들이 설정되어 있어 연간 최소 30주·30시간을 예상할 경우 매 주제마다 4시간씩 투입이 가능하다. 동시에 매 단원마다 4개 차시가 투입되기 때문에 매달 그 단원의 중심 가치·덕목을 1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객관적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 바로 이런 점을 고려하여 이번 교과서 개발에서는 한 단원의 전개 부분을 4차시 4개 단계로 나누어 구성하면서 여기에 도덕교육에서의 가치내면화와 과정 이론을 적용하여 도덕적 이해를 거쳐 도덕적 심정과 도덕적 행동으로 발전, 확대, 심화시켜 가는 4단계 심층화 모델을 구현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처음에는 기본을 배우고 이어 점차 수준을 높여 가는 가운데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가치내면화와 행동실천화를 도모하도록 하는 이 전체 과정 속에서 위에서 살펴본 덕·인격의 3측면 6요소와 이를 구현하기 위한 6교재유형이 유기적, 통합적으로 적용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위와 같이 4단계 심층화 모델을 취하는 동시에 그 속에서 매 차시마다 그 중점을 설정하여 접근함으로써 해당 차시에서의 덕·인격의 구성요소를 집중적으로 추구하도록 하고 있다. 동시에 단원 전체적으로 보면 지·정·행 측면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구현하는 가운데 바람직한 도덕수업의 절차·과정을 또한 잘 안내해 주는 교과서를 개발하고자 하고 있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아래와 같다.



위 과정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기본학습의 제1차시에서는 그 시간에 학습할 주요 가치·덕목 및 관련 가치규범에 대한 도덕적 지식·이해를 도모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면서 도덕적 심정을 기르는 정의적 접근과 행동적 접근을 순차적으로 추구하도록 교과서를 구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과서의 구체적인 모습은 제재명(차시 주제) → 생각 열기 → 함께 알아 봅시다 → 마음을 가꾸어 봅시다 → 생활 속에서 실천해 봅시다로 구조화 되어 있다. 발전학습1의 제2차시에서는 그 도덕적 사고와 판단의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그러면서 동시에 도덕적 심정을 기르는 정의적 접근과 도덕적 삶의 지혜를 깊이 하고자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과서의 구체적인 구성은 제재명(차시 주제) → 생각 열기 → 바르게 판단해 봅시다 → 마음을 가꾸어 봅시다 → 지혜의 샘터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발전학습2의 제3차시에서는 그 단원이 추구하는 가치·덕목에 대한 깊은 심정화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 생활 속에서의 실천 성향을 기르는 일을 순차적으로 추구한다. 이에 따라 교과서는 제재명(차시 주제) → 생각 열기 → 더 탐구해 봅시다(도덕적 모범 탐구, 감동감화, 가치심화 등) → 마음을 가꾸어 봅시다 → 생활 속에서 실천해 봅시다로 구조화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심화학습의 제4차시에서는 인지·정의·행동적 측면을 동시에 통합적으로 접근하면서 보다 활동적이고 체험적인 탐구를

통해 도덕적 행위 기능과 실천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차시의 교과서는 제재명(차시 주제) → 생각 열기 → 실천 체험으로 익혀 봅시다 → 마음을 가꾸어 봅시다 → 마음의 양식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교사용 지도서와 관련해서도 이전에 비해 여러 측면에서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도덕과 교육 이론과 교육과정 등을 다루는 총론 부분과 각 단원별 해설과 교재 연구 및 수업 예시안을 다루는 지도의 실제 부분 모두에 걸쳐 여러 가지 보완을 하였다. 예컨대, 총론 부분에서는 최소한 초등 도덕과의 본질과 특성 및 이론적 기초, 도덕과 교육 과정에 대한 해설, 도덕과 교수-학습과 평가에 관한 이론과 실제, 교과용 도서의 구성과 활용법, 도덕과 수업 연구와 계획 등등을 담으면서도 기존의 것보다 더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그리고 알기 쉽고도 일목요연하게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지도의 실제 부분에서도 단원 설정의 취지와 배경, 주제 해설과 지도의 주안점, 단원 목표와 지도내용 제시 등과 관련하여 담기는 것과 그것의 구조화 측면에서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동시에 차시별 수업의 예시 부분에서도 형식과 구성면, 수업 전개와 발문, 교수·학습 활동과 방법, 평가 예시, 참고 자료 등등의 측면에서 내용의 충실성, 사용의 편의성 등을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개발해 가고 있다.

사회 교과서



박 용 조

진주교육대학교 교수

I. 들어가며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사회과 교과서의 편찬 형식은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의 편찬 형식과는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

먼저, 교과군제와 집중이수제를 실천하기 위하여 학년별, 학기별로 사회과 교과서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3-4학년, 5-6학년을 하나의 학년군(群)으로 하여 각 군별로 4개의 교과서를 발행하고 학교의 선택에 따라 4개 교과서의 이수 순서를 자유롭게 정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사회과 교육과정 해설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이것은 직전의 교육과정과 성격, 추구하는 인간상, 학교급별 교육 목표 등이 비슷하고 각 교과 성격이나 목표가 동일하다고 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나 확실하지 않다. 다만 교과서의 개발을 위하여 '사회과 교과서 편찬상의 유의점'을 개발·보급하는 것으로 대체하였다.

또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의 편의를 고려하고 학습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국정교과서였던 사회과 탐구는 편찬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러한 것은 예상치 못한 커다란 변화로서 사회과 교과서의 편찬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사회과 교과서의 편찬에 있어서 새로운 방향을 나아갈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3-4학년 사회과 교과서 편찬기관의 편찬 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해 보기로 한다.

II. 사회과 교과서 편찬 방향 ❶ :

창의와 인성을 고려한 재미있는 교과서

2009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지나친 학습 부담을 감축하고, 학생들의 학습 흥미를 유발하며, 단편적인 지식의 이해가 아닌 학습하는 능력을 기르며, 지나친 암기 중심 교육에서 학습하는 능력과 폭넓은 인성을 길러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사회과 교과서는 창의·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데 초점을 둔 교과서가 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창의적 사고를 촉진하고 바른 인성을 길러줄 수 있는 학습 내용을 갖춘 사회 교과서가 개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새롭게 편찬 될 교과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1. 활동 중심 서술에서 이야기(narrative) 중심 서술로

새로운 교과서의 내용은 이야기, 사례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에 장애가 되는 요소로는 무엇보다도 사회과의 학습 내용이 관련성 없는 정보들의 연속적 나열로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이러한 단편적이고 분절적인 정보 즉, 구조화되지 않은 정보는 기억 속에서 쉽게 망각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의미 구성을 방해한다. 사회 교과서를 통하여 의미 있는 학습을 실현하려면 학습 내용이 이야기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내러티브(narrative)는 이야기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많은 개념들을 포괄하는 일종의 사고 방식을 뜻하는 것으로 내용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효율적인 도구로서, 그 구조 속에 시간의 흐름, 논리적 관계, 인과성의 개념을 구성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경제생활과 바람직한 선택' 단원에서 이야기식 서술을 보면 다음과 같다.

보성이는 매달 용돈을 받습니다. 부모님께서 보성이가 청소를 하거나 심부름을 할 때, 화분에 물을 주거나 아버지의 구두를 닦을 때마다 그에 알맞도록 용돈을 모아 두십니다. …… 중략 …… 지난달에는 용돈을 더 벌기 위하여 청소도 많이 하고, 상차림도 도와드렸습니다. 이번에 꼭 사고 싶은 물건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보성이는 친구들과 야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동안 사용하던 야구장갑이 낡아서 이번에 새 장갑으로 바꿀 생각입니다. 그래서 야구용품을 파는 가게에 가 보기로 합니다. …… 중략 …… 그 동안 저축한 돈과 이번 달 용돈을 보태면 마음에 드는 야구 장갑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축한 돈을 모두 써 버리는 것 같아 망설여집니다. 보성이는 쉽게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 중략 ……

보성이는 선뜻 야구 장갑을 고르지 못하고 가게를 나옵니다.……

또한, 새로운 교과서는 바른 인성의 발달을 위해 학생 상호간의 협동적인 활동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그동안의 사회과 인성교육이 가치관 목표의 영역에서 제한적으로 다루어져 왔다면, 구안법(project method), 토의, 조사와 같은 수업기법을 활용하여 지식 및 기능목표 영역에서도 인성교육의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내용을 서술하고자 한다. 기존의 교과서에서도 활동 중심의 서술이 있어왔으나 이들은 학생 개개인의 학습기능 습득에 중점을 둔 활동이었다. 새로운 교과서는 형식적인 학습기능의 습득뿐만 아니라 학생 상호간의 협동을 이끌어내는 다양한 수업기법을 적용한 활동으로 내용을 구성한다. 예컨대, '다양한 삶, 존중하는 문화' 단원에서 구안법을 활용한 활동 중심의 서술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중략 ……여러분이 발견했던 문화적 차별의 사례 한 가지를 활용하여 모둠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문화를 어떻게 바꿀지 생각해 봅시다. 생각의 결과를 광고지 만들기 활동을 통해 여러분 스스로 좋은 문화를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해 봅시다.

완성된 광고지를 발표하고, 학급알림판이나 벽면에 게시하여 봅시다. 각 모둠의 발표를 들으며, 묻고 답하기 활동을 통해 좋은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할 일을 생각해 봅시다.

2. 학생이 학습의 관찰자에서 주인공으로

새로운 교과서의 내용은 학생과 학습 내용의 관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실 생활에서 직접 관찰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내용을 학생이 주인공이 되어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으로 집필한다. 이야기식의 경우,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이

를 해결해 나가는 구조로 접근한다. 사례의 경우, 흥미를 유발하는 핵심적인 발문을 제시함으로써 수업에서의 활용도를 높인다. 이야기, 사례의 도입 부분은 학생들에게 친숙한 대화형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다. 교과서의 사진이나 삽화에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학생이 등장하도록 한다.

그리고 차시 내에서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주제 간, 단원 간의 스토리도 연결될 수 있도록 단원과 주제의 연계성을 고려하였다. 예컨대, 3-1-1.우리가 살아가는 곳의 주제는 '우리 고장의 위치→지도를 위한 약속→우리 고장의 모습→우리 고장 사람들이 하는 일'로 하였고, 단원의 순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동과 소통하기→사람들이 모이는 곳→우리 지역, 다른 지역→달라지는 생활 모습→다양한 삶, 존중하는 문화→도시 발달과 주민 생활→촌락의 형성과 주민 생활→민주주의와 주민 자치→경제생활과 바람직한 선택→사회 변화와 우리 생활→지역 사회의 발전' 순으로 하였다. 다만, 단원 및 주제는 하위 내용(주제)이 상위 내용(단원)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하며 단원 및 주제 간 내용의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3. 학습의 흥미를 유발하는 주제로

새로운 교과서의 내용은 학생들이 흥미를 끌도록 재미있는 주제와 읽기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재미있는 교과서가 되기 위하여, 주제는 교육 내용을 포괄하고 대표성이 있으며 가능하다면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주제명으로 한다. 그리고 주제에 관련된 흥미 있는 읽기 자료를 제시한다. 예컨대, '달라지는 생활 모습' 단원의 주제명을 보면, '옛 모습 지금 모습, 의식주가 달라졌어요, 친구야 놀자' 등으로 설정하였다.

Ⅲ. 사회과 교과서 편찬 방향 ② : 현장 적합성이 높은 교과서

사회과의 목표는 크게 지식, 기능, 가치·태도로 나눌 수 있다. 학생들이 사회과를 싫어하는 이유 중 하나가 암기 위주의 사회과 수업이다. 또한 교사도 가장 선호하지 않는 교과 중 하나로 사회과를 꼽고 있다. 기본적으로 사회과는 교과 특성상 알아야 할 기본적인 사실과 개념 그리고 일반화 등이 다른 교과에 비하여 많은 것이 사실이다. 사회과에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면에서도 핵심적인 개념 및 일반화 지식을 간명하게 제시하고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사회과 수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되어 왔던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다음과 같은 변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1. 형식적인 학습 활동에서 실제적인 학습 활동으로

새로운 교과서는 형식적인 학습 활동에서 실제적인 학습 활동을 이끄는 내용으로 바꾸고자 한다. 예컨대,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실제 답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계획서와 결과를 정리하는 형식을 제시하고 있으나,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습 내용의 성격에 비추어 연(連)차시로 이루어져야 할 경우 이를 교과서에 직접적으로 안내하였다. 즉, 사회과에서 차시 목표가 1차시 분량으로 완성이 어려운 경우, 2-3차시로 연결하여 끝낼 수 있도록 연차시 학습을 안내하고자 한다.

2. 비슷한 조사 방법의 반복 학습에서 다양한 조사 방법의 계획적인 학습으로

새로운 교과서는 비슷한 조사 방법의 반복 학습에서 다양한 조사 방법의 계획적인 학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능 코너를 설정하였다. 이는 천편일률적인 조사학습이 아니라 다양한 기초 기능의 학습이 중복되지 않고 계획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기초 기능을 익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컨대, '~을 조사하여 정리해 봅시다.'라는 방식의 내용이 3-4학년 사회 교과서 전반에 제시되

고 있어 조사 학습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조사학습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 기능 학습이 필요한 경우, 다양한 학습 기능을 익힐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라는 기능 코너를 신설하여 기초 기능의 학습이 중복되지 않고 계획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3. 학생에게 익숙하고 친근한 북 디자인으로

새로운 교과서에서는 학생에게 익숙하고 친근한 북 디자인을 도입하였다. 기존의 교과서 판형(4×6 배)이 학생들의 생활 속에서 일반적으로 접하는 도서와 비교할 때 디자인이 뒤떨어지는 면이 있으므로 학생들이 주변에서 쉽게 접하고 있는 자유 판형(21cm×26cm)으로 하여 심미적인 교과서를 추구하고자 하였다. 또한, 교과서 여백을 최대한 활용하되, 바탕색을 미적으로 처리하며, 사진이나 삽화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학생이 주인공이 되도록 한다.

4. 이론 중심에서 실천 중심으로

새로운 교과서는 이론 중심에서 탈피하여 실천 중심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교사용 지도서는 기본 교수·학습과정안을 제시하여 기본 교수·학습 방법의 활용도를 높이하고자 한다. 그리고 교과서에서는 지역화 캐릭터를 도입하여 지역화를 직접적으로 안내하고, 교사용 지도서에는 지역화 방법을 안내하고 지역화 사례를 제시한다.

IV. 사회과 교과서 편찬 방향 ③ :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춘 쉬운 교과서

새로운 사회 교과서는 과다하고 어려운 학습 내용을 간결하고 쉽게 제시하고자 한다. 그동안 내용을 망라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대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제시한다. 예컨대, 모든 지역 사례를 제시하기보다는 한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하여 교과서 내용을 줄이고, 이들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지역화 학습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하여 다음에 중점

을 두고자 한다.

첫째, 학생들에게 친근한 신변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한다. 내용의 외연적 확대를 지양하고, 학생들의 생활 주변에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며 특히 일상생활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둘째, 3-4학년 수준에서 어려운 용어를 직접 제시하기보다는 학생 수준에 맞는 내용으로 바꾸어 제시하고자 한다. 예컨대,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인문환경’이라는 용어를 교과서에 직접 썼으나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사람들이 만든 환경’으로 기술하였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주요 용어나 개념은 학습을 통하여 형성할 수 있도록 하며, 별도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설명을 제시하도록 한다.

셋째, 학생들의 학습 내용 파악이 쉽도록 교과서의 형식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예컨대, 학습 내용의 시인성(visibility)을 높인 펼침쪽을 적극 활용하고, 대표적인 사진이나 삽화를 페이지 당 1-2장 정도를 크고 시원하게 제시한다.

V. 교과서의 편집 체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3-4학년용 사회과 교과서 개발은 전술한 바, 창의와 인성을 고려한 재미있는 교과서, 현장 적합성이 높은 교과서,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춘 쉬운 교과서라는 편찬 방향을 기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교과서의 편집 체제를 전개한다.

- ☐ 겉표지
- ☐ 속표지
- ☐ 차례
- ☐ 단원명
- ☐ 단원 도입
- ☐ 주제명

- 주제 도입
- 주제 활동 및 정리
 - 무엇이 문제인가요?(해결할 문제)
 - 활동
 - 생각 마무리(아이디어 산출, 일반화된 지식이나 문제의 해결점, 표현 활동)
 - 주제 정리(확인해요)
 - 기능 코너(할 수 있어요)
- 단원 정리(일반화 내용-정리해요, 심화활동-생각해요)
- 인용 자료 목록
- 참고 문헌

VI. 나오며

교과서는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이상과 교실 수업이라는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가교(架橋)와 같은 것으로, 교육에 대한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조화시키고 통합시키는 위치에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사회과 교과서 편찬에 있어서도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고 강조하고 있는 국가·사회적 요구와 오늘날 교실 수업 속에서 확인되는 학습자의 요구를 어떻게 통합하고 조화시키느냐 하는 것이 금번 사회과 교과서 개발에 있어서 교과서 편찬기관에 주어진 핵심적인 책무라고 본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년군제를 추진하고 교육과정 해설서 및 사회과 탐구를 발행하지 않는 것은 교과서 개발에 있어서 분명히 새로운 도전이라고 본다. 반면,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내용을 주제 중심으로 통합하고 교과서의 판형을 자유롭게 열어 놓은 것은 편찬기관에 주어진 희망적인 부분이라고 본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사회과 편찬기관에서는 학년군제 등을 고려하되, 재미있고, 현장 적합성이 높으며,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춘 사회과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


첫째, 초등학교 현장 경험이 충분한 연구·집필진(집필진과 연구진의 초등학교 평균 교직 경력: 14.6년)을 구성하여 교과서 내용에 학생과 교사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현장 적합성을 고양하고자 하였다.

둘째, 집필 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중복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단원별 집필 책임제를 시행하고, 단원집필책임자간, 단원내 집필진간의 상시 협의 체제를 구축하여 단원 간, 단원 내에서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셋째, 집필진의 집필 의도가 분명히 전달되고 표현될 수 있도록 출판 기관에서 선정한 삽화가가 집필진 회의에 반드시 참여하여 충분한 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교과서의 심미적인 측면 및 판형과 관련하여서는 출판사의 복디자이너 및 삽화가가 관련 연구 및 집필진 회의 때 상시 참여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편찬기관과 심의기관이 긍정적이면서 신속한 협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On-Off 라인을 활용하여 의견을 교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편찬기관의 노력과 의지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편찬 의도가 왜곡되거나 집필 내용의 현장성과 일관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아내는 것 또한 사회과 교과서 편찬기관이 유념해야 할 과제라고 본다. 



수학 교과서



안 병 곤
광주교육대학교 교수

1. 교과서의 구성 체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수학은 크게 5개 영역으로 '수와 연산', '도형', '측정', '규칙성', '확률과 통계'로 각 영역별 주요내용은 '수와 연산' 영역에서는 자연수, 분수, 소수의 개념과 사칙계산을, '도형' 영역에서는 평면도형과 입체도형의 구성 요소, 개념, 간단한 성질 및 공간 감각을, '측정' 영역에서는 시간, 길이, 둘레, 무게, 각도, 넓이, 부피의 측정 및 이의 활용을, '규칙성' 영역에서는 규칙 찾기, 비와 비례식, 정비례와 반비례를, '확률과 통계' 영역에서는 자료의 정리와 해석,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기마다 6개 단원(단, 1학년 1학기는 학교생활에 대한 입문의 시기를 고려하여 5개 단원)으로 구성하였다. 이에 따른 수학 교과서, 익힘책, 교사용 지도서의 단원별 구성 체제는 다음과 같다.

가. 교과서의 단원별 구성 체제

구성체제		활동내용
단원도입		단원 도입으로서 단원명과 함께 단원 핵심 내용을 나타내는 삽화나 사진을 2쪽으로 제시함
각 차시별 학습 내용	생각열기	생각열기에서는 주어진 상황을 가능한 스토리텔링으로 제시하여 학습 주제에 대한 동기유발과 상황을 생각한 후에 그 생각을 서로 이야기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하도록 함
	활동	구체적인 물건이나 모형으로 하는 조작활동, 직관으로 보는 직관활동, 추상으로 생각하는 추상 활동을 통해 학생 스스로 생각하는 기회를 주도록 함
	(약속)	학생 스스로 활동을 통해 깨닫게 된 개념과 용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학생이 사용하는 언어로 표현하도록 함
	마무리	본 차시에서 학습한 내용을 좀 더 익히거나 적용하는 활동
단원평가		한 단원의 학습을 평가하고 피드백 할 수 있는 문항을 제시함
(문제해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단원과 관련된 심화된 문제를 제시함

구성체제		활동내용
창의마당	이야기 마당	수학사, 생활 속 수학 등 정보를 줄 수 있는 이야기(읽을 거리, 들려줄 거리)로 구성함.
	놀이마당	단원내용과 관련된 재미있는 실제 놀이를 통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제시함.
	체험마당	단원 내용과 관련된 수학적 개념이나 원리를 체험할 수 있는 창의적인 활동으로 구성함.

나. 단원별 학습내용의 전개

(1) 단원의 도입

단원의 도입은 단원명과 함께 단원의 핵심 내용을 나타내는 삽화나 사진을 2쪽으로 제시하였다. 여기서 삽화나 사진은 단원의 전체적인 내용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스토리텔링을 구성하여 단원에서 배우게 될 내용을 대상으로 무엇을 배우고, 왜 배워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1차시는 단원의 도입에 이어 단원 학습목표와 이와 관련된 삽화나 사진을 2쪽으로 제시하여 본 단원에서 공부할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구성하여 단원 학습내용과 관련된 활동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원도입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은 수학적으로 의미 있게 단원의 각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수학적 맥락을 고려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여기서 스토리텔링은 각 차시의 학습 주제를 포함하는 폭넓은 상황을 제시하여 학습 동기 유발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과서의 대부분을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재미있게 수학을 배우는 동시에 자연스럽게 다른 학문 분야나 생활 속에서 융합적인 사고와 창의적인 사고를 하도록 시도한 것이다. 특히 스토리텔링 내용을 교과서의 생각열기에 넣을 경우 지면을 많이 차지하고 수학적 상황보다는 읽기에 치중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토리텔링의 내용은 교사용 지도서에 따로 수록하여 활용하도록 하였다.

(2) 각 차시별 학습



【생각열기】

생각열기는 “~봅시다. ~합시다” 등과 같이 주어

진 상황을 중심으로 학습 주제에 알맞은 것을 생각해 보게 하고, 생각한 것을 서로 이야기하여 문제 해결 방법의 생각에 주안점을 두었다. 따라서 생각 열기는 교사용 지도서에 있는 스토리텔링과 연계하여 지도해야 학생들이 수학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으므로 특히 이 점에 유의하여 지도하도록 한다. 따라서 교사가 다양하게 수업을 이끌 수 있으며 자연스런 방법으로 토론을 유도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는데 활용할 수 있다. 단원이나 차시의 성격에 따라서 스토리텔링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 지역이나 학급의 실정에 알맞게 교사가 현실 상황을 반영하여 다른 내용으로 교체나 수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활동】

활동은 각 차시의 학습 주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활동1. ~하시오.”와 같이 1~2개 정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초등수학에서 활동이 강조된 이유는 수학 학습 지도가 단순 지식의 주입이 아니라 학생 자신들의 활동을 통한 구성적 과정을 돕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학습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은 구체적인 물건이나 모형으로 조작하는 활동, 직관으로 보는 직관 활동, 추상으로 생각하는 추상 활동이 있다. 각각의 활동에 너무 자세한 단계적 발문을 자제하여 학생 스스로 생각하는 기회를 더 주도록 고안하였다. 활동은 활동과정에서 학습 주제에 알맞은 것을 한번 더 생각해 보게 하고 그 생각을 서로 공유하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다. 활동을 통해 차시의 핵심 내용을 배우게 되므로 학생 스스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열린 발문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다양하게 사고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활동을 쉽고 의미 있게 전개하기

위한 세부적인 발문은 지도서에 수록하여 활용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약속]




‘생각열기’와 ‘활동’을 통하여 학습한 내용을 수학 기호와 수학 용어를 정의하기 위하여 ‘정의(定義)’라는 용어 대신에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인 ‘약속(約束)’을 사용하였다. 수학 개념이나 용어의 정의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거나 교과서에서 제시된 약속을 그대로 외우게 하는 것보다 학생 스스로 활동을 통해 깨닫게 된 개념과 용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학생이 사용하는 언어로 표현하게 하는 기회를 주도록 한다. 이 후에 교과서에 제시된 약속을 학생들과 정리할 때 활용하도록 권장한다.

[마무리]

차시에서 학습한 내용을 좀 더 익히거나 적용·발전할 수 있는 활동으로 “~하시오”와 같이 수학적 개념이 잘 형성되었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다지는 효과를 거두기 위한 부분이다. 학습한 모든 내용(수학적으로 약속한 기호와 용어, 수학적 정리, 성질, 공식 등)들을 연습하고, 익히기 위한 활동을 제시하였다. 1차시의 경우는 활동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확인에 주안점을 두고, 2차시부터는 교과서에서 학습한 개념이나, 원리, 법칙 등을 익히고 적용하는 데 활용하며 그 외의 심화내용은 문제해결 및 창의수학에서 제시하고 있다.

(3) 단원평가

단원평가는 “잘 공부 했는지 알아보시다”로 제시하여 각 차시별 학습내용들을 반영한 문제를 포함하면서 다양한 평가 유형으로 한 단원의 학습을 평가하고 피드백 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평가의 문항별 평가 내용, 성취 목표, 모범 답안 및 유사 답안, 채점시 유의 사항 등은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하였다. 대부분은 2쪽이나 4쪽으로 제시하였다. 문제 번호 바로 위에 자기 평가에 해당하는 아이콘 3가지 제시하여 문제를 해결하면서 학생 스스로 자기 평가를 하도록 하였다.

아이콘 종류 (  ) : 웃는 얼굴(문제해결에 자신 있음), 무표정(문제해결력 중간), 심각하게 탐구하는 표정(문제 해결력이 부족함)

(4) 문제해결

문제해결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단원의 주제와 관련된 심화된 문제를 제시하여 학습한 내용을 좀 더 다양하고 깊게 탐구해 볼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문제해결은 단지 문제의 답을 구하는데 중점을 두기보다 문제 해결을 위해 학생들이 전략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강조하면서 지도할 필요가 있다.

(5) 창의수학(이야기마당, 놀이마당, 체험마당 중 택 1~2, 나머지는 보충1, 보충2)

창의수학으로 놀이마당, 이야기마당, 체험마당을 구성하였는데 이를 통해 생활주변 문제, 사회현상, 자연 현상 등의 여러 가지 현상과 관련지어 수학을 배움으로써 수학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수학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하였다. 또한 수학에 대한 흥미, 관심, 자신감을 갖고 학습동기와 의욕을 유발하도록 하도록 하였다. 단원에 따라서 이 마당들을 선택적으로 2~3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선택하지 않은 것은 보충1, 보충2로 표시하여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시간의 20%증감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창의수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야기 마당]

각 단원 내용과 관련이 있는 수학적 또는 유사한 이야기로 학생들에게 수학에 대한 흥미를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제시하였다. 단원에서 학습한 내용을 좀 더 다양하고 깊게 탐구해 볼 수 있는 내용을 이야기 형식을 활용하여 수학적 사고력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시된 읽기 자료이다. 교사가 판단하여 해당 단원과 관련된 수학 이야기를 가져와 대체하여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놀이마당]

단원의 내용을 놀이를 통하여 재미있게 익히기 위한 방법으로 놀이를 하면서 활동하도록 하였다.

또 수학을 공부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수학을 놀이처럼 즐기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수학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교사의 판단에 단원과 관련된 수학 놀이를 가져오거나 수정하여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기존의 놀이마당이 카드놀이 위주로 구성되었던 반면 다양한 주제와 방법으로 놀이마당을 구성하였다.

[체험 마당]

교과서와 교실 안에서만 배우는 수학이 아니라 수학을 확장하여 학생들의 생활 속에서 적용하고 체험해 보는 활동이다. 이 부분에서는 수학과 학생들이 살아가는 사회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체험마당을 통해 수학적으로 세상을 보는 안목을 키우는 활동으로 제시하였다. 교사의 판단하에 단원과 관련된 수학 체험 활동을 가져오거나 수정하여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2. 수학 익힘책의 구성 체제

가. 단원의 구성

수학 익힘책은 기본적으로 수업 시간에 교과서의 보조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학습 결과를 스스로 점검해보는 자학자습용 워크북으로 활용하도록 구성하였다. 수학 익힘책의 쪽수는 반드시 각 단원의 차시에 상응하게 구성한 것이 아니라 단원의 학습 목표의 도달 여부를 알 수 있는 포괄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수학 익힘책에는 보조단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되도록 ‘힌트, 설명, 주의점’을 다음과 같은 아이콘으로 표시하여 제시하였다. 수학 익힘책 문제의 정답과 자세한 풀이는 ‘책 속의 책’ 형식으로 분철하여 제공하여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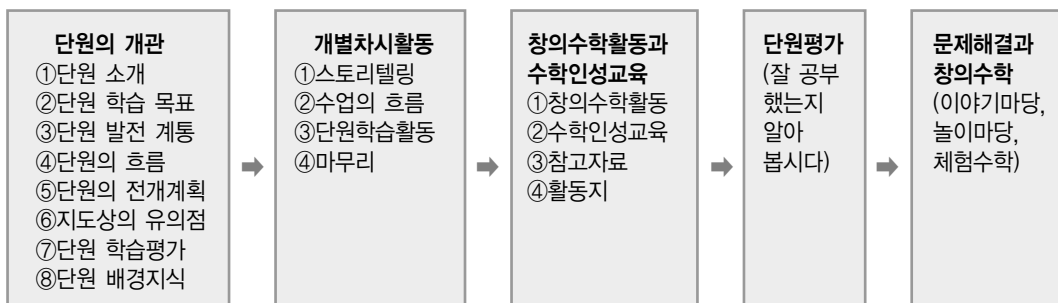
나. 단원별 내용 전개

교사는 단원 전개 계획을 참고하여 단원의 차시 학습이 마무리되는 때에 익힘책을 가정학습으로 활용하도록 안내하거나 교사의 판단에 따라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하도록 하였다. 익힘책의 문항별 수준은 별 1~2

개를 표시하여 어려운 정도를 표시하였다. 문항에 표시가 없는 경우는 보통, 별 1개인 경우는 약간 어렵고, 별 2개인 경우는 좀 더 어려운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3. 교사용 지도서의 구성 체제

[지도서의 단원별 구성 체제]



과학 교과서



이 대 형
춘천교육대학교 교수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11년 11월부터 초등 과학 교과용 도서(교과서, 실험관찰, 지도서)가 개발 중에 있다. 현재 개발 중인 초등 과학 교과용 도서는 2013년 실험학교 적용을 거쳐 2014년부터 전국의 초등학교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개발된 교과용 도서가 일선 학교에서 전면적으로 사용하기 시작된 지 얼마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교과용 도서가 바뀌게 되어 너무 자주 바뀐다는 의견들이 많다. 하지만 교육과정이 바뀌면 교과용 도서 역시 바뀌는 것은 당연하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초등 과학 교과서는 종전의 교과서에 비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 내용면에 있어서는 종전의 탐구 중심에서 벗어나 과학의 개념이나 현상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 많아졌으며, 종전에는 다루지 않았던 탐구 기능과 자유 탐구에 대한 내용도 새로이 추가되었었다. 체제면에서는 교과서의 판형이 바뀐 것이 가장 큰 변화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일선 학교 현장에서 비교적 호응을 받았으나, 3, 4학년과 5, 6학년 교과용 도서의 개발진이 서로 달라 교과서의 단원 내용 전개 방식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있어 학생들에게 많은 혼란이 가져온다는 비판도 많았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개발된 교과서의 일선 학교 사용이 얼마되지 않았으나 비교적 큰 장점들과 단점들은 모두 드러났으므로 새로이 개발되는 교과서는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현재 개발 중인 교과서, 실험관찰, 교사용 지도서의 개발 방향과 달라지는 점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1. 2009 개정 초등 과학 교육과정의 변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총론에서의 학년군과 교과군의 도입, 교과군에 배당된 수업 시수의 자율적 증감, 집중 이수 제도의 도입, 특별 활동과 재량활동을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의 일원화 등일 것이다. 이들 문제는 초등 과학 교과 만의 문제는 아니므로 여기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도록 하겠다.

다. 다만 학년군의 도입은 교과서 개발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간단하게 언급해 보고자 한다.

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중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해당하는 ‘공통 교육과정’인 ‘내용 체계’를 보면, 학년군은 ‘3~4학년군’과 ‘5~6학년군’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분야는 ‘물질과 에너지’와 ‘생명과 지구’로 구분하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렇게 달라지기는 하였으나, 단지 학년군과 통합적인 분야로만 나누어 놓았을 뿐 2007 개정교육과정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교육과학기술부의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용 도서 개발을 위한 편찬기관 공모에서도 ‘교과(군)’이라는 용어와 ‘과학 3~4 ①/②/③/④’로만 구분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현재 개발 중인 교과서는 종전과 같이 학년·학기별 사용을 기준으로 단원을 배치하고 있다. 물론 교과서의 표지에 학년·학기의 표시 여부와 집중 이수제를 위한 교과서의 배부 시기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

초등 과학의 내용에 있어서는 3~4학년군에 ‘소리의 성질’ 단원이 새로이 신설된 것과 단원의 학년

간 이동을 제외하면 2007 개정 교육과정과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다.

2.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초등 과학 교과서의 방향

2009 개정 교육 초등 과학과 교육과정의 목표는 크게 ‘기본 개념의 이해’, ‘탐구 능력의 신장’, ‘과학적인 태도의 증진’, ‘과학·기술·사회 관계의 이해’ 네 가지로 종전의 교육과정 목표와 동일하다. 따라서 현재 개발 중인 초등 과학 교과서는 초등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동기와 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주고자 하고 있다. 즉, 다양한 형태의 신나는 과학 활동을 통해 성공의 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과학이 학생 자신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는 교과서를 개발하고자 한다. 또한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학습 능력을 바탕으로 창의적 사고를 자극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의 문제 해결력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길러줄 수 있는 교과서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러한 구상 하에 현재 개발 중인 교과서의 특징과 구현 전략을 다섯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교과서의 특징	구현 전략
학습동기 (Motivation)	과학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는 교과서 과학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주는 교과서	학습자에게 의미있는 실생활 소재와 내용 활용 실험 성공 경험의 지속적인 제공 스토리텔링에 의한 내용 구성
적응력 (Adaptability)	자신의 삶이나 문제 해결에 유용한 교과서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교과서 바람직한 인성 함양을 지향하는 교과서	융합(STEAM) 소재 활용 첨단과학 소재 활용 과학 관련 직업 소개와 진로 교육 협동을 통한 문제 해결 주제 활용 인성 강화를 위한 경험 기회 제공
녹색 성장 (Green growth)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교과서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교과서	녹색 성장 관련 소재 활용 녹색 실천 활동 활용
탐구 (Inquiry)	과학적 탐구 능력을 함양하는 교과서 자기주도적 탐구를 중시하는 교과서 과학자들의 탐구 과정을 체험시키는 교과서	기초탐구와 통합탐구 기능 강조 자유탐구 도입 과학자의 탐구 과정 소개 탐구 과정에서의 의사소통 강조
창의성 (Creativity)	과학적 창의성을 계발하는 교과서 타학문과의 융합을 지향하는 교과서	끝이 열린 문제 활용 다양한 창의성 계발 전략 활용 융합(STEAM) 소재 활용

3. 초등 과학 교과서는 이렇게 달라진다.

현재 개발 중인 초등 과학 교과서의 크게 달라진 점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기초 탐구 기능 학습에 차시 배정 및 활동 내용 도입

과학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학생들의 탐구 기능을 길러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교과서는 많은 탐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왔다. 그러나 정작 탐구 기능 자체에 대해서는 초등 과학 교육의 소재로 이용하지 않았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3학년 1학기과 4학년 1학기 과학 교과서의 앞부분에 여섯 가지 기초 탐구 기능(관찰, 분류, 측정, 예상, 추리, 의사소통)의 설명을 넣었으나 활동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아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이를 가르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이번엔 개발하는 교과서에서는 6차시를 배정하고 실제 활동 내용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교사용 지도서에도 자세한 지도 내용을 제시하여 실질적인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3, 4학년 모두 동일한 여섯 가지의 기초 탐구 기능을 학습하도록 하였으며 수준만 달리하였다.

② 자유 탐구 학습에 차시 배정 및 활동 내용 도입

학생 스스로 주제를 선정하고, 탐구 계획을 수립하며, 탐구를 수행하고, 최종 보고서를 작성·발표하는 자유탐구는 2007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였다. 이에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현행 교과서의 뒷부분에 자유탐구 관련 예시를 제시하고 6차시를 배정하였으나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필자가 전국의 교사 5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바에 이르면 2011년도에 자유탐구를 지도한 교사는 30%에 지나지 않았고, 그마저도 제대로 된 자유탐

구 지도를 한 교사는 거의 없었다. 이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자유탐구를 도입하면서 충분한 교사 연수가 없었고, 지도에 필요한 자료도 거의 없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도 자유탐구는 지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종전과 마찬가지로 6차시를 배정함과 동시에 3학년 2학기과 4학년 2학기에 해당하는 교과서의 앞부분에 활동을 도입하였다. 물론 교사용 지도서에도 다른 단원의 차시와 마찬가지로 지도에 필요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학생들의 수준을 감안하여 3학년 2학기 교과서에는 ‘관찰 중심 자유 탐구’ 내용을 도입하였으며, 4학년 2학기 교과서에는 ‘기르기 중심 자유 탐구’ 내용을 도입하였다.

여섯 차시에 해당하는 수업의 내용은 자유 탐구의 절차에 따라 ‘탐구 주제 정하기’, ‘탐구 계획 세우기’, ‘탐구 수행하기’, ‘보고서 작성법’, ‘탐구 결과 발표하기’로 정하였다. 이 수업에 따라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자유 탐구를 하는 법을 가르치며 학생들은 배운 것을 토대로 스스로 탐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학생들은 학교에서 자유 탐구에 관한 것은 여섯 차시에 걸쳐 배우지만, 각자의 자유 탐구는 따로 시간을 내어 수행하여야 한다.

③ 판형 및 사진·삽화의 변화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교과서의 판형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사용되는 초등 과학 교과서는 다른 교과와 교과서와는 다른 판형을 가지고 있다. 2009 개정 교육에 따라 현재 개발되는 교과서의 판형도 다시 한번 변화를 시도하였다. 기존의 교과서가 다른 교과와 교과서와 크기가 달라 불편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다양한 자료의 제시와 디자인의 자유도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 교과서의 판형보다 세로로 1cm가 더 크게 제작할 예정이다.

또한 대부분의 사진·삽화의 질을 향상시켰으며, 기존에 사진으로만 제시하던 내용들 중 세밀화로 제시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경우에는 모두 세밀화로 대체하였다.

4. 초등 과학 ‘실험·관찰’은 이렇게 달라진다.

과학 교과에 있어 ‘실험·관찰’은 전통적으로 위크북의 성격을 띠어왔다. 이러한 ‘실험·관찰’의 성격은 이번에 개발하는 교과용 도서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

기존에는 3,4학년의 경우 2도 인쇄만으로 제작되었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4도 인쇄로 제작할 예정이다.

또한 ‘실험·관찰’에 학생들이 기록해야 할 난이 너무 많아 학습 부담이 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학생들의 기록은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각 단원의 마지막 차시인 정리하기 차시에는 단위 내용의 요약과 간단한 문항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교과서와 ‘실험·관찰’에 동일한 내용이 제시되어 지면의 낭비가 있어왔다. 이번에 개발되는 교과서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리하기 차시는 ‘실험·관찰’에만 제시하고 있다.

5. 초등 과학 교과용 지도서는 이렇게 달라진다.

현재 개발 중인 초등 과학 교과용 지도서의 크게 달라진 점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총론의 별책 발행 및 내용의 적정화

기존의 지도서는 대부분의 교과가 모두 ‘총론’ 부분과 ‘지도의 실제’ 부분으로 구성하고 있다. ‘총론’ 부분에는 교육 과정 및 교과 교육학 관련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도의 실제 부분’에는 각 단위

차시의 지도를 위한 수업의 흐름, 준비물, 학습 내용 및 활동, 대체 활동 및 관련 참고 자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에 개발하는 교과용 지도서의 성격도 기존의 지도서와 달라진 것은 없으나, 총론 부분을 따로 별책으로 발행하기로 하였다. 기존 지도서의 경우 학년·학기마다 동일한 내용이 100쪽 이상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 지도서의 부피가 커진다는 단점을 보완하고 자원을 절약하기 위한 것이다.

다루는 주제로는 과학의 본성, 과학 탐구 지도, 과학 학습 이론, 과학 수업 모형, 과학 학습 평가 등은 기존의 주제와 거의 비슷하나 실제 내용은 초등 교육학 이론서와 같은 학술 중심에서 탈피하여 교사가 수업에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아울러 과학 교육의 변화에 맞추어 과학 수업에서의 의사소통, 과학 교육의 확장, 과학 실험 안전 지도 등을 추가하였다.

② 지도서 차시 내용 부분의 체제 변화 및 내용의 적정화

지도서 차시 내용 부분에서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내용의 배치 방법이다. 종전에는 교과서와 실험 관찰의 축쇄판을 상단에 배치하고 하단에 지도 내용을 배치하였으나, 이번에 개발하는 교과용 지도서는 교과서의 축쇄판을 양면에 두 쪽을 나란히 배치하고 그 주위에 지도 내용을 서술하였다. 흔히 랩 어라운드(wrap around) 방식이라고 불리는 배치 방법인데, 이러한 배치의 장점은 한 차시의 교과서 내용을 한 눈에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배치에 따라 교과서의 연관되는 부분과 지도 내용은 적절한 아이콘으로 서로 연결하여 교사들이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교과서의 동기 유발, 준비물, 학습 내용 및 활동에 해당하는 부분에 특정한 표시를 하고, 지도 내용 부분의 해당 내용에도 같은 표시를 하여 교사가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내용면에 있어서는 교사들이 차시에서 가르치는데 꼭 필요한 내용만을 기술하도록 하였으며, 참고 자료들은 차시의 뒤쪽이나 단원의 뒤쪽에 모아 배치하였다. 이때에도 필요한 내용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측정한 표지나 쪽수를 안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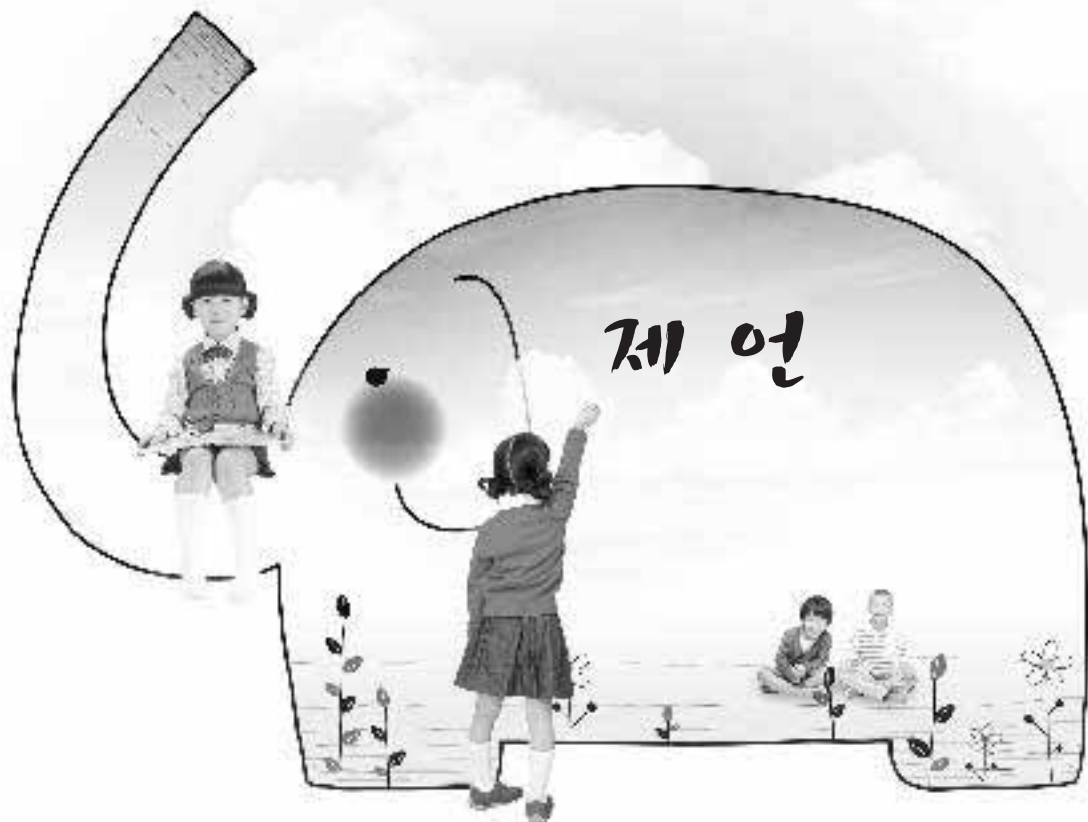
또한 지도서의 글자가 너무 작다는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글자의 크기를 현행 지도서 보다 2포인트만큼 키웠다.

6. 마무리

초등 과학 교과용 도서는 지난 2007 개정 교육 과정에 따라 개발할 때 대폭적인 변화가 이루어졌었다. 이번의 2009 개정 초등 과학 교육과정의 내용은 2007 개정 교육과정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으므로 교과서의 내용 또한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 그간 나타난 문제점들을 수정·보완하고자 노력하였다.

체제나 편집에 있어서도 사진·삽화의 질을 높이고 학생과 교사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이런 교과서를 만들어 주세요!”

오래 전부터 그 단점과 폐단이 지적되어 온 교과서 내용 전달 중심 교육은, 인성 교육과 창의성 교육이 필수적인 시대를 맞이하여 그 효용성이 한계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이제는 교육과정 중심 교육을 해야 하며, 교육과정 중심 학교 교육이야말로 그 수준의 한계를 설정할 수 없을 만큼 무한히 발전할 수 있는 훌륭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새삼스럽게 강조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교과서가 현장 교육의 핵심을 이루는 우리의 교육 현실에서는, 교과서의 변화가 현장 교육의 변화를 선도하는 중요한 조건의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미 살펴본 초등학교 교과별 국정도서 편찬 방향에 더하여, 국정도서 현장적합성 검토 연구학교 교사들은 어떤 교과서가 보급되기를 바라는지 물어보았다. ㉞



학교현장이 바라는 교과서의 모습



이 형 래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초등학교 교사

새 학기를 앞두고 교과서를 나눠주면 아이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새 교과서를 들고 관심을 가질까? 아이들은 새 교과서를 받아 넘겨보고, 그림을 보고, 글을 읽고, 새 교과서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 교사가 특별히 제제를 가하지 않을 경우, 아이들이 교과서에 폭 빠져 이런저런 활동을 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 교과서는 잘 만들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교과서가 학생에게 강렬한 첫인상을 심어주었기 때문이다. 교과서는 처음부터 강렬한 인상을 주어야 한다. 교과서에 대한 첫인상은 아이의 흥미와 관심을 고조시키고 집중도를 높인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교과서의 표지를 통해 교과서에 대한 첫인상을 갖게 된다. 그런데 아이들의 관심은 이내 표지에서 속지로 이동한다.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다. 즉 대강 훑어보기를 하는데, 이 때,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내용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점이 학생의 교과 학습에 대한 흥미를 갖는 데 중요한 구실을 한다.

대강 넘겨보기를 하다가 멈추는 횟수가 많아야 흥미로운 교과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대강 훑어보기를 하다가 아이들이 자주 시선을 멈추게 하려면, 결국 아이들이 좋아하는 삽화가 풍부해야 한다. 매력적인 삽화에 대한 기준은 다르겠지만 아이들의 관심을 끌어서 시선을 가능한 한 오랫동안 머물게 하려면, 리얼리티와 판타지를 적절하게 배합하는 것이 좋다.

학기가 시작되어 교과서로 수업을 하면서 좋은 교과서에 대한 입장이 바뀌기도 한다. 교과 수업을 하면 가장 먼저 고민하는 부분은 학생들에게 학습목표

를 안내하는 일이다. 교사는 어떤 방식으로든 학생들이 무엇에 대해서 공부할 것인지 인지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한계는 있지만 그런 역할을 교과서가 대신해준다면 분명 반길 만하다. 교과서가 학습목표 안내를 친절하게 해주길 현장의 모든 교사들은 바라고 원할 것이다.

교과에 따라 교과서에 제시되는 학습목표의 진술 방식에 큰 차이가 있지만 이전과는 달리 학생의 관점에서 학습목표를 진술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변화로 여겨진다. 물론 학습목표는 학생이 실제로 학습 활동을 하게 되는 실질적인 활동과 관계가 깊은 내용이어야 한다.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근거한 진술이 아니라 학생이 실제로 학습하는 활동과 직결되는 내용으로 구성해야 한다. 그래야 학생들이 교과서를 이용해서 학습을 하면서 자신이 무엇에 대해서 공부하는지 때때로 인식하면서 학습할 수 있다.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학습목표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교과서를 구성해주길 바란다. 교과서가 복잡한 도시의 교통 표지판처럼 학습목표를 잘 안내해준다면, 교과서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교과에 따라 학습목표가 학습내용 요소로 잘게 세분화되어 제시되고 있는데, 가능한 한 아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표현해야 한다. 그래야 아이들이 학습목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 요소와 관련 있는 어휘를 교과서에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 교사가 교과서에 진술된 학습목표 중 어려운 용어를 보완해서 설명할 수 있지만 교과서는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어떤 교과서는 내용 요소가 너무 많아, 차시학습의 학습목표가 무엇인지 교사와 학생이 제대로 파악을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교과서로 공부를 하면서 자신들이 하는 활동의 의의와 목적을 모른다면 목적지 없는 항해가 될 수 있다.

학습목표를 쉽게 진술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학습 내용 요소들이 매우 친절하게, 자연스럽게 전개되도록 구성하는 것이다. 학습의 양이 너무 많으면 아이들이 좋아하지도 않고 수업 흐름도 원활하지 않다. 교과서를 만들 때, 차시별 쪽수를 제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제한을 두는 것보다 전체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다. 한 쪽에 많은 양을 넣는 것보다 그 양을 분산해서 펼치는 것이 더 좋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현장에서는 학습량이 많지 않다는 느낌을 주는 교과서를 원한다. 또 한편으로는 복잡한 인상을 주는 교과서를 매우 꺼린다. 교과서가 복잡한 느낌을 준다는 것은 학습 내용 요소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능한 한 간결하고 단순한 흐름으로 교과서가 구성되길 원한다.


최근에 개발된 교과서는 중요한 요점을 콕콕 짚어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교과서에 그런 기능이 없다면, 핵심 내용을 지도서를 참고하여 교사가 학생에게 안내해주어야 한다. 교사가 학습 핵심 요소를 학생에게 안내해줄 때, 고차적인 수업 기능을 동원해야 한다. 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맞게 내용을 재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과서 집필자가 학습활동의 주요 핵심적인 사항을 교과서에 친절하게 구성해 주었다면, 교과서가 교사의 몫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환영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교과서를 비교해보면, 캐릭터를 이용하여 학습 활동을 안내하기도 하고, 핵심 학습 요소를 그대로 제시하기도 하는데, 이들을 살펴보면 단편적인 지식을 안내하는 인상을 받게 된다. 선언적인 지식을 안내하는 것보다는 절차나 방법과 관련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다.

교과에 따라 그 특징은 크게 다르지만 현장에서는 학습 내용을 정리하는 단계가 교과서에 펼쳐지길 바

라고 있다. 일반적인 수업이 도입, 전개, 정리하기로 구성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과서도 단원의 정리하기를 구성해서 학생들의 학습 과정을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교과서 정리하기 부분의 양이 너무 적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한 단원의 내용을 한두 쪽으로 제한해서 정리하기를 하는 것보다 여유 있게 지면을 배치하는 것이 좋다.

현장에서 바라는 교과서의 모습 중 또 중요한 한 가지는 학생의 실제적인 삶을 담고 있는 교과서이다. 교과서가 모범과 전형을 제시하는 자료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학생의 개인적인 경험을 학생의 사고 안에서 밖으로 드러내도록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은 학생 경험과 친화적인 것이어야 한다. 학생들이 교과서에 구현된 내용을 보고 친밀감을 느낄 때 학생들의 반응은 더 잘 활성화된다.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 학습을 했다면 반드시 학생 개별의 경험을 통한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학생들의 실제 생활과 관련 있는 예화, 삽화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학습문제나 학습활동이 학생들의 삶과 직결되도록 해야 한다.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학습을 통해 얻게 되는 행복함과 보람, 성취감, 만족감을 선물해 주어야 한다. 공부를 마치고 갖게 되는 성취감을 얻지 못한다면 학생들은 스스로 공부하는 힘을 키우지 못한다. 그런 면에서 보면, 교과서가 학생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교과서 학습을 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재료들을 교과서 부록으로 넣어 활용하도록 하는 것도 이런 관점에서 출발했겠지만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차근차근 짚어가며 학습할 수 있도록 친절함이 돋보이는 교과서를 원하고 있다.

학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교과서가 참고서의 역할까지 하길 바란다. 그런 점에서 보면, 교과서는 학습 내용과 학습 방법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싣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뜬실하고 풍부한 정보를 담으면 두꺼운 교과서로 변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걱정하지만,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학교 현장이 바라는 교과서, 이랬으면 좋겠어요.

김 주 현

공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교사



학창 시절 학기 말이나 학년 말에 새 교과서를 받으면 늘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교과서를 뒤져보곤 하였다.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나 예화자료를 읽어 보기 위함이었는데, 그 때는 그 내용들이 무척이나 재미있고 흥미로웠던 걸로 기억이 되는 것은 왜일까? 쉬는 시간 심심할 때 친구들과 가위, 바위, 보를 해서 아무 쪽이나 넘겨 보이는 사람 수 만큼 책장을 넘겨서 많이 넘기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을 할 때도, 당연히 공부시간이나 숙제를 할 때도 우리 옆에는 항상 교과서가 있었다. 책가방이 무거웠지만 우리는 교과서를 꼭 가지고 다녀야 하는 줄 알고 열심히 넣고 다녔다. 우스갯소리로 가방에 책만 넣고 시계추처럼 학교만 왔다 갔다 하면 되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요즘은 교실마다 개인 사물함이 구비되어 있어 필요한 경우만 교과서를 가지고 다니게 되어 있고, 학생들 가방에는 학원 문제집만 묵직하게 들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다 보니 숙제를 못해 온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과서를 학교에 놓고 집에 안 가져가서 못해오는 경우이며, 교과서는 학교에서의 공부 시간에 필요한 준비물일 뿐 시험기간에는 다른 문제집이나 학원에서 나누어 주는 유인물로 대체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요즘처럼 디지털 교과서를 비롯하여 스마트 러닝에 알맞는 여러 콘텐츠들을 제작, 제공하고 있는 현

실을 고려하여 볼 때 우리도 이제는 예전의 교과서가 아닌 변화된 교과서를 편찬할 필요를 느낀다.

하지만 이번 실험용 교과서를 통한 수업이나 분석을 하면서 느낀 점은 우리 학교가 말 그대로 현장적 합성 검토학교이긴 하지만 학생들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학부형 입장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았다.

수학교육의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는 스토리텔링은 이야기 속에서 수학의 원리나 개념을 발견하고, 상호작용을 통해 수학적 개념을 명확하게 깨닫는 학습 방식을 도입하고자 하였겠지만 실제 수학교과서에서의 스토리텔링 자료들은 억지로 짜맞춘 듯한, 그래서 학생들에게 와 닿지도 않고 재미도 없는 내용들이 다수이며, 저학년 학생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도입부분에 제시되는 내용이 장황하고 길어 심지어 어떤 학생들은 '왜 이렇게 길어요?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겠어요.'라며 짜증을 내거나 아예 딴 짓을 하는 학생들도 대다수였다. 물론 내년에 새롭게 멀티미디어 자료 등이 제작되어 보급된다면 듣기만 하는 지금의 상황보다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받아들이기는 쉬워지겠지만, 이 또한 어떻게 자료가 제작되느냐에 그 결과가 달라진다고 보아야겠다.

실제 학생의 경험이나 상황에 비추어 수학적 문제를 깨닫고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학생들의

내면 심리나 실생활에 다가서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수학 익힘책의 경우 집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문제가 어렵고 난해하여 그대로 가정학습으로만 둘 경우 수준별 성취 정도에서 엄청난 결과를 불러올 듯하여 교사가 수업 시간에 틈틈이 다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수학 익힘책은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고 스스로 풀 수 있도록 좀 더 쉽게, 교과서 문제는 문제해결 과정을 알 수 있도록 예시 문제를 좀 더 넣어 줄 필요가 있다고 느껴진다.

새 학기를 시작하며 받아본 통합교과서 “나2”는 우울한 삽화로 교과서가 학생들로 하여금 재미없는 내용으로 인식되기에 충분하였다. 내용들을 살펴보기에 앞서 그림들을 훑어보며 배울 내용을 탐색해보는 저학년 학생들의 특징을 감안해 본다면 삽화가 매우 중요함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장르의 개척을 위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통합교과 분석의 내용 중 다수가 삽화와 관련된 것이었으며 이런 것들을 분석 보고서에 적으면서 ‘우리가 너무 좀스러운 건가? 별거 아닌 거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자괴감에 빠저들 때도 있었다. 학생들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편안하며 자연스러운 삽화가 제공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삽화에 나오는 학생들 모습이나 다양한 내용들이 “보면 즐겁고, 즐거우면 읽을 수 있도록,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내용의 구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리고 즐거운 생활의 음악활동 부분에 있어서도 신나고 재미있는 동요가 별로 없다는 아쉬움이 강하게 남는다. 저작권 관련 여부를 떠나 대중음악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요즘 학생들에게 아름답고 예쁜 동요를 많이 부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통합교과에서도 주제와 관련한 다양한 동요를 전자교과서에 함께 수록해주면 좋겠고, 율동도 같이 넣어주면 학생들이 집에서도 손쉽게 따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적다보니 새로운 교과서에 대한 불만만 많이 토로

하게 되었는데 새로운 시도와 주제의 통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지금까지 교육과정의 통합은 없었으며, 각각의 교과에서 주제 통합으로 통일감 있고 내용적으로 통일성 있는 교과 지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지 않나 생각한다. 단절된 교과서가 아니라 세 개의 교과가 통합된 내용으로 체계적으로 지도가 이루어진다면 아동들의 발달 수준에 맞게 행복한 학교 생활이 이루어질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끝으로, 학교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교사가 재구성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가 되도록 하며, 무엇보다도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학년군의 취지를 고려하여 교과서를 개발해 주었으면 좋겠다. 교육과정에서 지향하고 있는 학년군제, 교과군제는 교육내용의 통합적인 편성이 이루어져 구성되어야 현장에서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한, 교과서의 내용들이 실생활과 동떨어진 것들이 아닌, 학생들 생활 주변 소재를 바탕으로 내용을 구성함으로써 학습한 내용을 일상생활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여 학습 내용을 정선하여 수준과 양을 적정화 해야 한다. 교육 내용은 해당 교과의 교육과정 시간 또는 단위 배당 기준에 맞추어 학습 내용을 조직하고 교과의 특성에 맞게 주제와 제제, 소재 등이 알맞게 선정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참신한 소재와 제제를 활용하여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는 교수·학습 활동 및 평가로 구성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교과서의 각 단원은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용어 해설, 탐구 과제, 선택 학습 활동 등을 다양하게 포함시켜 제시해주고, 학생의 개인차에 따라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조직된 교과서가 우리가 바라는 교과서가 아닌가 싶다. 





주제별 통합교과서에 대한 학교 현장에서의 제안



박 명 선

서울버들초등학교 교사

현대 사회는 창의성과 바른 인성을 바탕으로, 미래를 이끌어 갈 창의적 멀티(multi)형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사회가 점차 열려가며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기능들 간에 복잡한 상호의존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포괄적인 여러 방면의 지식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러한 미래 인재 양성의 시대적 부응이 학교 교육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방법의 교육을 구안하게 했다고 본다.

통합교육과정의 출현은 초등학교 특히 1,2학년 학생들에게 학문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왔던 지금까지의 우리의 학교 교육을, 주어진 상황과 현실의 문제 및 해결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계속적으로 변하는 학문의 틀에 학생들을 준비시키고 그에 따른 개념들을 습득시키는 교육으로 전환함으로써,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시대 요구적 방편이었다. 이전부터 교과 간 연계와 통합형 수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현장에서 적용해 왔던 필자로서는, 주제별 통합교과서 출현에 대한 당위성을 인정하고 환영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정도서로 만들어진 주제별 통합교과서를 현장에서 적용했을 때, 그에 따른 유용성 뿐 아니라 정작될 때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음을 감지하였고 이러한 부분을 살펴봄으로써 좀 더 효율성 있는 교과서를 만들게 되길 기대한다.

1. 통합교육과정의 목적에 따른 주제별 교과서로서의 정체성 확립

앞으로 초등 1,2학년에 전면 시행될 통합교과서는 통합교육과정의 유형 중 탈학문적 접근이 도입되어 주제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과서이다. 다시 말하면, 분과적 교과의 특성을 뛰어넘는 '주제'를 선정하여 학습하는 교과서이다.

현재 국정도서 현장 적합성 연구학교에 주어진 주제별 교과서는 8개의 대주제와 1개의 대주제에 따른 2개의 소주제, 그리고 실천중심의 바른생활, 탐구중심의 슬기로운생활, 표현중심의 즐거운생활이 나열된 활동주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자칫 탈학문적 주제 중심 통합교과서가 바른생활, 슬기로운생활, 즐거운생활의 분과적 교과내용이 1권의 교과서에 단순히 나열된 정도의 교과서로 오해하기 쉽다. 그래서 대주제나 소주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분과적 교과의 특성을 살린 활동주제에 초점이 맞추어질 수 있는 것이다.

학교라는 대주제와 소주제가 선정되었다면 그 주제의 필요에 따라 활동주제는 바른생활 영역이나 슬기로운 생활 영역, 또는 즐거운 생활 영역이 아예 빠질 수도 있고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획일적으로 활동주제에 골고루 나열된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생활의 성취기준은 학생이나 교사, 학부모에게 있어 주제별 통합교과서 편찬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물론, 교육과정이 획기적으로 변하는 과정에 있어 과도기적 접근 방법일 수도 있으나, 어차피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지는 주제별 통합 교과서라면 그 자체의 정체성 확립도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2. 대주제의 선정과 교사의 자율성

통합교육과정에서 주제별 교과서의 '주제'는 아동이 삶에서 가졌던 경험 속 흥미와 요구에 기초하여 선정된 것이다. 전국의 1,2학년에게 공통적인 주제를 발췌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대주제의 선정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 경험을 통해 흥미나 관심을 끌어내어 학습하고자 할 때 선정된 대주제가 분과적 교과서의 힘겨루기로 인해 너무 추상적이 된 것은 아닌지, 학생들의 관심 밖 요소는 아닌지, 전국 모든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에게 적용하기에 무리가 없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단위학교 학급에서 교육의 효율성있는 목표 도달을 위한 교과서 재구성 필요할 때, 대주제 및 소주제 변환에 있어서도 유동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다.

2013학년도에 적용될 주제별 통합교과에서 교사의 자율성은 대주제와 소주제를 고정시키고 활동주제에서 교사의 다양한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단위학급의 교사가 지역적 상황과 학급 특수성에 맞도록 교과서에 주어진 내용 외의 주제로 재구성을 시도할 때 주제별 통합교과서의 제한된 교사의 자율성은, 다양한 주제와 방법으로 수업의 극대화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교사들에게 통합교과서로 인한 또 다른 제약이 될 수도 있다. 지역적 상황과 여러 변인들에 의해 교육적 효과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한다면 대주제 및 소주제 변환에 대한 유동성을 허용하여 교사의 자율성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주제별 통합교과서 이해를 위한 교사 연수와 다양한 콘텐츠의 보급 및 공유


교사들이 주제별 통합교과서 편찬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학교별 학급별 차이는 상당히 클 것으로 본다. 보수적 성향을 가진 교사 집단에서는 교과서의 내용만 학습하면 된다는 지금까지의 전통적 교과교육의 고정관념으로 학생과 상관없이 수업내용의 진도를 나갈 것이고 교과서가 별 내용도 없이 부실하다고 불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주제별 통합교과서에 대한 이해를 하고 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자료나 학습 방법을 활용하는 교사 집단에서는 교과서 밖의 활동과 연계 수업을 통해 수업 효과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주제별 통합교과서가 전면 시행, 적용되기 전, 모든 교사들에게 연수가 시행되어져 수업활동에 따른 학교, 급별 차이를 최소화하고, 제시된 주제 중심 학습의 온전한 활동을 위한 학습지나 참고도서 뿐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여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사들 사이에서 교과서 밖 수업활동 자료를 서로 공유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주제별 통합교과서의 활용을 더욱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현장에서 바라본 주제별 통합교과서에 대한 여러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직은 주제별 통합교과서가 시행되기 전으로, 정착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의 시행착오를 거칠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 시대의 흐름과 요구에 따른 새로운 교육과정의 출현이라는 점은, 세계화와 정보화 사회에서 새로운 영향력을 줄 획기적인 것이 되었다. 급변하는 세계의 흐름 속에서 앞으로 몇 년 뒤에는 책자로 만들어진 교과서 자체가 없어지는 가운데 '주제'와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해결방법의 구안'만 교육과정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교육과정을 세계의 흐름에 입각하여 시도했다는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남은 2학기, 학생들과 주제별 통합교과서로 좀 더 적극적인 수업을 통해, 온전한 주제별 통합교과서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이 되고자 한다. 





학생을 위한 교과서, 교사를 위한 지도서

이 상 우

대전동문초등학교 교사



‘학교에서 교과 과정에 따라 주된 교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편찬한 책’ 사전에서 정의하는 교과서의 의미이다. 필자가 있는 학교는 실험본 국정 교과용 도서를 미리 사용해보는 학교이다. 나라에서 만든 교과서를 현장에 투입하기 전 타당성과 적합성을 검토하는 임무를 맡게 된 것이다.

현장에서 바라는 모습과 교과서를 개발하는 사람의 입장은 같은 목적을 향하고 있지만, 미묘하게 다른 점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초등학교 검정 교과서 집필 경험이 있는 필자로서는 교과서를 개발한다는 것이 현장에서 원하는 만큼 쉽지 않은 일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과정을 여러 번 숙독하여 그 의도를 정확히 이해함을 토대로, 교실 수업에 실제 적용 가능한 구성과 내용들로 의지할 것 하나 준비되어 있지 않은 빈 지면들을 질적으로, 그리고 정해진 시수와 분량으로 채워나가야 한다.

실험본 교과서 검토 연구학교 2년차로서 그동안 동료교사들과 같이 연구하고 고민하며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떠올리며 현장에서 바라는 교과서에 대한 의견을 적어보고자 한다. ‘학생과 교사를 위한 교과서’라는 원론적인 문구를 먼저 제시하고 그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첫째, 학생에게 재미있는 교과서이길 바란다. 교과서는 교사가 지도하기 위한 책이라기보다는 학생들이 누군가의 가르침 없이도 혼자서 생각하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책이어야 한다. 이런 사실을 반영하기 위해 이미 글자와 그림의 크기 및 색도, 종이의 질 등은 점차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교과서의 정해진 구성과 그에 따른 내용 분배로 인해 아직도 지도에 가끔씩 어려움을 느끼게 하곤 한다. 학습목표가 쪽의 맨 상단에 위치해야 한다는 점, 쪽의 마지막이 차시의 끝이 되어야 한다는 점 등은 지금도 암묵적으로 약속된 교과서 집필자들의 한계가 아닌가 생각한다. 또한 활동의 양이 차시 분량에 적절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기 때문에 쪽수를 맞추기 위해 자칫 아이들이 적어야 할 워크시트의 공간이 좁아지는 경우가 생기며, 차시의 한정된 지면으로 인해 해당 활동을 자세한 안내 없이 제시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앞에서 말한 학습목표의 위치, 쪽의 마지막이 차시의 끝이 되어야 한다는 한정적인 사고를 과감히 없앤다면 실제적으로 교과서를 개발하는 입장이나 사용하는 입장 모두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적절한 내용을 담은 교과서를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한 교육과정과 상관없는 내용을 교과서의 지면을 채우기 위해 넣어야 하는 개발과정도 생략 되었으면 한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부터 상당량 도입된 교과서 뒤의 붙임딱지는 때론 불필요한 것까지 제작되었고, 저학년의 경우 스티커를 떼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 수업의 흐름에 자그마한 방해요소들도 때때로

존재한다. 붙임박지의 경우 적재적소에 필요한 만큼만 제작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교과서의 중간 중간에 펼침면을 넓게 활용하여 차시 활동의 전체 모습을 한 눈에 보일 수 있게 하는 현재의 방법은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학생들이 교과서를 동화책처럼 소설책처럼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어렵지만 희망적인 상상으로 아이들을 위한 교과서에 대한 생각을 마무리 해본다.

둘째, 교사에게 친절한 지도서이길 바란다. 초임교사에서 고경력 교사까지, 부족한 교과에서 전공과목까지, 모두 다 이해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구성과 내용으로 교사용 지도서가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교과서가 아닌 교육과정을 가르쳐야 한다.”는 원론적인 약속은 당연히 지켜져야 하지만, 각 교과별 전문가들이 연구하고 고민하여 개발된 표준안을 상당수 의지하는 것은 학교현장에서 매우 흔한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때로 집필자의 전문가적인 의도가 교사용 지도서에 반영되지만 이를 현장 교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전문가가 전문적으로 지도서를 집필하게 되면 비전문가는 내용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세한 설명이나 체계적인 안내가 필요하다.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구성과 내용으로 지도서의 내용들이 채워진다면 교사들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지도서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교수용 자료로 제작 및 배포되는 CD자료는 실제로 활용도가 미약하다. 시간의 여유를 두고 질적, 양적인 내용을 모두 고려한 자료가 개발되어 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로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셋째, 현장친화적인 교과용 도서이길 바란다. 형식의 구애 없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구성과 소재를 적극 받아들임으로써 실제적으로 수업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교과용 도서이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선 교과서 개발 및 집필에 대한 사고를 조심스럽지만 조금씩 넓혀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

다.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에 따라 많은 부분의 제한적이던 요소들이 자유롭게 된 것을 현장에서는 매우 바람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교과서 선진화 방안은 교과서의 크기, 무게, 쪽수 등에 제한이 없어지는 외형체제의 자율화가 이루어지고, 검·인정 도서를 대폭 확대하며, 교과서의 가격을 발행사가 결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들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실제로 모양과 크기가 다른 새로운 교과서를 받은 아이들은 매우 흥미로워한다.

초등학교 1, 2학년의 통합교과와 3, 4, 5, 6학년의 음악, 미술, 체육 교과의 연계성도 고려되었으면 한다. 2학년 통합교과를 마치고 난 후 3학년에서 갑자기 많아지는 텍스트와 어려워지는 난이도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에 대한 연구 및 개발자들의 적극적인 서로간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서두에서 이야기 하였던듯 우리학교는 국정도서 현장적합성 검토 연구학교이다. 평소에는 비판적 시각 없이 받아들였던 교과서에 대해 이제는 연구하고 고민해보는 습관을 갖게 되었다. 교과서는 학교현장에서 학생과 교사 모두 상당 부분 의지하고 있는 책이다. 교과서의 역할과 쓰임이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듯이 지금과 같은 실험본 교과서의 검토는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행정도시로 점차 모습을 꾸미고 있는 세종시에서는 모든 학교를 스마트스쿨(smart school)로 설계하며, 스마트폰의 어플을 이용한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앞으로는 e-교과서의 보급도 점차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대에 맞추어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활용하는 교육방법도 중요하겠지만, 조금 느리더라도 우리 학생들에게는 서지책의 아날로그 냄새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외람된 생각도 해 본다. 교과서 책장을 넘기는, 연필로 기록하는 소리가 그리워질 거라는 아쉬운 생각을 하며 이 글을 마무리한다. 





창의지성교육에 기반한 교과서의 모습

현 주 복

경기 화성 구봉초등학교 교사



아이들의 책가방에는 언제나 교과서가 들어 있다. 교과서는 작은 학교이며, 교사와 학생을 이어주는 매개체이기도 하다. 아이들은 교과서를 통해 배우고 익히며, 사고하고, 깨우친다. 교사는 교과서를 통해 교육활동을 구상하고, 아이들과 호흡한다. 교과서는 아이들의 생각 도구이며, 때론 친구이기도 하다. 교과서는 작은 학교일 수 있고 교육의 집성체이기도 하다.

최근 ‘창의성’이 국제적, 국가적인 교육의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교육목표로서의 창의성이란 단순한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행위가 아닌 보다 포괄적이고 확장적인 의미를 갖는다. 창의성은 첫째, 세계의 이치(본질이나 법칙, 혹은 의미나 맥락)를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나 상상력을 의미하며 이러한 능력은 경험을 넘어서는 세계에 대해서도 그 본질을 깨닫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창의성은 인식을 넘어서 독창적인, 즉 의미 있고 새로운 문제발견 및 해결능력을 뜻한다. 셋째, 창의성은 민주적 시민가치 및 덕성, 책무성, 그리고 리더십을 기르는 것을 의미한다.¹⁾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사람이 최고의 자원이자 자산이 될 수밖에 없으며 사람은 교육을 통해 길러진다는 신념하에 창의성을 기르는 교육을 실현하고자 한다. 즉,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해 미래 한국사회의 평화와

생존, 그리고 번영의 자원으로 삼고자 한다. 이에 발맞추어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창의지성교육’을 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다.

창의지성교육은 ‘지성교육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창의성을 달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지성교육은 ‘인류사회의 다양한 지적전통, 문화적 소양, 경험과 실천을 바탕으로 비판적(반성적, 성찰적)인 사고력(critical thinking)을 키우는 교육방법론’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창의지성교육은 교육행태주의(실증주의)와 입시교육에 의해 질식되고 있는 교육의 본질을 살리며, 지식(텍스트)과 함께 비판적 사고를 통해 창의성 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인식에는 교과서가 교육의 주된 도구이자 배움의 결실과 사고의 확산을 이끌어줄에도 불구하고 획일화된 답과 사고를 양산하고 오히려 아동들의 다양한 창의성을 함양을 저해한다고 치부해 버려 교과서의 본질을 외면하고, 교과서를 대신할 대안을 찾고자 한다. 더불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정규 교육과정은 무시되고 학교 밖 체험활동을 우선시키는 풍조가 만연되어 있다.

1) 세계와 함께하는 ‘창의지성교육’, 경기도교육청, 2012

따라서 교과서의 본질을 깨닫고 현 교과서의 문제점을 인식하며, 새로운 교과서의 변화를 꾀하여야 한다.

우선적으로 아이들이 학교생활에서 수업에 활용하고 있는 교과서는 '창의지성교육'의 본질과 부합되어야 한다. 즉, 교과서는 다양한 텍스트를 구비하고, 텍스트를 이해하고, 경험하며, 또한 재구성하며 아이들은 비판적 사고를 고취할 수 있어야 한다.

창의지성교육에 본질을 둔 교과서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다양한 고전과 현대 명저를 수록하여 아동들이 읽기 활동을 통해 경험과 체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텍스트는 활자화된 글에만 국한할 필요는 없고 이미지와 영상을 통해 고급사고력을 신장시킬 수도 있다.

둘째, 교과서에는 흥미와 호기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학습거리가 제공이 되어야 하며, 다양한 예술작품을 실어 이를 체계적으로 감상하고, 이것을 기초로 새롭게 자기를 표현하는 창조적 작업을 해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내재해 있는 다양한 잠재력을 발견해 내고 이를 보다 잘 길러낼 수 있는 교육을 이끌어 내야 한다.

셋째, 비판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독서, 토론, 실험, 관찰, 글쓰기가 이루어져야 하며, 교과서 활동을 통해 학습과정에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학생 스스로 학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해결과정을 탐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넷째, 교과서를 바탕으로 학생과 교사가 서로간의 협력을 통해 지식이 형성되고 창조되어야 한다.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사간에 협력적인 상호작용으로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텍스트가 구성되어야 한다.


다섯째, 교과서 활동을 통해 기쁨과 감동, 깨달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은 다양한 지식 및 예술교육, 체험교육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그 자신의 내면에 있는 감정을 느끼고 자신의 주변을 바라보며 느끼고 감동하게 된다. 인생을 바라보는 깨달음을 가지게 된다.

이런 본질을 가진 '창의지성교육' 교과서를 통해 현재의 교과서의 문제점인 수량적 평가의 도구 및 시험을 위한 교재로서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고, 교육현장에 파고든 무한경쟁과 서열화 교육을 넘어, 참된 교육을 이룩하며 아이들이 비판적·창의적 사고력·민주적 생활력을 갖도록 돕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완성하게 될 것이다.

현재 경기도 화성에 소재한 구봉초등학교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요청 경기도교육청 지정 '국정도서 현장 적합성 검토' 연구학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연구 활동은 바로 창의지성교육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교과서 및 지도서를 구축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단순한 실험본 교과서 및 지도서의 현장 적합성을 검토를 넘어 미래의 요구에 적응하며, 창의적 사고를 함양할 수 있는 교과서를 만드는 데 일임을 담당하고 있다.

여전히 학교에서는 다양성과 창의성을 자극하는 교육이 아니라 획일화된 교과서(텍스트)를 이용한 교사 위주의 일방적 가르침을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다. 이런 교육에서는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창의지성교육의 교과서는 아동들이 어떤 내용을 배우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식을 탐구해 나가야 하는가를 배우는 것이 중심이 될 것이다. 학생이 중심이 되고, 배움의 깨달음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한가지 더 큰 바람은 '창의지성교육' 교과서를 통해 아이들만의 성장이 아닌 교사도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동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이보다 더 좋은 교육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 문헌

- 세계와 함께하는 '창의지성교육', 경기도교육청, 2012
- 교원역량 혁신과 새로운 교사 연수 프로그램, 화성오산교육, 화성오산교육지원청, 2011





참신하고 친절한 교과서



신 희 은

전북 김제검산초등학교 교사

교과용 도서 ‘현장적합성 연구학교’라는 주제를 받아 들고 교사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근거렸다. “교과서가 또 바뀌네?”, “바뀌지 얼마나 되었다고?”, “정착될 만하니 또 바뀌네” 등 현장에 그리 반가운 소식은 아니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계획된 학습 경험을 담고 있는 교과서가 세상의 변화 속도에 맞춰 가속도가 붙어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은 간과해서는 안 될 현실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 개발은 ‘학생의 학습능력 신장과 창의·인성 교육에 적합하며 학교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현장·실생활 중심의 교과용도서의 개발 및 보급을 통해 학교 교육을 내실화한다.’는 교과서 제도 선진화 정책에 맞춰 이루어졌다. 교사의 지도 아래 전달될 지식을 담아 놓은 모습이 아닌 학생의 자율적 참여로 사고 과정을 중시하고 미래사회에 적응하게 될 핵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도구로 제작되었다.

이번 실험용 교과서를 접하면서 가장 큰 변화는 무엇보다 국어활동과 같은 새로운 교과서의 도입과 통합교과와 주제별 교과서의 탄생이었다. 교과서를 개발하는 출판사나 해당 기관에서 외형체제를 결정하도록 자율권을 부여했다는 느낌이 크게 와 닿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발되는 모든 교과서는 외형체제가 자율화되어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가 개발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했다. 또한 수학 교과서에 도입된 스토리텔링은 교과를 실생활에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교과서의 내용 구성 측면에서도 선진화된 노력들을 보여주었다.

현재 필자도 2학년 담임으로 실험용 국어, 수학 교과용 도서를 적용하여 검토하고 있으며, 한 학기 동안 검토한 결과 새 교과서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의 능력과 흥미에 부합하는 교과서로 편찬하기 위해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학습 재제를 선정하고 교수·학습 활동을 구안하였다는 점이다. 학생들의 학습 양식이나 흥미, 관심 등을 반영하기 위해 최대한 학생들이 실제 삶에서 접하게 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재제를 선정하고, 교실에서 배운 지식이나 기능 등이 실제 학생들의 삶에서 활용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어 적합성을 높이려고 노력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창의성과 인성을 함양하는 교과서로 개발하려는 의지가 돋보였다. 학생들의 창의적인 사고를 유발하기 위하여 지식이나 개념을 주입하지 않고 학생이 탐구하고 발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제재나 활동면에서 교육적으로 가치가 높은 것을 수록함으로써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도록 교육과정의 개정 중점 구현에 노력하였다.

셋째,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교과서 개발에 역점을 두었다.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학습 방법, 문제 해결 방법을 적극적으로 안내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번 실험본 교과서에서는 학습 방법 안내 기능을 적극 강화하기 위하여 교수·학습의 과정에서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이나 개념, 원리 등을 설명하고, 학습의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학습의 과정을 따라가면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각종

학습 도우미 장치를 활용하여 학습을 친절하게 안내해 줌으로써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배려하였다.

넷째, 외형체제나 디자인의 변화로 매력적인 교과서 만들기에 노력하였다. 외형체제, 삽화 및 편집 체제 등에서 학생들에게 매력적인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 삽화의 유형 면에서 학습 활동의 성격을 고려하여 사진, 만화, 수채화, 유화, 콜라주, 컴퓨터 그래픽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하였고, 글 제시 방식도 다양화하였으며,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한 스티커나 낱말 카드 등을 ‘부록’ 자료로 제공하여 참신한 변화를 도모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늘 교육과정이 발표된 뒤에 교과서를 개발하는데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다. 시간의 부족은 충분한 연구와 집필, 검토, 그리고 제작을 어렵게 만든다. 새 교육과정에 의한 실험용 교과서를 수업에 적용하면서 이번 교과서도 집필과 검토, 수정에 시간이 부족했다는 아쉬움을 느낄 수 있었다.

학교 현장에서 교과서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본교 역시 학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가정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흔히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구현하는 하나의 자료일 뿐이라고 하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가정 돌봄 기능이 약한 지역일수록 대부분의 수업이 교과서 중심으로 진행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는 학년군·교과군 운영, 창의·인성교육, 핵심역량의 반영, 교실수업방법 개선 등 교육과정의 개선 관점이나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하면서도 학교 현장의 교육과정 자율화에 따른 특성화된 교육을 보장해야 한다. 교과서가 학습량이나 학습 활동의 범위 등을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최적의 교수 학습 자료로서 가치를 지닐 수 있도록 더욱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교과서의 수요자는 학생과 교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요자인 학생과 교사를 위한 것인가?’가 바람직한 교과서상의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된다고 본다. 내용구성과 수준이 교육현장에서 배우고 가르치기에 적절하도록 먼저 학생을 배려하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배우는 학생의 눈높이에 맞추어 학생에게 친숙한 소재이고 공감되는 전달 방법인지 고민하여, 친숙한 소재를 학생의 언어와 문화로 기술해야 하며, 참고서가 필요 없는 교과서가 되었으면 한다. 다음은 교사를 위한 배려이다. 교과서를 현장에서 전달하는 주요 통로는 교사의 교수활동이기 때문이다. 학생을 수업으로 유인하여 학습자가 흥미를 느끼고, 학습과제에 몰입시키는 재미있는 학습활동 요소가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가르친 후에는 평가하여 피드백할 수 있는 장치를 두면 좋겠다.

그런 관점에서 ‘현장에서 바라는 좋은 교과서는 어떤 교과서인가?’ 흔히 하는 말로 학습자나 교사에게 ‘쉽고 재미있고 친근한 교과서’가 좋은 교과서일 것이다. 그러면 학교 현장에서 바라는 ‘쉽고 재미있고 친근한 교과서’의 모습을 소박하게 정리해 보면 첫째, 교육과정에 제시된 학습목표와 내용이 잘 구현되도록 단원을 구성하되, 제한된 수업시간 수에 적절한 학습량이었으면 좋겠다. 둘째, 학습 제재가 학생 스스로 사고하고 다양한 문제 접근 방식을 찾아낼 수 있고 이를 적용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내용으로 선정되었으면 좋겠다. 셋째, 학습활동 단계가 유기적이어서 지루하지 않게 체계화되었으면 좋겠다. 넷째, 학생들이 교과서를 읽고 세상을 접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배우는 과정을 담은 교과서이길 바란다. 학생 스스로 체험하고 반성하는 과정을 담을 수 있는 교과서였으면 좋겠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선보인 실험용 교과서가 더 좋은 정본 교과서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학습자 중심의 다양하고 질 높은 교과서, 이해하기 쉽고 활용하기 편리한 교과서는 학생만큼이나 교사도 원하는 교과서이다. 하지만 이는 현장경험이 많은 집필진에게도 많은 시간을 요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2013년도에 보급될 국정교과서는 교과서를 사용하는 교사와 학습자, 그리고 집필자와 제작자들이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일정에 쫓기지 않고 충분히 검토·수정하여 오류 없는, 재미있는, 쉽지만 알찬 교과서로 제작되어 기존의 교과서의 틀을 과감히 깨고 참신하고 아름다운, 친절한 교과서로 태어나길 기대해 본다. 




현.장.교.육.

학교 폭력, 다시 생각해보기



지난해 연말 한 중학생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을 만큼 학교 폭력 문제는 우리 교육계의 최대 관심사가 되었고, 무엇보다 우선적인 과제의 하나가 되어왔다. 교육계 내외의 비난과 비판, 평가가 이어졌고 해결방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도 제시되어 왔으며, 정부에서는 이 문제의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지에서는 교실수업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해보고, 현실적으로 전 교과를 대상으로 논의하기는 어려우므로 우선 도덕, 체육, 음악 교과 수업은 어떻게 전개되어야 할지 바람직한 제안을 예시해 보고자 하였다. 

교실 수업 변화, 학교 폭력에 대한 간접적이지만 근본적인 대책



이 혁 규

청주교육대학교 교수

1. 학교 폭력 대책에서 결여되어 있는 것

민주화의 진전으로 국가 폭력이나 인권 침해와 같은 폭력적인 분위기가 과거에 비해 일정 정도 퇴조하였음에도 학생들 간의 폭력 문제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한 중학생의 투신자살을 계기로 한국 학교 전체는 학교 폭력에 대한 실태 조사에서부터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시행하는 일로 계속해서 바쁘다. 지난 2월에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되었다. 여기에는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과 책임 강화, 신고·조사체계 개선 및 가·피해 학생 조치 강화, 또래활동 등 예방교육 확대, 교육 전반에 인성교육 실천 등 여러 가지 조치들이 망라되어 있다. 특히 일진 경보제 도입,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설치, 가해 학생에 대한 엄격한 조치,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체육 시간의 확대 등이 눈에 띈다. 그런데 이 대책이 시행된 지 6개월이 경과하고 있지만 학교 폭력이 의미 있게 줄어들고 있는지 확인하기는 어렵다. 아니 짧은 기간에 학교 폭력 빈도가 줄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너무 조급한 발상인지도 모른다!

학교 폭력 대책의 실효성과는 별개로 이 대책의 몇몇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학생 폭력 가해자의 가해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대학 입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거나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위험이 감지되면 일진 경보를 작동시키도록 하는 조치에 대해 학생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고 학교 폭력을 일종의 사법적 관리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한계는 학교 폭력 대책이 학교 폭력 사안 자체만을 문제적 이슈로 설정하다 보니 학생들의 인성 형성과 밀접한 관련을 지닐 수밖에 없는 입시 위주의 학교 풍토나 경쟁위주의 수업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은 상대적으로 등한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실 수업을 포함한 학교의 문화적 풍토는 학생들의 인성이 형성되는 토양이라는 점에서 그 개선을 논하는 것은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한 간접적인 것 같지만 근원적인 대책에 접근하는 것이다. 예컨대, '배움이 실천으로 연결되는 프로젝트형 인성교육 실시'와 같은 항목은 학교 폭력 대책에 열거되는 수많은 항목 중에 하나이기보다는 학교의 문화적 풍토를 바꾸는 좀 더 본질적인 처방에 가깝다. 이 같이 학교의 문화적 생태계를 바꾸는 것에 관련되는 장기적인 처방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근본적으로 문제시되는 것은 역시 개인적이고 경쟁적이며 입시 도구화된 교실 수업 양태이며 학교 문화 풍토이다.

2. 개인주의적이고 경쟁적인 교실 수업의 문제

교실 수업을 통해서 지식이 전달될 뿐 아니라 학생들의 인격 또한 계속적으로 형성된다는 점에서 한국의 일상적 교실 수업 실천이 학생들을 어떤 존재로 사회화시키는지를 살펴보고 그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학교 폭력에 대한 장기적이면서도 근본적인 대책의 하나이다. 그와 관련하여 다음 글을 한 번 살펴보자.

내가 들었던 모든 수업은 거의 예외 없이 단 한 사람 - 교사의 활동과 권위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나를 비롯한 다른 학생들은 그저 실재에 대한 교사의 보고를 가만히 듣거나, 교사가 선택하여 숙제로 내준 다른 권위자들의 보고서들을 읽었을 뿐이다. 우리의 임무는 그러한 보고서를 암기해서 시험 때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개인적 참여는 교사에게 강의 내용이나 읽는 책에 대해 질문하고 대답을 암기하는 것이 전부였다. 토의 시간이 주어지는 수업도 있었지만, 내가 선생님을 가르칠 수도 있다는 아니 동료 학생들이라도 가르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은 거의 없다. 사실 그렇게 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 적도 거의 없다. 교실은 독창적인 탐구를 위한 장소가 아니라 권위자를 모방하는 자리였고, 협동의 장소가 아니라 학습자들 간의 경쟁의 장소였다.

학창시절에 자신이 경험한 수업을 회고하는 글이다 아마도 한국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와 유사한 수업 경험을 여전히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은가? 이 글이 누구의 글이라고 생각하는가? 놀랍게도 이 글은 한국 학생의 글이 아니라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교육학자 파커 팔머가 <가르침과 배움의 영상>에서 자기의 학창 시절을 회상하는 내용이다. 미국 교실의 경험이 한국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바와 놀랍게 유사하다는 게 흥미롭다.

그런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놀랄만한 일도 아니다.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현대 공교육 체제는 우리의 발명품이 아니지 않는가? 그것은 서양에서 수입된 모델이다. 표준적인 지식을 교과서에 담아서 권위적인 교사가 모든 학생에게 전달하는 교육은 서양 교육과 같은 우리 전통 교육에서는 찾기 드물었다. 그리고 이런 교육 체제는 이것이 발명될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한다. 간단히 말해 지금의 학교는 일종의 산업주의적 모델에 기반해 있다. 그래서 학교를 지칭하는 가장 빈번한 은유는 '학교는 공장'이라는 은유이다. 학교장은 공장장, 교사는 기능공, 학생들은 표준화된 컨베이어 벨트 위에 놓여 이런저런 공정을 거쳐서 표준화된 상품으로 제조되어야 할 재료로 간주되었다. 이런 은유에 터한 학교에서 학생들은 권위에 순종하며 순

응적이며 경쟁적인 인격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학교가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인격을 길러낸 것은 산업화 시대에 요구되던 노동력의 성격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런데 시대가 변화하면서 이런 교실 수업의 전통적 이미지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변화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학교 교실을 방문하여 교실 수업의 변화를 관찰하였다는 일본 동경대학의 사토 마나부는 <교육개혁을 디자인한다>는 책에서 변화하고 있는 세계 교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 적이 있다.

일본의 교실만 보고 있으면 알아차리기 힘들지만, 지난 30년간 세계 여러 나라의 교실은 조금씩 변모하고 있다. 이제 많은 나라들에서 초등학교 교실은 물론 중등 교육 단계의 교실에서도 분필과 교과서로 진행하는 수업, 칠판과 교탁을 앞에 두고 한 방향으로 책상과 의자를 줄지어 늘어놓은 풍경은 박물관 자료실에서나 볼 수 있다. 새로운 교실에서는 20여 명의 학생들이 몇 개의 탁자에서 협동작업을 통해 서로 배우고 있다. 수업은 일제 수업이 아니라 주제를 중심으로 탐구하는 단원 학습으로 조직되어 있고 많은 자료가 활용되고 있으며, 교과서는 이제 자료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수업에서 학생들 전원에게 설명하는 장면도 볼 수 있지만 그럴 경우 교실 한 편의 양탄자에 원을 그리고 모여 앉는다. 거기서도 협동적인 탐구가 기본이 된다.

사토 마나부의 관찰에 의하면 경쟁에 기반한 일방적인 지식 전달 위주의 수업은 적어도 1970년대부터 바뀌기 시작하였다. 많은 나라에서 이제 그런 수업은 박물관 자료실에서나 볼 수 있다. 그러나 유독 동아시아의 국가들에서만 망라적인 지식과 기능을 암기 중심으로 전달하며 경쟁에 의해 동기를 부여 받는 개인주의적인 수업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사토 마나부는 개탄한다. 아마도 이런 수업이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곳이 한국 교실일 것이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고 협력보다 경쟁이 지배하며,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사고를 촉진하기보다는 경직된 정답을 암기하는 교육이 극단화되어 있는 곳에서 학생들이 약자를 돌아보며, 정의와 공정에 대한 의식을 지니고

자신과 다른 타자를 배려하는 인격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은 애당초 무리가 아닐까?


3. 교실 수업의 변화, 학교 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학교 폭력도 많은 경우 이런 비인간적이며 경쟁적인 문화 풍토 속에서 피어나는 독버섯일 게다. 따라서 학교 폭력에 대한 대책을 논하면서 일상적인 학교 수업 실천을 성찰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우회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런데 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은 매우 불행하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타율적인 공부를 강요당하며, 교사와 학생 간에 의미 있는 소통은 드물게 일어나고 학생들 사이에도 경쟁이 지배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교사와 학생도 수업의 주인이 아니다. 각종 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세계에서 최장 시간을 가장 재미없는 공부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병들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것이 아닌가?

따라서 현재의 무기력하거나 이기적이거나 때로 폭력적인 학생들의 모습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교실 수업에서 현재와는 다른 경험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주의의 모델에 따라서 설계된 학교와 교실 수업을 전혀 새로운 상상력 하에 재구축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새로운 상상력을 얻기 위해서 세계적 석학자 제러미 리프킨의 말을 잠시 빌어보자. <엔트로피>, <노동의 종말>, <공감의 시대> 등 시대를 통찰하는 명저를 출간해 온 리프킨은 최근 <제 3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에 대한 상상력을 펼쳐 보이고 있다. 석탄으로 인한 1차 산업 혁명, 석유로 인한 2차 산업 혁명의 시대는 종언을 고하고 녹색 재생 에너지에 기반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며 그 때는 사람들이 삶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그는 학교 교실 수업의 양태도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가 내다보는 미래의 교실 모습은 '수평적 학습'이 보편화된 교실이다. 여기서 수평적인 학습이란 교사가 유일한 정답을 장악하고 있는 근대의 교실과는 다른 학습 양태를 말한다. 그는 수평적인 학습에 대해서 다음같이 언급하고 있다.

분산적이고 협업적인 교육의 토대는 바로 사람들이 함께 사고하면 각자의 경험이 한데 모여서 혼자서 사고할 때보다 원하는 결과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다. (중략) 수평적 학습은 학습의 본질과 관련해 완전히 다른 가정에서 출발한다. 지식은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현상이 아니라 사람들이 공유하는 공통의 경험에 대한 설명이다. 진리를 탐구하는 것은 모든 사물과 현상이 연관되어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며 우리는 타인과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그러한 관계를 발견할 수 있다. (중략) 지식이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고 공유된 경험에서 나오는 무엇인가라면, 현재 만들어져 있는 교육과정은 진정한 학습에 방해물이 된다. 기존의 학교 교육은 대개 자극-반응 프로세스의 반복에 불과하다. 학생들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지시에 마치 로봇처럼 반응하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과학적 경영의 표준 운영 절차가 1차, 2차 산업 혁명의 노동자를 만들어 냈던 상황과 유사하다.

많은 교육학자들과 마찬가지로 리프킨도 산업주의적 모델을 넘어서서는 새로운 교육을 옹호하고 있다. 정답으로서의 지식을 수동적으로 학습하는 대신에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상호 협력하도록 수업을 조직한다면 학생들은 동료와 세상을 대하는 새로운 방식을 배우게 될 것이다. 친구들을 잠재적인 경쟁자거나 괴롭히고 학대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더불어 공존하고 함께 성장해야 할 존재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다. 사물과 세상이 함께 연결되어 있으며 함께 하는 협력적 경험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도록 교실 수업이 바뀐다면 학교 폭력 문제도 중국에는 해결되지 않을까?!

물론 교실 수업의 변화가 학교 폭력 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처방은 아니다. 그리고 교실 수업의 양태가 바뀐다고 모든 학교 폭력이 다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자신과 타인과 세상을 대하는 방식을 근본에서부터 바꾸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많은 학교 폭력에 관한 불행한 뉴스들을 계속 접할 것이다. 교실 수업 실천을 바꾸는 것! 그것은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한 긴 호흡을 가진 근본적인 처방이다. 이를 위해서는 박물관이나 가야 할 우리의 낡은 수업 관행을 근본에서 성찰하는 시급하면서 절실한 노력이 요구된다. 

학교폭력예방교육에서, 평화감수성교육으로 전환하기



박 숙 영¹⁾
수내중학교 교사

도덕교과와 사회교과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다.

한국에서 태어나 자라는 청소년이라면, 도덕교과와 사회교과를 10년 동안 배우게 된다. 많이 배울수록 실력이 늘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 도덕교과와 사회교과도 배우면 배울수록 도덕적인 인격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될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이 인정하듯이 우리 사회는 거짓말과 욕설, 폭력적 행동이 심해지고 있고, 공동체 질서를 존중하는 준법정신보다는 법을 어기고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부조리한 현상들이 늘어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도덕교육과 사회교육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학교폭력과 같은 현상들은 우리 교육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우리의 교육적 노력에 대한 성적표이다. 이제 교육에 대해 솔직하고 겸손한, 그리고 전면적인 점검과 반성을 해야 할 때이다. 그리고 본질에서 너무 벗어나 버린 교육을 다시 되돌려 놓기 위해 우리 사회가, 정부가, 학교가, 교사가, 학부모가, 학생이, 서로의 책임을 인정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때이다.

이 원고에서는 학교현장에서 도덕교과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로서 도덕 교과의 내용을 중심으로 문제점과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1. 이상과 현실의 괴리

1) 교육의 꿈과 이상 : 교과목표와 교과교육과정의 내용

도덕과 교과목표²⁾는 다음과 같다.

“자신과 우리·타인, 사회·국가·지구공동체, 자연·초월적 존재와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의 삶에 필요한 도덕규범과 예절을 익히며,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도덕문제에 대한 민감성을 기르고 도덕적 사고력과 판단력, 도덕적 정서, 실천 의지 및 능력을 통해 도덕적 덕성을 함양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율적이고 통합적인 인격을 형성한다.”

그리고, 도덕과 교육과정 내용체계에는 이미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 관련한 내용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관련내용	2007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내용요소
우정 및 갈등 해결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학년 : 친구 간 우정과 예절 • 5학년 : 대화와 갈등 해결 • 7학년 : 친구와 우정의 의미 • 8학년 : 평화적 해결과 폭력예방

2) 현장 이야기 : 학교와 교실현장에서의 도덕과 수업

그러나, 이러한 교육과정의 꿈과 이상과는 달리, 현

1) 좋은교사운동 교육실천위원장

2)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14호 [별책6]

3) 2007 개정교육과정 해설서

실에서 학생들은 친구 간에 우정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고,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친구를 때려서 상처를 입혀도 미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를 더욱 비난하며, 잘못을 들이지 않기 위해 협박을 스스로없이 한다. 누군가 왕따를 당하는 모습을 보면, 그 행동에 동조하거나 방관자가 되기를 선택한다. 도덕시간은 아이들에게 고리타분한 설교시간으로 취급되면서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 도덕교사는 예의없고, 양심없는 학생들을 질타하고 훈계하지만, 학생들은 그 소리에 귀를 닫아 버린다. 학생들이 도덕교과를 공부하는 이유는 좋은 성적이 필요해서이지 그것이 학생들의 삶에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다.

2. 도덕교과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유

도덕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교육적 성과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많은 이유와 원인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여기에서는 도덕 교과서를 중심으로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중2 도덕교과서 <청소년과 도덕>의 '평화적 해결과 폭력예방'의 단원을 선택하였다.

1) 중2 도덕교과서 <청소년과 도덕> 교육과정 해설서

학교폭력을 가장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단원인 <청소년과 도덕> 교육과정 해설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II. 청소년과 도덕³⁾

2. 평화적 해결과 폭력예방

갈등에 폭력적으로 대처했을 때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폭력을 예방하고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태도를 지닌다. 이를 위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폭력 사례와 폭력이 초래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한다.

- ① 갈등 사례와 갈등 증폭의 이유 ② 폭력을 행사한 사례들과 문제점
③ 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법 ④ 대화와 협상 등 평화적인 문제 해결의 방법

중2 교과서는 모두 6종이며, 그 중에 3개의 교재를 선택하여 내용과 진술구조를 분석해보았다.

	A교재	B교재	C교재
핵심 주제	갈등의 이해 → 폭력의 의미와 종류 → 평화적 해결 방안		
문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갈등원인 : 자원부족, 신념·종교·문화 차이, 상이한 해석, 불신오해 폭력유형 : 개인적-집단적, 물리적-구조적, 행위-부작위 학교폭력 체크리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갈등원인 : 잘못된 의사소통, 이해관계·가치관 차이 폭력의 종류, 폭력의 문제점, 학교폭력 체크리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갈등원인 : 가치·이해관계·적응력 차이, 환경·문화와 종교 신념 차이, 의사소통의 부족 폭력의 의미, 종류, 문제점 대처방안 : 불의에 저항, 도움 주기, 구성원의 노력
평화적 해결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의 인격 수양 : 올바른 인성, 역지사지, 자연존중 사회적인 협력과 제도 : 학급회, 학생회, 상담기관 평화적인 문화 : 평화적 해결, 관용, 토론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폭력대처법 : 상담, 폭력예방프로그램, 바른 언어, 사회제도적 지원. 평화적 해결방안 : 역지사지, 관용, 대화와 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성적 자세, 역지사지, 관용의 정신, 합의된 결과에 수긍하는 자세, 의사 표현 자세 대화와 토론, 양보와 타협, 다수결

교재의 대부분은 갈등의 다양한 원인을 서두에 다루고 있으며, 갈등을 부정적인 면과 더불어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위한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단원의 가장 핵심적 내용은 폭력의 의미, 폭력의 원인, 폭력의 심각성과 문제점, 폭력의 다양한 종류를

소개하는 것으로 전개되어 있다. 구체적인 폭력의 사례들과 학교폭력의 체크리스트가 실려 있어서 학생들의 일상적인 행동들 중에 어떤 내용들이 폭력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⁴⁾

구분	직접적인 괴롭힘	간접적인 괴롭힘
신체적 폭력	• 구타 및 폭행 • 침 뱉기, 물건 던지기	•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를 해치도록 시키기
언어적 폭력	• 언어적 모욕, 별명 부르기 • 헐뜯기	• 누군가를 모욕하도록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 나쁜 소문 퍼뜨리기
정서적 폭력	• 위협적인 행동(눈빛이나 몸짓) • 상대가 원하지 않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수치심을 가지게 하는 것 • 인터넷 카페나 개인 홈페이지에 헐뜯는 글을 올리는 것	• 상대의 소지품을 버리거나 감추기 • 고의적인 따돌림 • 친구를 도우려는 다른 사람의 행위를 막는 것

2) 도덕교과서의 한계와 대안

위에 제시한 도덕교과서의 내용 구성의 한계점과 그 대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겠다.

우선, 갈등을 다루는 관점을 살펴보자. 지금까지 우리는 갈등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갈등을 나쁜 것이어서, 갈등 자체를 부정하는 분위기가 된다면 우리 사회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전체주의나 독재사회에 살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갈등을 성장과 배움의 기회가 된다는 긍정적 측면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모든 교재에서는 이미 갈등의 긍정적인 면을 다루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한두 줄 정도의 설명에 그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갈등이 부정적으로 그려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갈등을 긍정적이고 협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하기에는 매우 한계가 있다.

둘째, 폭력에 초점을 둔 교재 구성이 문제이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폭력의 종류와 심각성과 구체적 사례 등등, 폭력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평화적인 방법에 대한 정보는 제대로 전해주고 있지 않다.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방안의 내용은 대부분 막연하고 원론적이며 설명식으로 전개되어 있다. 그래서 평화로운 삶의 태도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방법을 배울 수가 없다.

평화적인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세는 무엇일까?⁵⁾

첫째,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둘째,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관용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

넷째, 합의된 결과에 수긍하고 따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

평화적인 문제 해결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대화와 토론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양보와 타협이 있다. ……………또한 다수결의 원칙을 들 수 있다. …

4) 천재교육(변순용외) 중2 도덕 113쪽

5) 중앙교육진흥연구소 중2 도덕 119~124쪽


이 문제는 도덕교과가 학교폭력에 대해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적 효과를 이루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도덕교재가 ‘평화’에 초점을 두지 않고 ‘폭력’에 초점을 둔 전개방식을 선택하는 한, 평화적 삶의 태도에 대해 배울 수는 없을 것이다. 셋째, 또한 도덕교재의 전개방식이 설명문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지적 학습에 치중되어 있는 것이 문제다. 지금의 도덕교재는 학생들보다는 오히려 교사 지침용 정도로 사용하면 훌륭한 것으로 여겨진다. 도덕적 지식이 도덕적 삶으로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는 설명문식의 교재보다는 행동으로 실천하고 활동해볼 수 있는 워크북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다시 꾸는 꿈

도덕교과가 그 내용으로 볼 때 인성교육의 핵심이 되는 교과라는 것을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청소년들은 공교육을 통해 10년 동안 도덕교과를 통해 도덕적 삶의 방식을 훈련 받을 수 있다. 도덕적 삶의 방식을 위해 이제는 머리 위주의 배움이 아니라 몸 중심 배움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실재적으로 도덕적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부정적인 문제점에 집중하기보다는 긍정적인 희망에 집중하려는 시선이 중요하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많은 교재와

프로그램들이 폭력의 종류와 심각성에 집중하는 현상은 오히려 폭력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줄 뿐, 정작 폭력을 해결하고 평화적으로 살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정보 외에는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

폭력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폭력이란 무엇인가?의 질문에서 평화란 무엇인가?로 질문이 전환되고, 평화라는 희망에 대해 많은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덕과 교재도 설명문식이 아니라 워크북으로 구성되어서 교사 주도적인 수동적 수업이 아닌, 학생 주도적·활동적·참여적 수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최근 SEL의 수업 방식이 주목받고 있는데, 이 방식은 원으로 둘러앉아 그룹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독특한 학습 구조 형태로, ‘자기 인식의 발전’, ‘내적 긍정적 자원의 활용’, ‘타자와의 관계 맺기에 대한 사회적 기술 익히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수업 방식이다. 참여자의 경험과 정서적 발전과 돌봄을 실천하는 데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인정받고 있기도 하다. 도덕과 수업의 방식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방식에서 탈피하여 학생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서로의 배움에 기여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

우리의 교육이 학교폭력으로 얼룩져 무너지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 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무력한 교육적 상황에서, 이제 도덕교과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에서 평화감수성교육으로 전환되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다양한 배움의 방식에 대한 관심과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체육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조 호 제*

서울버들초등학교 교사



□ 체육교육 변화의 필요성

「What Knowledge Is Most Worth?」라는 질문과 대답을 통하여 학교교육에서 건강과 체육을 가장 강조한 이는 스펜서(H. Spencer)였다. 그는 인간이 온전한 생활(complete living)을 하는 데 있어 직접적 자기 보존에 유용한 것으로 건강, 보건, 위생, 생명과 직결된 과학적 지식을 들었다. 이 과학적 지식은 오늘날 체육교육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체육은 인지적·심동적·정의적 측면을 가장 조화롭게 교육하는 교과이다. 이는 머리 공부뿐만 아니라 손발 공부, 온몸 공부를 통하여 생활에서의 직접 경험(direct experience)과 실천력(competency)이 강조되는 교과의 특성을 갖고 있다.

진보주의 교육에서도 전인교육의 일부로서 체육교육을 강조하였다. 진보주의는 세계의 변화를 무시한 정적인 교육목적과 과도한 교과서 중심의 교수 방법과 교재, 개인적 경험과 사회적 실제와 유리된 교육 등의 이유를 들어 전통적인 학교교육에 반대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실제와 유리되지 않은 교육'으로서 체육교육이 학생들의 현실생활에 무엇을 제공하고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 반성할 요소를 얻는다. 스펜서(H. Spencer)와 진보주의에서 언급하는 체육교육은 실생활에 유용한 교육이었다.

교과는 그 자체의 내재적 가치를 갖기도 하지만, 교과를 학교에서 왜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가에 대한 정당화는 무엇보다 교과의 외재적 가치에서 온다. 체육은 건강을 증진하고 체력을 발달시키며 정서를 순화하고 사회성을 발달시키는 외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체육교육을 통한 인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과

관련한 사회적 정당화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항구적이며 절대적인 가치이다. 오늘날 학교 폭력, 왕따, 비만, 신체활동의 축소, 약물중독, 자살 등 초·중등 학생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사회병리 현상의 증대는 몸의 움직임을 통한 치유적 기능으로서 체육교육의 확대 강화를 요청하는 부분이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체육교육은 지·덕·체를 고르게 발달시켜 학생을 균형있게 성장시켜주는 데 가장 적절한 교과로 최근, 국가와 사회적 요청에 의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개를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 오늘날 초·중등 학생의 자화상

지금의 초·중등 학생들 다수가 학교생활에 만족감이나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그 자화상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 아니다. 가령, 2012년 통계청이 발표한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신체건강과 정신 건강은 과거에 비해 나빠져 있다. 또한, 스포츠 단체 참가 활동 비율을 보면 스위스52.9%, 노르웨이47.25%, 캐나다39.8%, 미국31%, 이탈리아22.4%, 한국9.2%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사회 공동체 활동 참가율²⁾도 미흡한데 16~24세의 비율이 미국21.4%, 스위스6.1%, 노르웨이5.8%, 이탈리아4.6%, 한국0.7%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생들의 스트레스의 증가와 자살률의 증가³⁾, 삶에 대한 만족도 하락도 심각한 상황이다. 초·중등생과 대학생의 자살 현황을 보면 학생의 자살률이 OECD 표준인구 10만명당 28.4명으로 세계 1위이며 이 가운데 가정불화(31.8%), 염세 비관(18.4%), 성적 비관(11.54%)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9년에는 10대 자살률이 40.7%나 증가하면서 전체 청소년 사망 원인 중에서 '자살'이 1순위가 됐다. 2008년 이전까

지만 해도 10대 사망원인 1위는 '교통사고' 였는데, 이제 2010년과 2011년 연속해서 자살이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통계청은 그 원인을 유명인들의 자살에 따른 영향(이른바 베르테르 효과)과 학업 등에 대한 스트레스라고 분석했다. 매우 낮은 행복지수^{*)}도 미래 지향적인 체육교육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 것인지를 시사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와 한국방정환재단이 발표한 '2011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에 따르면, 주관적 행복지수가 조사대상 23개국 가운데 1위 스페인(113.6), 2위 그리스(112.5), 3위 네덜란드(110.3)에 이어 우리나라(65.9)는 23위를 차지하였다. 2010년에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은 '삶에 만족하는가?'란 질문에 53.9%만 '그렇다'고 응답해 조사대상 26개국 가운데서 꼴찌 수준이었다. 또한, '행복을 위해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돈'이라고 답하는 비율이 증가했는데, 고교 3학년에 이르면 '돈'이라고 응답한 학생 비율(28%)이 '가족'이라 답한 비율(22%)을 넘어 가장 높았다.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슬픈 초상이다.

□ 체육교육과 인성교육

한편, 최근 범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되어 있는 학교 폭력의 실상을 파헤쳐 살펴보면 그 심각성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피해학생 중 53.6%가 초등학교 때 학교폭력을 경험하고 있으며 가해 학생의 58.0%가 초등학교 때 가해한 경험을 갖고 있다. 특히, 중학교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건수 가운데 69%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학교 폭력의 성격도 단순한 신체적 폭력을 넘어 언어적, 정신적 폭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폭력으로 지어진 이름만 해도 다양하다. 또한, 학교폭력은 '일진' 등 집단화 경향을 보이고 있고 학교내에서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 혹자는 이러한 원인으로 입시중심의 교육을 지목하고 있다. 학교 교육과정의 내용이 지식중

심, 학문중심이다 보니 학교교육 내용이 학생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이다. 결국, 인성교육을 통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과 체험활동 중심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행스럽게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체·덕·지의 전인적 성장을 기반으로 초·중·고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된 '인성 함양'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학교급별 교육목표를 개선하고, 국어, 도덕, 사회 교과와 학습 내용을 '지식 전달 중심'에서 '체험·실천 중심'으로 보완 하겠다고 발표하였다.⁴⁾

대다수의 학생들은 체육교과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다. 그것은 학업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고 자신의 욕구를 한껏 발산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고 학생들에게 지식을 습득시키기보다는 자신의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활동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부버(M. Buber)가 '교육이라고 부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본질적으로 인성 교육이다'라고 하였듯이 인성교육은 모든 교과를 통하여 가능하다. 특히, 체육교육은 신체활동을 하는 가운데 긍정적인 상호관계를 형성시키는 데 용이하기 때문에 인성교육의 효과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최적의 교과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스포츠는 인성을 발달시킨다. 달리는 기분을 좋게 한다. 수업 중에 정정 당당히 게임을 하면 인생에서도 그리할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체육교육을 통한 신체활동은 개개인의 운동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친구와 함께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친구와 협력하며 활동을 하는 가운데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고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덕목도 배울 수 있다. 여기서 인성교육의 요체는 '사회적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즉, 나와 타인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형성시킬 줄 아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다. 체육교육을 통하여 책임있는 행동을 하는 태도를 기르며, 타인의 권리와 감정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길러 이를 체육 수업 밖으로 전이시키는 결과는 일상생활에서 올바른 친구관계를 형성시키는 역할의 본보기가 되는 것이다. 타인과 함

* 서울초등수석교사회 부회장

1) 출처 : 김기현(2009), 아동·청소년의 생활 패턴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 출처 : <http://www.ohmynews.com>, 2011년 4월 11일, 인터넷 뉴스.

3) 출처 :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2010), 2010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4) 인성교육을 강화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2012. 7. 9)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을 통해 학교 폭력을 미연에 방지·대응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일부 개정하였다.

게 하는 체육수업은 짧은 시간에 일체감을 형성시켜 동질의식을 갖는 좋은 방법이 된다. 그러나 체육수업에 참여만 하게 되면 저절로 올바른 사회적 관계를 형성시키는데 필요한 덕목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스포츠 활동은 동료와 힘을 합해 더불어 하듯이 동료와의 협력을 통해 협동심을 기르고, 스포츠 규칙을 지키듯 스포츠 밖에서 지켜야 하는 생활 규칙으로 전이시켜 상대방과 자신의 소중함을 이해할 수 있는 학생을 길러내야 한다는 것이다.

□ 인성교육을 위한 체육교육의 방향


체육교육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교사는 먼저, 시대적 요구에 적절하게 교육과정을 실행할 수 있는 문해력을 가져야 한다. 교육과정학자 위커(D. Walker)는 '교사와 학생이 학교 놀이터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이야기한다면 이는 교육과정의 일부가 된다고 하였다. 또한, 교사가 연간 계획표를 세우고 가르칠 내용을 결정하고, 가르칠 시간을 배당하고 가르칠 순서를 정할 때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체육교사는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기본 정신의 틀을 벗어나지 않은 가운데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배경으로 학생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재구성하여 교수를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수업을 전개하는 방식은 개인운동보다 단체운동, 경쟁보다 협력과 협동을 강조하는 체육교육이 필요하다. '나' 보다는 '우리'를 강조하여 상호간 일체감을 형성시켜 주고 지나친 경쟁은 지양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체육교육을 통하여 기를 수 있는 인성교육 요소는 다양하다. 그 가운데 첫째는 협동심이다. 체육교육과정에서는 협동적 구조를 가진 게임에 참여하거나 단체 활동에서 상호작용을 통하여 협동심을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다. 둘째, 개인적, 사회적 책임감이다. 집단 따돌림, 소외현상, 지나친 이기주의 등을 책임감을 기르는 체육 수업을 통하여 타인존중, 배려심 등을 형성시킬 수 있다. 셋째, 스포츠맨십이다. 체육 교육을 통하여 규칙 준수, 페어플레이 정신, 최선의 행동, 판정 승복, 팀 정신 등을 기를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성교육의 요소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궁극적으로 인성교육의 성격을 타인에 대한 사회적 관계로 집약된다.

체육교육을 통하여 인성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위

해서는 인성적 내용을 인성적 방법으로 가르쳐 올바른 마음을 형성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교사는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반성하는 과정에서 인성교육 요소를 늘 고려하여 학습과정에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경험시켜야 할 인성교육 요소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따라서 학습자 경험을 분석하는 작업은 교수설계에서 선행되어야 한다. 즉, 누구를, 무엇으로,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교수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학습자에 대한 이해는 교수조건을 이해하는 것이 된다.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교수방법이 동원될 때 교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체육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에는 체육 교사의 부단한 노력과 성찰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 인성교육을 위한 제언

지금은 저출산 시대이다. 우수한 인적자원을 국가 발전의 동력으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는 초·중등 학생 하나하나가 소중한 존재이다. 이들은 누구나 자신의 삶에 만족감을 느끼며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고 또한, 그러한 환경을 조성해줘야 하는 것이 기성세대의 몫이다. 요즘의 초·중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표되는 각종 지표는 아쉽게도 긍정적인 것이 별로 없다. 그 예가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공부에 짓눌린 생활로 행복감, 높은 자살률, 공동체 생활의 미흡 등 그 분야도 다양하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종합적인 합병증으로 발전된다면 국가적으로도 그 손실은 막대할 것이다. 위험에 익숙할 때 가장 위험하다는 말이 있다. 교사는 수업에 익숙해져 있어 한 시간 한 시간 수업의 소중함 잊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활동에서 단 한 시간이라도 인성교육을 소홀히 다룰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지금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실되는 기회학습의 유실은 마치 어린아이에게 때에 맞춰 적절하게 가르쳐야 하는 올바른 버릇을 성인이 되어서 가르치려는 결과와 비슷할 수 있다. 이제 체육교육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오늘날 초·중등 학생들에게 스펜서(H. Spencer)가 말한 진정으로 자기 보존에 유용한 교육내용이 무엇이고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음악활동을 통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만들기

이 경 희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음악교사



들어가는 말

올해 초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2012.02.06)’을 발표하여 학교에 필요한 다양한 폭력 근절 대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학생 인권을 존중하여 비폭력평화교육,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학생 스스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학생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 폭력을 주제로 한 토의 및 토론회, 학생회와 학급회 활동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활동, 친구사랑주간 운영, 비폭력 평화학교 만들기 서약, 규칙 스스로 만들고 실천하기, 또래 조정상담(Peer Mediation Counselling) 학생 운영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학교생활에 있어서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참여의식을 높임으로써 학생 스스로가 학교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학교가 행복하고 즐거운 공간이 되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고 할 수 있겠다.

● 학생이 주도하는 문화

이러한 목적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음악교육의 활성화를 강조하고 싶다. 왜냐하면 음악교과는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해 심신을 안정시키고 조화로운 인성교육을 최상의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기집중이수제의 입시위주 현실에서 음악교과의 역할이 제한적이므로, 학교에서 학생자치회가 주관하는

다양한 음악활동을 촉진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개성을 표출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신의 인권을 존중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정서적 공감의 기회를 만들도록 지원해야 한다. 더불어, 학교교육과정에 의한 음악수업시간에도 학생들의 음악선호도를 존중하고 다양한 음악문화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공동체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여 나눔과 소통의 음악문화를 형성하도록 학습내용이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음악활동에 대한 다양한 연구 및 보고를 살펴보면, 상당수의 학생들이 대중음악에 관심이 편중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이 선호하는 대중음악의 가사만 보더라도,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음을 쉽게 발견하게 되는데, 문제는 청소년이 이러한 자극적인 메시지에 일상적으로 노출되고 있으나 건전한 음악문화의 부재로 청소년의 인성발달과 사회적 관계 형성에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지도가 시급한 실정이다.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음악현상에 대한 관심을 고양하고 타인과의 즐거운 소통 도구로 음악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음악 애호가를 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으며, 학생의 음악 선호도를 존중하고, 음악의 역할과 가치를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서 음악 애호가를 만드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목표가 학생자치활동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학생이 중심이 되는 주도적인

학생활동으로 표현된다면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또한 문·예·체 활동을 통한 정서적 공감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동아리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다양한 발표의 장을 마련하고 있어서 이 또한 학교문화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와 같은 방안

들은 폭력 없는 학교문화로의 바람직한 변화를 모색하기 위하여 활발히 실행에 옮겨져야 한다. 이를 위해 학생자치회가 주관하는 다양한 음악활동, 음악수업시간의 공동체 활동, 음악관련 동아리반의 문화예술활동 등 세 분야로 구분하여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사례 발표]

A. 학생자치회가 주관하는 음악활동

활 동	활동 내용
아침 음악문화방송	학생자치회와 방송반의 주최로 학생들의 정서와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주제를 정하여 주 1회에서 3회의 음악방송을 실시한다. 학생자치회가 다양한 의견수렴을 한 후, 주제를 선정하여, EBS 2분 명상, 유명인사의 훈화자료, 학교교사의 훈화 등을 음악과 함께 편집하여 진행한다. 상쾌한 아침을 시작으로 건강하고 안정적인 학습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다.
학생자치조회 (작은 음악회)	학교생활과 관련된 각종 설문과 의견 수렴의 과정을 통해 자치조회의 주제를 정하고, 사회자, 음악(연주단)담당, 방송담당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학생의 의사가 자율적으로 전달되는 소통의 장으로 활용한다. 작은 음악회, 코스프레 등 창의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실시한다.
(수요) 음악회	학기 초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 10분은 음악발표의 시간으로 운영함을 안내하고, 참가신청자는 연주 장르와 곡목, 원하는 일자를 선택하여 학생들 앞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한다. 클래식과 대중음악, 전통음악을 구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무대에 참가할 기회를 준다.
반가 부르기 대회	대위원회의 안건으로 반가를 제안한다. 학급별 특성을 살리고, 담임과 학생들의 공감대를 가진 가사를 창작하거나 개사해서 학급 반가를 만들어 매일 조종례 시간에 불러서 집중력을 높인다. 반가는 학급 구성원의 성향을 파악하고, 단합과 조화로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 효과적이다.
수련활동 장기자랑	춤과 노래 등 음악에 소질 있는 학생들의 무대를 마련한다. 학생자치회에 참가신청을 하고, 사전에 예선을 치르는 등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를 독려하여 자율적인 활동이 되도록 한다. 또래 대집단으로부터 재능을 인정받고 학교생활에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가요제	평소 가요 부르기엔 소질이 있거나 노래를 잘 하는 학생, 실용음악 보컬을 전공하는 학생 등이 가요제에 참가한다. 우수학생 시상과 함께 학교축제 공연마당에 출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축제의 공연마당	학생이 중심이 되어 주도하여 축제의 공연마당, 전시마당, 놀이마당, 체험마당 등 각 코너들의 기획하고 운영한다. 학생자치회는 충분한 학생 의견수렴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축제 프로그램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노력한다. 주변 학교와의 창조공연을 통한 재능 기부로 나눔과 소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교내음악경연대회	음악전공 학생 또는 음악에 소질이 있는 학생이 교내음악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진로와 관련하여 실기 능력 향상의 기회를 부여하고, 일반 학생들에게는 수준 높은 연주를 감상 경험을 제공한다. 학생자치회에서 기획하고 운영을 돕는다.
학급별 UCC 제작	1년 동안 학급학생들의 활동을 종합하여, 감독, 연기자, 시나리오, 음악 담당 등의 역할을 분담하여 영상자료를 제작한다. 학급 대의원과 협력하여 UCC대회를 개최한다.

● 기대효과

- 가.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로 즐거운 학교 문화 만들 수 있다.
- 나. 학생자치회의 자율성 신장 및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 다. 다양한 학교 행사의 기획 및 운영에 참여를 함으로써 학급 내의 결속력과 학생회의 자기주도력을 향상시켜서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리더십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를 키울 수 있다.

- 라. 다양한 시상제를 도입하여 학생들의 생활습관 개선을 독려하고 바람직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도록 한다.
- 마. 학생 중심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성교육과 생활지도를 통하여 요선도학생의 문제 해결 및 탈학교를 예방할 수 있다.

B. 음악수업 시간의 공동체 활동

활 동	활동 내용
소리창작 I (아카펠라)	인간의 목소리만을 활용하여 선율과 리듬, 화성을 만들어서 아름다운 화음을 표현한다. 조원의 구성, 곡목 선정, 연습일정, 연주곡 완성 등을 학생 스스로가 기획하고 실천한다. 교사는 개념을 안내하고 학생들이 아카펠라 무대를 스스로 만들도록 조력한다.
소리창작 II (기악합주)	인간의 목소리를 제외한 주변의 모든 물체와 악기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리듬과 선율, 화성 등을 완성하여 기악합주 무대를 만든다. 기악연주의 경우, 개인마다 연주 가능한 악기가 매우 다양하고 창의적인 도구를 개발해 내는 과정이 매우 흥미롭다. 조원의 구성, 곡목 선정, 연습일정, 연주곡 완성 등을 학생 스스로가 기획하고 실천한다. 교사는 개념을 안내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기악합주 무대를 만들도록 조력한다.
중창, 합창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적 선택에 의해 중창대회 및 합창대회를 실시하는데, 2성부, 3성부, 4성부 등의 합창을 실시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음을 내서 조화로운 화성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음악의 아름다움은 물론 나눔과 소통의 정서를 느낄 수 있다.
대중음악의 이해	대중음악 전성기 시대에 균형 잡힌 건강한 음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음악의 역할과 영향력 등에 대한 안내를 하고, 대중음악의 순기능 및 역기능,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한 조별 발표수업을 실시한다. 학생 스스로 주제선정, 자료수집, 발표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나도 작사가 (노래 가사 창작)	친구, 우정, 집단따돌림, 입시문제 등 청소년의 현안문제를 다룬 시(詩)나 가사를 창작하여 작사를 한다. 조별로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청소년 문제의 인식과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뮤지컬, 오페라	뮤지컬과 오페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한 후, 기존의 작품을 각색하거나, 새로운 주제를 선정하여 학생 스스로 창작하여 음악극으로 표현할 수 있다.
기악 합주	리코더 합주, 기타합주, 가야금 연주, 자유악기연주, 오케스트라 합주 등 단위학교별 음악교구 및 학생 개개인의 음악적 능력을 활용하여 중주 또는 합주로 표현한다. 방과후 및 토요일상설프로그램 등으로 연계된다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찾아가는 음악회	연주회장을 직접 찾아가거나 학교로 전문 연주자를 초대하여 전문가의 실황연주를 직접 듣고 음악의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다. 감상 후 느낌 및 소감을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다양한 음악적 사고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

● 기대 효과

- 가. 여럿이 함께하는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하여 나눔과 소통을 경험할 수 있다.
- 나. 좋아하는 음악을 소개하고 그 음악의 특징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 다. 학생들이 서로의 활동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연주력 및 감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 라. 합창, 합주 활동을 통하여 소리의 다양한 기능을 익히고, 다른 사람과의 조화를 이루어 음악의 즐거움을 공유하려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 마. 음악의 가치를 인식하고 음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음악을 활용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C. 음악관련 동아리 활동(지역사회와 연계한 문화예술체험반)

학생들이 학교에서 체험하지 못하는 다양한 예술체험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문화예술체험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하나의 주제를 보는 학생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모으고, 학생들의 내면의 생각을 예술로의 협업을 통해 사회에 표출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주제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예술로 표현하도록 지역사회 공공기관에 입주한 예술가 단체와 협업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참여 단체는 두 개의 연극단체(극단 프락시스, 마실)와 미술치료(아트만), 음악치료(숙명음악치료 연구회)와 협업하여 활동하고 있는데, 그 중, 음악관련 활동을 소개하고자 한다.

활 동	활동 내용
음악과 만나다	<p>다양한 악기와 음악의 움직임을 신체적 표현으로 긴장을 완화한다.</p> <p>① 인사를 나누고 지난 시간에 했던 활동에 대해 이야기 한다.</p> <p>② '양과 여우' 활동을 하면서 신체를 이완시키고 라포를 형성한다.</p> <p>③ '눈 감고 짝꿍 소리 찾기' 2인 1조가 되어 한 사람은 눈을 감고 한 사람은 상대방의 소리에 따라 이동한다. 신체를 사용하여 나만의 리듬과 소리를 친구의 귀에 들려주어 인도한다(상대방의 소리에 집중)④ 3번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지만 신체 소리 대신 악기로 소리를 내어 친구를 인도한다.⑤ 에그셰이커 색깔을 활용하여 '5팀'으로 나눈다.</p> <p>⑥ 본 활동에 대해서 소개한 후 그룹원들과 상의하여 동화책을 선택한다.</p> <p>⑦ 음악치료에 사용되는 다양한 '악기를 소개' 한다.</p> <p>⑧ 자유롭게 악기를 탐색한 후 팀별로 악기를 고른다.</p> <p>⑨ 그룹원들과 상의하여 동화 내용을 파악한 후 다양한 소리를 만들어낸다.</p> <p>⑩ 5팀이 순서대로 '라디오 드라마' 발표를 하고, 다른 팀은 눈감고 감상한다.</p> <p>⑪ 활동을 하면서 다른 팀에서 만든 소리에 대해서 서로 피드백 한다.</p> <p>⑫ 소리에 집중했던 오늘의 활동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소리와 관계에 대해 이야기 나눈 후 활동 소감을 이야기 하고 마무리 한다.</p>
연극과 만나다	<p>신체 표현활동을 통하여 관계를 형성하고 상상과 변형을 통해 놀이의 연극성을 이해할 수 있다. 사람과 사람(모르는 친구와 몸을 맞대보니 어떨까? 소름끼친다. 새롭다. 징그럽다) 상상과 변형(마녀 빗자루, 야구 방망이, 마이크, 총, 리코더, 기타, 플룻, 효자손, 빨래. 지팡이, 밀대, 프라이팬, 철봉, 꽃다발, 트럼펫, 빗, 역도) 조각가와 찰흙(2인1조 (1인 찰흙, 1인 조각가))</p>
극적요소를 활용한 이야기 구축	<p>사회적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연극으로 만들어 보고 연극 속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 수 있다. 학교 안의 다양한 관계를 찾아보고 그 안에서 발견된 이야기를 장면으로 만들 수 있다. 학교안의 다양한 관계를 이야기해 본다(선생님과 학생, 학생과 학생, 선배와 후배, 여자와 남자 등)</p>

활 동	활동 내용
음악극(뮤지컬) 만들기	청소년 문화에 관한 이야기를 주제로 하여 음악적 요소를 결합해 우리들만의 뮤지컬을 만들 수 있다. 학교 하면 떠오르는 것(졸업기, 선생님, 공부, 일진, 시험 보는 것, 학교 폭력, 꾸미기체조, 성적 때문에 좌절하는 모습 등) 내가 제일 행복할 때(컴퓨터 할 때, 먹을 때, 친구랑 있을 때, 학교에서 잘 때, 노래 부를 때, 야구할 때, 잘 때 등) 등 상황에 맞는 표현을 음악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축제 컨셉 정하기	축제를 통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나 우리가 바라는 축제의 모습에 대해 논의하고 전체 컨셉을 결정한다. '음악극'의 형태로 동아리 참여학생(22명)이 2팀으로 팀을 이루어서, 그들이 만들어 내는 이야기로 학교의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음악극을 펼친다. Ex) 브리덴 음악대 형태극 또는 같은 이야기 다른 결말의 형태의 극
모둠 연습	각 모둠의 주제를 정하고 발표에 대한 세부내용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 기대효과


- 가. 하나의 주제를 바라보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예술 표현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
- 나. 예술로의 협업을 통해 청소년 내면의 생각들을 사회에 표출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
- 다. 예술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과정, 협업의 시간으로 사춘기 청소년들의 사회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예술적 가치를 깨달을 수 있다.

나눔, 소통 그리고 배려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발표되고 학교폭력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는 상황에서, 학교 구성원 상호간의 인권존중 풍토 조성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제반 여건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해법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 현상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도와야 한다. 이를 위한 실천 방안으로 다양한 음악 표현의 기회를 충분히 줄 것을 요구하였다.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학생 자치회의 다양한 음악활동 운영으로 학생이 스트레스를 자신의 개성을 표출하면서 해소하고 공동체 의식과 조화로운 인성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

학생들은 음악활동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을

이해하면서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의 주체가 될 것이며, 음악수업시간에 실시한 공동체 음악활동을 통해 나눔과 소통, 배려를 배우게 될 것이다. 또한 문화예술관련 동아리 운영에서 전문가의 조언과 지도는 개인의 능력개발과 함께 폭넓은 진로체험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음악교육의 역할과 가치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이루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음악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들이 활발하게 펼쳐져 학교 내의 폭력적 문화양태를 해소시켜 가기를 기대한다. 음악을 활용하여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를 만들어 갈 때 지금보다는 훨씬 더 즐겁고 행복한 학교가 될 것이다. 





스웨덴 교육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스웨덴 정부, 즉 교육연구부가 어떤 역할을 하며, 업무 관할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관련 정부 산하 기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우선 스웨덴 교육 연구부의 역할을 소개한다. 다음 호에는 스웨덴 초·중·고등학교 교육제도에 대한 개요와 교과 과정에 대해 소개할 것이고 그 후 교과서의 내용 및 체제 등에 대해서도 소개할 것이다.

외국의 교육과 교과서제도

스웨덴의 교육제도(1)

– 교육연구부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의 역할



양혜원

주스웨덴 한국 대사관 선임연구원

1. 스웨덴 교육연구부 개요

스웨덴 정부는 총리 사무국 (Prime Minister's Office), 행정사무국 (Office for Administrative Affairs)과 스웨덴 EU 상설기구 이외에 총 12 개부처 (법무부, 외교부, 국방부, 보건사회부, 재무부, 교육연구부, 문화부, 농업부, 환경부, 산업부, 통합부, 양성평등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교육연구부는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및 연구소 등의 교육 연구 분야를 총괄하고 있고, 과학·기술 분야의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양성 평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가 교육연구부 관할 소속이기도 하다. 스웨덴 부수상 (Deputy Prime Minister)이기도 한 얀 비요르쿤트 (Jan Björklund) 현 교육부 장관 (Minister for Education)과 니키얌코 사부니 (Nkyamko Sabuni) 교육부 차관이자 양성평등부 장관 아래 200여 명이 교육연구부 소속으로 일하고 있다.

교육연구부에는 7개의 부서들이 다음과 같은 소관 업무를 독립적으로 집행하고 있고, 동시에 각 부서와 협력하여 교육연구부 정책 개선 및 스웨덴 교육 발전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3개의 사무국을 통해 교육연구부 전체 행정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2. 스웨덴 교육 연구부 업무 (7개부)

1) 학교부 (Division for Schools)

학교부에서는 예비학교 (preschool: 초등학교 입학전 0학년) 활동 및 학생복지 관련 사항, 초등학교 (스웨덴은 초등학교 및 중학교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음), 특별학교 (청각장애 학생 대상 또는 학습 장애가 있는 학생 대상), 사미학교(스웨덴 사미족) 및 자율학교 (사립학교와 유사) 등 스웨덴 학교에 대한 정책 전반을 다루고 있다. 또한 교사 및 학교 책임자들에 대한 교육 및 역량 강화, 교과서 및 교구 등의 교재 개발과 장애 학생 관련 사항을 담당하고 있고, 교육계획 (school curricula), 과목계획 (syllabuses), 시간배당 (timetables) 등의 기타 관련 법률 제안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관련 활동 사항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경제, 통계 및 예산 업무의 준비 및 분석 등도 관장하고 있다. 스웨덴 학교부처와 연계된 정부 산하 기관으로는 교육청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Skolverket), 특별교육 학교부처 (National Agency for Special Needs Education), 사미학교 위원회 (Sami Education Board)가 있다.

2) 고등학교교육부 (Division for Upper Secondary Education)

스웨덴 고등학교교육부는 일반 고등학교 및 특수고 (학습 장애가 있는 학생 대상), 자율 고등학교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특수학교 관련 사항과 고등학교가 위치한 콤문 (Kommun: 지역구) 활동 사항을 점검하고 분석하며 관련 예산 업무 및 법안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에 대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정기적인 감찰을 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체 고등학교와 자율 고등학교의 교과 과정과 학생의 수학 능력 등을 평가하고 있고, 직업 교육과 훈련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프로그램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관련 정부 산하 기관으로는 학교감사부 (Swedish Schools Inspectorate), 교육청(National Agency for Education)이 있다.

3) 학생 재정지원 및 성인교육부 (Division for Student Financial Support and Adult Education and Training)

스웨덴 학교 재정지원 및 성인교육부에서는 모든 교육과정 (초중고등교육)에 대한 학생 재정 지원과 학업 관련 사항을 주요 담당하고 있다. 또한, 성인교육, 직업교육, 성인능력개발 등 일반 대학에서 다루지 않는 기타 교육 분야 관련 사항(예: 실업자들을 위한 교육지원을 포함한 산업정책 및 고용시장 연관사항 등)등을 다루고 있다. 아울러, 학생 복지 및 성인 교육과 관련된 국제적인 이슈 (예: 다른 EU 국가와 비교 연구), 스웨덴 이민자에 대한 스웨덴 언어 교육¹⁾ 그리고 학습 장애가 있는 성인들에 대한 성인 교육 프로그램도 포함하고 있다. 관련 정부 산하 기관으로 학업지원 위원회 (Swedish Board for Study Support), 재정지원 항소위원회 (National Board of Appeal for Student Aids), 직업학교기관 (Swedish National Agency for Higher Vocational Education)이 있다.

1) 스웨덴 이민자 (난민 포함) 경우 스웨덴 언어 교육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4) 고등교육부 (Division for Higher Education)

스웨덴 고등교육부에서는 학부과정, 대학원 석박사과정의 교육 프로그램과, 스웨덴 고등 연구 기관들에서 수행되는 연구 등을 지원 등을 총괄하고 있다. 동 부처에서는 스웨덴 고등교육기관(대학, 전문 연구 기관 포함)이 각자의 교육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지, 연구 기금은 잘 운영하고 있는 지 등을 감시하여 스웨덴 국회(Riksdag)와 정부가 책정한 목표를 수행하고 있는 지를 평가하고 있다. 또한, 학생 진학률, 취업률 및 학생 영향력 등과 관련된 이슈 등을 다루고 있다. 기타 스웨덴 고등교육기관의 국제 경쟁력과 양성 평등 문제도 동 부처가 다루고 있다.

고등연구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국가 예산(Budget Bill)을 책정하기 이전에 법안 마련을 위한 자료 준비를 하는 것이다. 즉, 스웨덴 고등교육 기관에 필요한 자원 할당 배분을 위한 정부 예산 책정시 요구되는 모든 자료를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관련 정부 산하 기관으로 스웨덴 고등교육 서비스 기관 (Swedish Agency for Higher Education Service, VHS; 대학입학 사정 등을 담당), 정부 고등교육 연구소 (State higher education institute), 고등교육청 (Hogskoleverket), 스웨덴 인터넷대학 기관 (한국과 비교하면 방송통신대학과 같은 기관)과 국립대학교 등이 있다. 동 기관들의 대표 (예: 대학교 학장, 연구소소장 등)와 이사진 임명 등도 담당하고 있다.

5) 연구정책부 (Division for Research Policy)

스웨덴 연구정책부의 주요 업무는 연구 정책 관련 사항 및 EU와 국제 연구 협력 관련 사항을 다루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지원한 연구 기금이 효과적으로 쓰이는 지, 또한 궁극적으로 모든 연구가 사회를 이롭게 하는 지 등을 감찰하고 있다. 모든 분야별 연구가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주요 학문분야별 (자연과학, 의학, 인문사회, 예술 등) 전문가²⁾ 자문위원이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동 부처에는 우주 정책 (space policy), 연구 윤리 (research ethics), 대규모 연구 시설 및 과학 실험 장비 등과 관련된 업무도 총괄하고 있다. 또한, 관련 산하 기관들을 관리 감독하고 기관들에 지원되는 기금 배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정부의 연구 혁신 법안 (research and innovation bills)을 계획하는 데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일도 포함하고 있다. 관련 산하 기관으로 스웨덴 연구 재단 (Swedish Research Council), 국립 스웨덴 도서관 (National Library of Sweden), 스웨덴 국립 우주 협회 (Swedish National Space Board), 스웨덴 극지 연구기관 (Swedish Polar Research Secretariat), 스웨덴 우주물리 연구소 (Swedish Institute of Space Physics), 중앙 윤리 감독 위원회 (Central Ethical Review Board), 6개의 지역 윤리 감독 위원회 (Regional Ethical Review Board)가 있다.

2) 실례로 스톡홀름대학교 미생물학 및 기능 유전체학 (Functional Genomics) 부교수를 역임했던 미생물학 박사가 현재는 연구정책부에서 스웨덴 생명과학 및 바이오의학 전문가로서 일하고 있다.

3)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란 법제정, 정책 또는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계획 및 활동에 있어 남성과 여성을 통합하는 것이다. 성 주류화는 여성은 물론 남성이 관심을 가지고 체험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분야의 정책 및 프로그램을 통합적 차원에서 기획, 실행, 감시 및 평가를 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혜택을 누리고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유엔은 성 주류화를 '모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영역의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디자인, 실행, 모니터 활동에서 여성과 남성의 관심과 경험을 통합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혜택 받고 불평등이 조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며, 궁극적으로 양성평등(Gender Equality)을 실현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UN/DAW/ECLAC, 1998).

4) 2009년 이래로 차별에 대한 여러 옴브즈만 프로그램이 하나로 통합된 이래, 연령 차별, 인종 차별, 성적 취향 차별, 표현에 대한 차별 등을 모두 다루고 있다.

5) 3개의 사무국 이외에, 중요한 문제 발생시 스웨덴 정부는 조사 위원회 (committee of inquiry)를 착수하거나 조사 전문가(inquiry chair)를 임명하여 문제 해결을 하고 있다. 조사위원회나 조사전문가가 문제를 탐지하고 해결방안 등을 연구한 후에는 그 결과가 스웨덴 정부 공식 보고서 (Swedish Government Official Report: SOU)에서 발표되고 있다. 스웨덴 정부가 예산을 계획할 때 때로 이 보고서가 주요 자료가 되기도 한다.

6) 청소년 보호 정책/ 시민사회부 (Division for Youth Policy and Civil Society)

청소년 보호정책 및 시민사회부에서는 청소년 보호 정책 개발과 적용 관련 사후 검토 (follow-up) 및 지역간 (cross-sectoral) 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기관 개발 및 육성, 청소년 연구 및 청소년들의 생활상에 대한 통계 조사 등도 담당하고 있다. 시민사회와 관련, 시민사회 관련 정책과 정부 기금에 대한 업무와 아울러, 청소년 보호정책과 시민 사회 증진을 위한 국제 협력 등도 포함하고 있다. 관련 산하기관으로 스웨덴 국립 청소년 위원회(Swedish National Board for Youth Affairs)가 있다.

7) 양성평등부 (Division for Gender Equality)

양성평등부에서는 성주류화 (gender mainstreaming)³⁾ 문제 성차별 문제 등을 다루고 있고, 양성 평등 정책 등을 개발, 관리하고 있다. 즉, 스웨덴 정부가 제정한 양성 평등 정책이 원활하게 실행되고 있는 지 평가하고 있고 또한, 양성 불평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문제 (예: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 같은 성끼리의 폭력, 양성간의 억압과 권력 남용 등)도 담당하고 있다. 관련 정부 산하기구는 없으나 차별 고발 프로그램 (Discrimination Ombudsman)⁴⁾에서 양성 평등 문제를 감찰하고 있다.

3. 스웨덴 교육연구부의 사무국 (3개)⁵⁾

1) 법률사무국 (Legal Secretariat)


법률사무국에서는 교육연구부와 관련된 모든 법적 문제를 다루는데, 특히 스웨덴 법정 위원회 (Council on Legislation)와 정부 예산에 제출하는 계획안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법적인 자문, 업무 협의시 필요한 법적 근거 등을 제공하고 있고, 국제 협력이나 협상시 발생하는 법적인 동의나 계약서 등을 성사시키는 데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 양성 평등 문제도 동 사무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2) 국제사무국 (Secretariat for International Affai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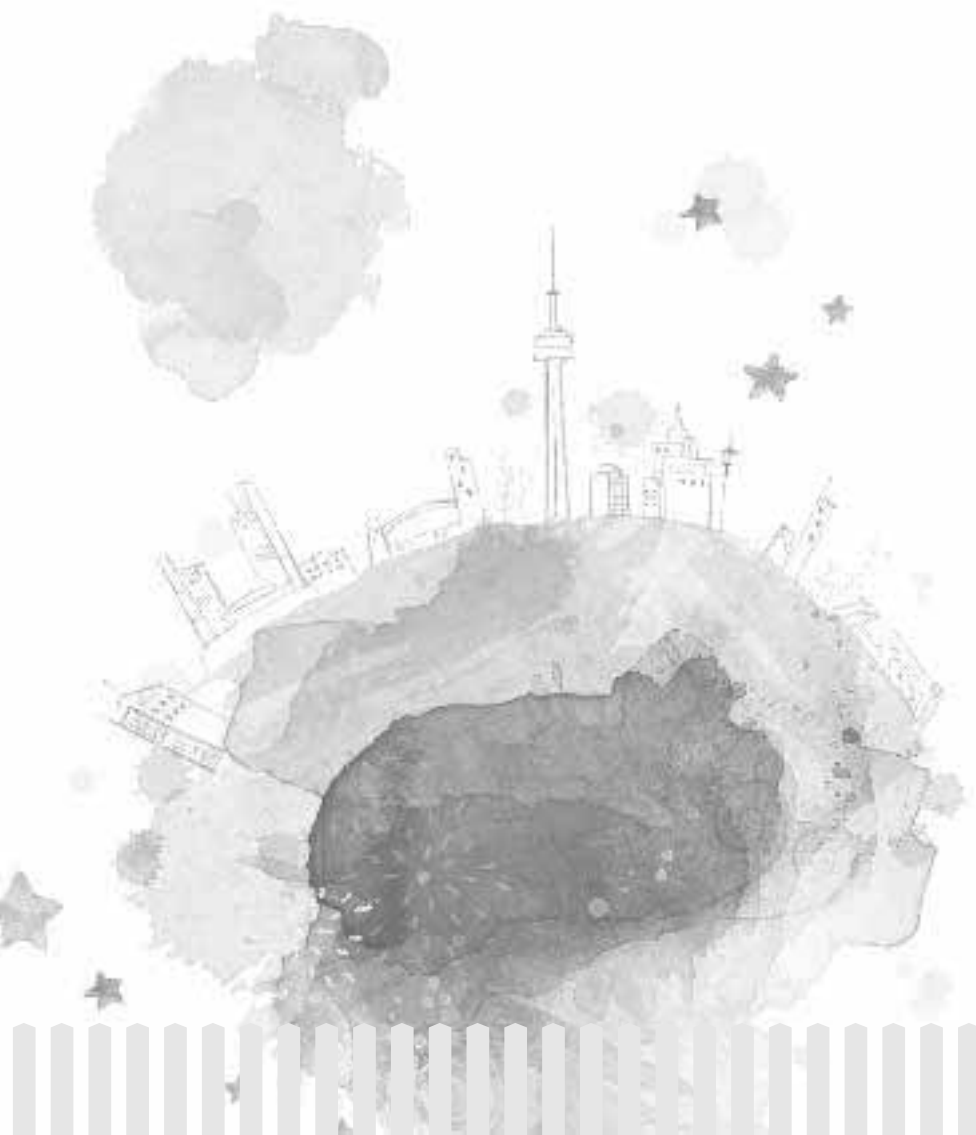
국제사무국은 교육연구부의 7개 부서와 함께 EU내의 교육과 문화 분야의 협력을 비롯하여, 북유럽각료회의 (Nordic Council of Ministers), OECD, 유네스코, UN 산하기구인 유럽경제위원회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UNECE), 유럽협의회 (Council of Europe), 발트해협력 (Baltic Sea cooperation), 발틱 21 네트워크 (Baltic 21 network)에서 다루는 교육 문화, 그리고 비유럽권 국가들간 교육 문화 협력 도모 업무도 관장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 고위급 방문단 교환 및 다양한 국제 위원회들간의 부처간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스웨덴 유네스코 위원회 (Swedish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의 교육 분야 국제 협력 프로그램의 조정 업무도 맡고 있다.

3) 조정사무국 (Coordination Secretariat)

조정사무국은 교육연구부의 업무 계획, 감사 활동, 또한 부처내의 내부 감사를 담당하고 있고 또한, 인사 행정, 직원 능력 개발을 위한 전략 수립, 교육연구부의 인적 자원을 총괄하고 있으며, 부서내 IT 기술 지원 등도 담당하고

있다. 동 사무국에서는 교육연구부의 예산을 조정하고 부서 산하 기관의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한 행정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동 사무국내 분석과 (analysis unit)에서는 관련 통계자료, 분석 데이터, 연구 결과 등을 소관하여 동 사무국이 교육연구부의 정치적 리더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동 사무국은 교육연구부내 7개 부서간과 스웨덴 다른 부(예: 외교부, 문화부 등)들간의 정보 교환과 의사소통을 책임지고 있다. 

스웨덴 교육연구부 개요를 소개하는 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스웨덴 학교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정부 산하 기관의 역할과 업무 소개는 생략하기로 한다. 본 호에 실린 내용은 스웨덴 정부 공식 홈페이지에 나온 주요 자료를 요약한 것으로서 필자의 의견이 없는 객관적인 보고임을 참고 바란다.





Sophia Kim
캐나다 현지 교사

외국의 교육과 교과서제도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 교육제도 및 교과서

An Introduction to the Public Education System and Use of Textbooks in B.C.

Canadian education system is markedly different from that of the Korean education system. Perhaps one of the biggest reasons for this is because Canada is a bicameral state with federal and provincial governments, each with its own set of responsibilities and powers. Like Korea, many “important” things such as and its enforcement fall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federal government. But unlike Korea, the Canadian education system falls under the provincial government’s jurisdiction. This means that depending on where the student is in Canada, they will be required to follow a different set of curriculum, and pursue different paths towards graduation and post-secondary institutions. It is for this reason that to those who are unfamiliar, the Canadian education system may seem complicated and difficult to navigate. There is no central Canadian agency or ministry that sets the curriculum or exams; there isn’t a single agency that selects and distributes textbooks to school districts either.

This does not mean that the quality of education differs from province to province and that there is no centralized assessment. Although the content of the curriculum may differ from province to province to better suit the needs and traditions of each province, a Pan-Canadian Assessment Program is administered to provide performance assessment of 13 year old students (Grade 8). These assessments, which assess students' reading, mathematics, and science abilities, are scheduled in a three-year cycle.

Structure of Public Education System and Textbook and Resource Selection in B.C.

The Dogwood Diploma is the standard high school diploma for students pursuing post-secondary education. While some students may opt to take the School Completion Certificate Program or international programs of study such as the International Baccalaureate (IB) or Advanced Placement (AP), most students in the B.C. public schools follow the graduation program to obtain a Dogwood Diploma.

The path students follow to obtain their degrees however differs even within B.C. depending on the school district and individual schools. The school year in some districts are divided into two semester, each about 5 months long; while other districts are linear and students take all their courses the whole year round. Districts also differ in that in some districts, students are divided into elementary schools (K-7) and secondary schools (8-12), and in other districts, students are divided into elementary schools (K-5), middle school (6-8) and high school (9-12). Although the division of the grades has an impact on the school atmosphere and organization, the curriculum does not differ from district to district. This is because the curriculum is set by the B.C. Ministry of Education.

The standards set out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re called Prescribed Learning Outcomes (PLO) and they describe a set of skills or knowledge that students must master for the given subject in a given year. The individual schools and teachers are then expected to work with curriculum to develop lessons and projects for their students. The teachers are also at liberty to choose the resources they feel are the most appropriate. While the B.C. Ministry of Education includes in its Integrated Resource Package (IRP), a "Catalogue of Resources" which has a general description, recommended grade level, and supplier's information, the list is not meant to be an exclusive list of resources that teachers and schools must use.

Although the Ministry provides a Catalogue of Resources, the spokesperson for the B.C. Ministry of Education explains that the resources are not always evaluated and approved by the Ministry.

"The Ministry generally evaluates learning resources only when revising or developing new curriculum," said the spokesperson. "While they evaluate and approve some resources themselves, public school boards and many independent school authorities are members of the Educational Resource Acquisition Consortium (ERAC), through which they may collaborate on evaluating needs and resources and negotiating agreements on collective purchases. The Ministry is not involved in ERAC's evaluation process."

He adds that, "The Ministry of Education is no longer involved in the local acquisition process for books or other learning resources. While the Ministry develops curriculum and sets learning expectations and

graduation requirements, decisions about delivering the curriculum are made by local boards of education, including the selection of the resources they will use to achieve the curriculum's prescribed learning outcomes."

The reason, according to the spokesperson, is so that "the specific needs of their own students, teachers and communities" can be addressed. The teachers and school boards are however not left without any guidance in choosing resources. They have at their disposal, "prior Ministry-recommended resources, or those that have been approved locally. Further, they may purchase those resources from a vendor of their own choosing."

Sherry Kallergis, a spokesperson of Educational Resource Acquisition Consortium (ERAC), explains that locally approved resources are those that have been evaluated and approved by ERAC. ERAC is a consortium of public and independent schools which provide a wide range of services to its members. These services include "evaluation, licensing and acquisition of print, software, and digital learning resources". ERAC, overseen by an Executive Committee of three Superintendents and three Secretary Treasurers from BC member districts and a representative from Ministry of Education, is funded through membership fees, an annual BC Ministry of Education grant and cost recovery fees for services performed on behalf of vendors and members.

Kallergis explains that ERAC has teachers from around the province come together to look at different products which are submitted by district contacts, vendors or ERAC staff members. The evaluation is done by applying a rigorous set of evaluation criteria to ensure that "learning resources used in BC schools: support the learning outcomes of the curriculum, assist students in making connections between what they learn in school and its practical application in their lives, and be developmentally and age appropriate."

According to Kallergis, while a product's content, instructional design, classroom usage and technical quality are important part of the evaluation process, the most important is the social considerations. What this entails according to ERAC's website is the ability of the product to assist the educators to "encourage understanding and promote positive social attitudes and respect for diversity and human rights; ensure that British Columbia students see themselves and their life experiences reflected and validated in the learning materials they use in their classrooms; [and] identify potentially controversial or offensive elements that may exist in the content or presentation, and to highlight where resources might support pro-social attitudes and promote diversity and human rights."

In order to do this, 14 different social considerations which represent the culture, tradition and values of Canada are set out by ERAC: age, gender roles, aboriginal peoples, multiculturalism, gender identity and sexual orientation, ability-disability, belief system, socio-




economic, violence, ethical and legal, humor, safety, language and sustainability. Once the products are evaluated and approved, they are listed in their online collection. Working as a consortium, ERAC is able to negotiate with publishers to “leverage better prices for learning resources, software and videos”.

Textbooks, resources and their use in the classroom

Despite the wide range of textbooks and resources available to teachers and schools, many core subjects such as social studies, math and sciences have one or two textbooks and resources that are most commonly found in schools. For other subjects however, there are vast differences between schools and each classroom. This means that the format and price of the books also differ greatly depending on the deals that were negotiated between private publishers and school districts, or publishers and ERAC for the school districts. Despite the difference in physical size and price of textbooks, most new textbooks are hardcover books with glossy pages. This helps the books become more durable, but it also has the disadvantage of driving up the prices.

The result perhaps is reflected in the reality in which teachers are often limited by the limited amount of funding in the public education system. Public schools cannot purchase new class sets of textbooks every time a new edition of a textbook comes out. This becomes a problem because of the way textbooks are used in Canadian public schools. Unlike Korea, Canadian students do not own the textbooks they are given each year. At the beginning of the year, semester or unit, teachers will distribute the textbooks and the textbooks will be on loan for the set amount of period. At the end of the unit, semester or school year, the students will be asked to return their textbooks and if they fail to do so, they will be charged for the textbooks.

The consequences of this are many. First, despite most textbooks being rather sturdily built, the reality is that many textbooks in the public school system suffer from wear and tear and repeated use by numerous students. Periodically, schools will purchase class sets of new editions of the textbooks or resources or engage in exchange programs with other schools in the district but the problem of wear and tear are not solved and if they are, it is only temporary. Secondly, textbooks can, like many other things, become outdated very quickly and become irrelevant to the students. It is therefore up to the teacher to be resourceful and to remedy the situation by finding free or cheaper alternatives that are more current and relatable for the students.

In a country as vast and as diverse as Canada, it is no surprise that the education system reflects its values and strives to respect diversity by creating a system that allows local and regional needs met. It is also no surprise that the education system in B.C. strives to support personalized learning by allowing school districts, schools and teachers to evaluate and to choose resources that are best suited for their students. 

캐나다 교육제도와 한국의 교육제도는 다른 점이 많다. 캐나다 정부 구조가 연방 정부와 주정부 [캐나다는 10개 주가 있고, 각 주마다 주 정부가 있음]로 구성되어 있고, 각 정부가 맡아서 하는 일과 권리가 다른 양원제도인 점이 두 나라의 교육제도가 많이 다를 수 밖에 없게 되는 주된 이유일 것이다. 예를 들어, 형사법은 한국처럼 연방 정부가 관할하는가 하면, 교육은 각 주 정부가 관할하는 것은 한국의 경우와 아주 다른 것이다. 캐나다에서는 지역에 따라 다른 교과 과정을 따라야 하고, 고등학교 졸업이나 그 이후의 교육도 지역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과정이 다르다. 이런 점이 캐나다 교육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캐나다의 교육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끼게 하는 원인이라고 본다. 캐나다에서는 단독 기관이나 중앙 정부 부서가 교육과정이나 시험 등을 관리하지 않고, 교과서 선정과 배포도 역시 한 기관이 하는 일이 없다.

그렇다고 지역에 따라 교육의 질에 차이가 있거나, 전체적인 평가제도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각 주마다 그 주의 [특성에 맞는] 필요성과 전통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만들기 때문에, 교육과정 내용이 다소 다를 수는 있지만, 평가 프로그램은 캐나다 전체적으로 실시한다. 이 평가 프로그램은 13세 학생(8학년 [캐나다는 만6세 1학년을 시작으로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되는 12학년으로 학년을 칭함]들을 대상으로 읽기, 수학, 과학 능력을 테스트하는 것이다.

비씨주 교육제도 및 교과서, 교재 선정

Dogwood Diploma로 불리는 고등학교 졸업장은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요소이다. Dogwood Diploma 외에 School Completion Certificate Program 이나 International Baccalaureate (IB), 혹은 Advance Placement (AP) 와 같이 고등학교 과정을 다양하게 이수할 수 있어서, 일부 학생들이 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Dogwood Diploma를 취한다.

비씨주 내에서도 지역구 교육청이나 학교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다르기도 하다. 학기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1년을 2학기로 나누어 각 학기를 5개월씩 시행하기도 하고, 1년을 1학기로 하기도 한다. 학년을 구분하는 것도 지역에 따라 초등과정 (K - 7학년)과 중고등 과정 (8 - 12학년)으로 나누는가 하면, 초등(K - 5학년), 중등 (6 - 8학년), 고등 (9-12학년) 과정으로 나누기도 한다. 이와 같이 제도적 구분이 다양한 것은 학교의 분위기나 구조적 차이를 보여주긴 하지만, 교육과정까지 다른 것은 아니다. 교육과정은 비씨주 교육부 [한국의 교육과학부에 해당]가 결정하여 적용하기 때문이다.

비씨주 교육부가 결정한 기준은 Prescribed Learning Outcomes (PLO)라고 불리는데, 각 학년마다 일정 주제에 대해 기술 혹은 지식으로 반드시 습득해야 할 기준을 명시하는 것이다. 이 기준에 준하여 학생들에 맞는 수업과 프로젝트를 개발할 교육과정을 만드는 것은 학교와 교사의 몫이다. 교육과정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교재 선정은 교사의 자유이다. 비씨주 교육부가 준비하여 추천하는 “Catalogue of Resources[교재 리스트]”는 교재에 대한 정보 및 권장 학년, 교재 공급자 정보 등이 수록된 것이며, 교육부의 Integrated Resource Package (IRP)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 리스트를 교사와 학교가 반드시 사용할 필요는 없다.

교육부가 작성한 Catalogue of Resources[교재리스트]에 대해, 교육부는 리스트에 나열된 것들을 교육부가 검

토 인증하는 것들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교육부의 교재 평가는 교육과정을 변화시키거나 새로 개발할 때 실시하는 것이 보통이다.”라고 한다. “[지역구 레벨의] 공립학교 교육청과 다수의 사립학교들이 Educational Resource Acquisition Consortium (ERAC [교육 자료 구매 컨소시엄])의 회원들이므로, 교재에 대한 필요성과 평가, 공동 구매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의논하고 있으므로, 비씨주 교육부는 ERAC의 평가 절차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지역구 레벨의 교재 구매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고, 교육과정 개발 및 학습 성과나 졸업 필수 요소를 정하는 일을 하고 있다. 교육과정 실시에 대한 결정과 학습 성취를 위한 교재 선정은 지역구 레벨의 교육 이사회의 몫이다.”.

이런 결과로, “지역의 학생이나 교사, 혹은 그 사회가 특별히 필요로 하는 점이 밝혀질 수 있다. 그렇다고 교사나 지역 교육청에 교재 선정 가이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교사나 지역 교육청들은 교육부가 권장하는 교재 외에, 각자 개발한 운영법을 갖고 있으며, 각자 선정한 교재공급회사를 통해 교재 구매를 하기도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ERAC의 대변인 Sherry Kallergis는 지역적으로 인증된 자료들은 ERAC가 검토하고 인증한 것들이라고 설명한다. ERAC는 공립 및 사립학교들의 협력 단체로서, 프린트물, 소프트웨어, 전자 학습 교재들의 검토, 라이선스 및 구매와 같은 광범위한 서비스를 회원들에게 제공한다. ERAC는 감독관 3명과 지역 교육청의 총무 3명, 그리고 비씨주 교육부 대표 1명의 집행위원회의 감독하에 회원들의 회비와 교육부의 연간 재정 보조, 그리고 교재 공급회사와 회원들 간의 대리 역할을 하여 얻는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다.

Kallergis는 ERAC의 하는 일 중 하나는, 지역 교육청이나 교재 공급회사, 혹은 ERAC 스태프 회원들이 제출한 색다른 교재들을 보기 위해, 비씨주 전 지역에서 오는 교사들을 대하는 일이라고 한다. 교재 평가는 사용되고 있는 교재들이 학습성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을 실생활에 실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지, 개발적으로 나이에 적절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항목들을 적용시켜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

Kallergis는 교재 평가에 쓰이는 요소들 중, 내용, 지도 방법 디자인, 사용 방법, 기술면에서 본 품질 등이 중요한 하지만, 사회적 고려를 얼마나 포함하고 있는지가 더욱 더 중요하다고 한다. ERAC의 웹사이트는 이 점을 좀 더 자세히 명시하고 있다. 교육자들이 “이해하는 능력을 키워주고, 긍정적 사회 태도를 권장하고, 사회구조의 다양함과 인권을 존중하게 하고; 교재 내용 중에 학생 자신들과 학생들의 생활 경험이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게 하고, 내용 중에 혹시라도 논란의 여지나 누구든 불쾌하게 할 수 있는 점이 있다면 점진적으로 그 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호의적인 사회 태도를 지원하며, 사회의 다양성과 인권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기를 강조하도록 보조하는 것”이 교재의 장점이라고 거듭 명시하고 있다.


이런 바람직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ERAC는 캐나다의 전통, 문화, 그리고 가치관을 대변하는 사회적 고려 요인들로 연령, 성별 역할, 원주민, 복합문화, 성별 정체성, 능력/무능력, 종교, 사회경제, 폭력, 도덕과 법, 유머, 안전, 언어와 지속성, 모두 14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ERAC는 또한 교재로서 평가받고 인증을 받은 자료를 ERAC의 온라인컬렉션에 포함시켜주고, 교재와 소프트웨어, 비디오등의 바람직한 가격선을 조절하기 위해 교재 생산업자들과 협의를 하기도 한다.

교과서, 자료, 교실에서 사용

사회, 수학, 과학 분야에서는 다양한 교재의 선택 여지가 있는데도 한두 가지의 교과서와 교재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이나, 이 외 다른 과목들은 학교와 교사에 따라 다양한 교재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교재의 형태나 가격이 생산업자와 지역 레벨 교육청 간, 생산업자와 ERAC간의 협상에 따라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일이기도 하다. 교과서의 크기나 가격이 다양하긴 하지만, 새로 생산되는 교과서 대부분은 광택이 나는 종이에 인쇄된 것이고 딱딱한 종으로 제본된 양장본이다. 교과서가 더욱 더 견고해지고 있지만, 그로 인한 교과서의 가격인상을 피할 수 없게 되는 일은 단점이 되기도 한다.

교재가의 인상은 공립교육제도 내의 제한된 예산에 의해 교사들조차 제한된 실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반영되기도 한다. 공립학교들은 새 개정판이 출판될 때마다 다 살 수 없는 실정이다. 캐나다 공립학교들의 교과서 사용 방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이것이다. 한국과 달리, 캐나다 학생들은 매년 사용하는 교과서를 소유하지 않는다. 매 학년 초 혹은 학기 초에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나누어 주되 일정 학기 혹은 학년 동안 이를 대출해주는 셈이다. 학년 혹은 학기가 끝나면 교과서를 반납해야 하고 반납을 할 수 없는 경우 교과서 값을 변상해야 한다.

캐나다의 교과서 사용 방법의 결과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첫째, 대부분 교과서가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견고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므로 다분히 책이 닳고 파손되는 것이다. 학교측이 정기적으로 새 교재를 구매하거나 타학교와 교환하는 등의 노력을 해보지만, 여전히 닳고 찢어지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해결되는 듯 보여도 일시적인 것이 이 문제의 실정이다. 둘째, 다른 많은 것들과 마찬가지로 교과서도 빠른 속도로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이 되기 쉽고, 내용이 학생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시대성에 맞는 무료 혹은 저렴한 가격의 대체 교재를 찾아서 상황을 잘 넘길 수 있는 정보망에 능통하여야 하는 것이 교사의 몫이 되는 것이다.

캐나다 처럼 크고 다양한 사회에서는 가치관을 반영하는 교육제도가 있어야 하고, 지역 레벨의 필요성에 맞는 교육제도를 창출해서라도 다양성을 존중하려는 노력을 해야 함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비씨주 교육제도가 지역 교육청이나 학교가 그리고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가장 맞는 교재를 선정하고 평가하도록 자유를 주는 것은 개인의 필요에 충족하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 또한 놀랄 일이 아니다. 



● 무한 학습

대학교재물을 맡아 진행하는 나예겐 1년은 4계절이 아닌 딱 2계절로 나뉜다. 1학기, 2학기. 요즘은 그 두 계절 중 2학기 준비를 정신없이 할 때이고, 교과서 진행은 그 사이 늘 함께 병행해 왔다.

어느 날 회사에서 한문 교과서를 만들기로 결정하고, 내가 진행 담당자가 되면서 불안과 초조는 시작되었다. 그것은 합격 통고를 받을 때까지, 아니 그 이후 수정본을 만들 때까지도 지속되었다. 수시로 전달되는 안내문(공문), 설명회에서 듣고 받은 안내문 내용이 다시 바뀔 때도 있고, 또 다시 수정될 때도 있었다. 그런 사항 하나를 놓치면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었다. 바뀐 공문 내용을 메일로, 문자로 보내주지만 때로는 시간에 쫓기어 자세히 읽지 못할 경우도 있고, 또 쌓여만 가는 공문에 헛갈리는 경우도 많았다. 더욱이 덜렁대는 내 성격도 공문 읽기의 어수룩함에 한 몫을 더했다.

서류를 작성하고 등록을 하고, 또 예정 가격을 산출하고, 저작물의 이용 가능성이나 수정 보완 매뉴얼 등을 확인하는 일 등은 교과서 편집자에게 중요한 일의 하나이다. 그런데 정말 힘든 것 중 하나는 교과서 출판만큼은 전문가가 없다는 점일 것이다. 여러 번 교과서 편집을 해온 사람이라도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 이는 교과서 개발자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 아무리 교과서 저술의 대가일지라도 교육과정이 바뀌고 다시 교과서를 개발할 때면 혼란을 겪는다. 그가 쓴 교과서가 탈락한 사례도 있는 모양이다. 그러니 편집자의 경우는 더 말할 필요가 없으니 긴장감이 더 고조된다.



김 랑 희
도서출판 대학서림 팀장

교과서 편집 과정을 보면

2009년 개정 교육과정 및 각 교과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고시에서 중·고등학교의 국어, 도덕, 사회(역사 포함)를 제외한 전 교과가 인정도서로 전환되었다. 흔히 인정도서라고 하면, 검정도서에 비해 만들기가 훨씬 수월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인정 주제, 심의 주체가 각 시·도교육청으로 바뀌었을 뿐 심의 진행 사항은 검정도서와 같다. 그러니 인정도서일지라도 교과서 개발에서의 긴장감은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

교과서를 개발하면서 편집자가 겪는 긴장감은 교정 과정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교과서는 일반 출판물과 달라 10교, 11교를 보아야 초교를 본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된다. 처음 받은 원고를 가편집하고, 집필진의 의견을 반영하여 끊임없이 수정한다. 이러한 과정은 심사본 제출 시까지 지속된다. 그래서 처음 디자인 업체를 선정해 계약할 때 반드시 디자인 변경에 대한 것을 서로 합의한 뒤에 진행해야 한다. 지금은 디자인 업체도 이러한 환경에 대해 일반적으로 다 알고 통용되는 사항이지만, 예전에는 당황스러운 경험을 한 적도 있었다. 7차 교육과정의 교과서가 합격된 후 회사에서는 본격적인 교과서 사업 진출을 위해 파격적인 조건으로 인원을 충당했다. 출·퇴근 자유, 회사 카드 지급, 높은 급여 수준까지 모든 것을 지원 받으며 몇 년을 진행해 오다가 제출 일을 4개월을 남겨놓고 갑자기 담당자가 손을 놓아 버렸다. 그래서 급작스럽게 내가 담당하게 되었는데 그 내막은 이러했다. 수시로 바뀌는 원고 때문에 거의 일년 동안은 디자인만 변경하다보니 진행도 되지 못했고 결국 디자인 업체는 엄청난 추가 디자인비까지 요청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 과정은 조판 업체도 마찬가지였다. 조판 업체는 판을 다 뒤집었다고 해서 해판(解版)비의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작업자가 똑같은 작업을 다시 되풀이한다는 불평불만까지 토로했다고 한다. 그런 사항을 모두 접고 남은 4개월 동안 밤낮 주말 없이 서

로 입장을 조금씩 이해하며 일을 진행해 나가 심사본을 제출한 적이 있었다.

이렇게 연구진과 집필진의 요구 사항이 반영된 편집, 디자인, 삽화, 표 등을 하나하나 점검해 가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조율해 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문제는 역시 의사소통과 시간이다. 이상하게도 교과서 작업에서는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가 많고, 정해진 시간에 맞춰 작업하기가 쉽지 않았다.

집필진은 보통 현장 교사, 대학 교수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구성원 개개인의 의견 조율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많다. 더욱이 교과서 집필 과정에서 교수나 교사가 중·고등학생 독자보다는 자신들의 전문성을 더 중시할 경우가 제법 많다. 그 경우라면 의사조율이 더 어렵다. 때로는 자존심 싸움으로 비화될 경우도 있고, 때로는 보편적 지식보다 특수 분야의 지식에 빠져들 때도 있다. 이에 비해 현장 교사들은 학생들에게는 좀 더 쉽게 다가갈 때가 많다.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수업에 활용할 자료 발견 등을 중시한다. 그러나 내용이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수준인지 아닌지를 가늠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장 교사와 대학 교수들이 모두 공감하며 멋진 글감과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더라도, 새로운 시도를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가도 고민거리 중의 하나이다. 지나치게 새로운 시도를 할 경우 참신하기는 하지만, 검정이나 인정 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학생들에게 쉽고 재미있는 그리고 참고서가 필요 없는 학습자 중심의 질 높은 교과서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닌 듯하다.

그런 제약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교과서에 도전하고자 하였다. 7차 교육과정에서 진행했던 고등 교과목은 그 당시 기존 교과서의 틀을 깨고 일률적인 한자 학습에서 벗어나 현장 교사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한자·한자어 놀이를 통해 각 단위마다 제시된 놀이로 한문이 어렵다는

인식을 깨고 한자와 한자어를 재미있고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기획·편집을 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2007 개정 교육과정 고등 한문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현대의 물질문명을 성찰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를 탐색하는 과정에 중점을 두고 승자독식의 무한경쟁 사회 속에서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것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지향하는 철학적 부분을 강조한 특색 있는 교과서로 만들었다. 일반적인 한문 교과서의 문(文), 사(史), 철(哲) 비중의 순서가 아닌 철(哲)을 가장 강조한, 그리고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등 교과서도 대단원에서 학습해야 할 내용을 대화 형식으로 제시하여 익혀야 할 학습 목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단원별 이야기가 모두 이어지도록 서술하였다. 이렇듯 너무도 다른 내용의 구성은 최종 목표점인 교과서 합격을 위해서는 어려운 일이지만 늘 시도하게 된다. 이 어려운 고민 과정 속에 함께 해주신 고마운 분들이 있다.


7차 교육과정부터 지금까지 늘 함께한 집필진. 그분들과 함께 한 14년. 대형 출판사는 아니지만 56년간 대학 교재물 그리고 그 밖의 관련 학계의 발전과 출판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는 대학서림과의 끈끈한 정과 사명감으로 지금까지 함께한 집필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한 문장 한 단어까지 수없이 고심하며 채워가는 과정 안에서 지금까지 만나왔던 어느 집필진에게도 느낄 수 없는 희생과 도전 정신을 배운 시간이 되었고 그런 분들과 함께한다는 자부심이 나에겐 더 큰 힘이 되었다. 이렇게 책의 집필은 물론이고 책의 디자인이나 기획, 사진, 삽화 모든 분야에 늘 함께 해주셨다. 그러나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힘겹게 만들었지만 언제나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은 아니었다. 그럴 때면 그 값비싼 심사비와 그 동안 쏟아 부은 열정과 시간 그리고 그냥 폐기되어야만 하는 도서에 대해 한동안 허무함을 느끼지만 회장님께서 아무런 말없이 또 다시 지지해

주시고 지원해 주셨기에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다. 7차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현장 선생님들의 많은 지지와 좋은 평으로 판매량에서 상위권에 오를 수 있었다.

미래의 교과서

한문교과는 아직 진행되진 않았지만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학생들이 종이 교과서와는 다른 그러나 이미 익숙한 미래형 교과서인 디지털 교과서 개발이 기다리고 있다.

작년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능형 맞춤형 교육 실현을 위한 '스마트 교육 추진전략'을 발표했는데 도대체 스마트 교육은 무엇이고, 디지털 교과서는 무엇인지 정리해 보면 스마트 교육은 학교가 표준화된 지식을 평균 수준에 맞춰 전달하는 기존방식이 아닌 학생 개인의 수준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자기 주도적 학습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방식이다. 디지털교과서란 교과 내용과 참고서, 문제집, 사전, 공책, 멀티미디어 자료 등의 기능을 연계한 미래형 교과서로 PC, 스마트패드, 스마트폰 등 모든 단말기를 말하는데, 이런 첨단 기술과의 접목은 교과서와 별개로 편집자에게는 더 큰 부담감으로 다가온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어쩌면 특히 새로운 기술(디지털)과 점점 멀어지는 것일지도 모른다. 예전에는 무엇이든 설명 없이도 그냥 조작했던 것들이 지금은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새로운 정보와 매체, 디자인의 변화에 편집자가 그 속도감을 늦추지 말고 끊임없이 학습하고 따라가야 한다. 그것이 사회와 학생들의 끊임없는 요구에 부응할 수 있고, 더 발전된 교과서를 만들 수 있는 너무도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이치와 늘 함께 동행하는 편집자, 오늘도 더 나은 교과서 개발을 위해 고민하는 그들이 있기에 더 발전된 교과서를 접할 수 있다고 나 또한 기대하게 된다. 



□서울 국제고 교과서 이해를 위한 교육과정

우리 학교의 교과서를 소개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학교의 성격을 먼저 언급하는 것이 독자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서울 국제고등학교는 서울시 최초의 공립 국제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로서 지·덕·체를 겸비한 국제 전문 인재 육성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교는 개교시부터 자율학교로 지정되어 선진적 교육과정을 운영해 오면서 우리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세계 문화에 대한 열린 가치관을 함양하고 국제 사회와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과 국제적인 감각을 함양하며, 국제 기구 및 지역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의사소통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힘써 왔습니다.

본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진로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을 통해 내면화된 전통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있으며, 타문화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원어민의 코티칭 수업 및 한국어 교사의 영어 몰입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영어의사소통 능력을 크게 신장시키고 있으며, 특히 프리젠테이션과 스피치 능력이 매우 뛰어나서 미래의 글로벌 인재로 자라나는 토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다른 학생들과 공감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배우고, 다양한 문화 예술교육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본교의 교육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최 형 우

서울 국제고등학교 교사

인문계와 자연계로 구분되지만, 우리 학교는 국제 1과정과 국제 2과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선 국제 1과정은 국내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들을 위한 것이며, 국제2과정은 해외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공통적으로 세계화 시대에 직면하면서 우리의 미래 세대들에게 닥칠 다양한 도전 과제들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창의적 사고와, 학생 중심의 독서와 토론 및 발표 능력 등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화 시대에 필수적인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 외국어 사용 능력을 길러주고, 1인 1기 및 동아리 활동 등 체계적이고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감성과 창의성을 길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교는 2008년 개교 이후 2009년부터 이 두 과정을 분리하여 운영함으로써 학생의 수요와 적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제 계열에 걸맞은 다양한 신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개설하는 등 창의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개설된 국제계열 전문교과 외에도 서울국제고 학생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과의 교육과정을 개발한 교과가 2010년부터 현재까지 10과목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국제계열 교과의 경우 교과서가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교과별로 혹은 여러 교과가 교재 개발팀을 구성하여 2010년부터 현재까지 11개의 교과서 개발을 완료하였고, 이 외에 아직 개발되지 않는 국제 계열 교과서도 현재 서울시 교육연구정보원의 재정 지원과 서울대학교 등 대학교의 교수 연구진과의 협력을 통해 발간할 예정입니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됩니다. 따라서 교과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참고로 다음은 우리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 학교만이 갖는 중요한 내용만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1. 교육과정의 성격과 관련하여

가. 본교 교육과정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1997-15호)과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교육과정편

성·운영 지침 제2009-24호(2009.12.16) 및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교육과정편성·운영 지침 제2010-08호(2010.05.03)를 바탕으로 하되, "지덕체를 겸비한 국제 인재 양성"이라는 본교의 교육 목표와 학교 실정에 맞게 작성하여 운영한다.

나. 본교의 교육과정은 장차 국제적 교육과정(IB)을 지향하도록 과목군을 배치하고, 향후 IB 과정 개설·운영에 적절한 편제로 탄력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2. 교육과정 편성 기본 방향과 관련하여

가. 본교의 교육과정은 국제계열의 교육과정 편제를 따른다.

나. 교과는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로 하며, 전문교과는 과학, 예술, 외국어에 관한 전문교과와 국제에 관한 전공교과로 구성한다.

- (1) 보통교과는 국민공통기본교과를 포함하여 총 82단위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고, 전문교과의 기초 과목을 선택·이수할 경우, 이를 국민공통기본교과의 이수로 간주할 수 있다.
- (2) 전문교과는 총 82단위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며 국제계열 필수 과목을 두고, 국제 정치, 국제 경제, 지역 이해 등 국제사회와 관련된 전문 교과를 비중 있게 편성하여 전문지식 배양의 기회를 높인다.
- (3) 전문교과 중 과목명에 II가 있는 과목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I을 먼저 이수해야 하나, 학교의 실정이나 교과의 성격, 그리고 학생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이수를 면제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
- (4) 학교는 필요에 따라 대학과목 선이수제 과목(AP과목)을 개설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교육과정과 과목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선택과목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5) 교과의 이수단위 180단위 중 보통교과의 필수 이수단위는 72단위 이상으로 편성하며, 전문교과의 과목은 80단위 이상으로 편성한다. 전문 교과의 기초가 되는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경우, 이를 해당 보통교과의 이수로 간주할 수 있다.

(6) 학생들에게 국제적인 안목을 길러주고 다양한 학습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2단위 이상의 과제 연구(Subject Research) 교과를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구성한다.

(7) 해외교육문화체험이나 현장 체험학습 등의 교육 활동을 통해 다양한 문화와 환경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국제적인 안목과 통찰력을 키워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도록 구성한다.

다음은 우리 학교의 2011학년도 입학생의 교육과정 중 다른 학교와 달리 공부해야 할 내용 중 전문 교과에 대한 내용을 교육 계획서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우리 학교의 교과서 개발 현황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은 다른 일반계 고등학교와 달리 국제 계열 관련 교과목이 다양하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학교의 교과서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쓴이가 사회과목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국제 계열 전문 교과 중 제가 잘 알고 있는 사회과와 관련된 내용에 국한하여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제 정치, 국제 경제, 비교 문화, 세계 문제, 학생 과제 연구에 국한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1과정(국내 대학 진학)

교과 영역	교과 (군)	과목	기준 단위	운영 단위	1학년		2학년		3학년		비고	이수 단위	필수 단위	소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전문 교과		AP 미적분학	5	4					4		전문			
		심화 통계학	5	4						4	전문			
		한국의 전통문화	5	6			6				전공			
		국제정치 I / 물리실험/화학 실험/생명과학실험 택1	5	5				5			전공			
		국제경제 I / 과학철학 택1	5	5			5				전공			
		지역이해	5	3	3						전공			
		인문지리	5	5					5		전공			
		국제경제 II / 국제정치 II / 비교문화 II / 한국의 현대사회 / 세계문제 1선택	5	5						5	전공			
		국제경제 III / 국제정치 III / 비교문화 II / 한국의 현대사회 / 세계문제 2 선택 / 물리실험/화학실험/생명과학실험 택1	5	5					5		전공	92	80	92
		비교문화 I	5	4		4					전공			
		세계문명사	5	4					4		전공			
		영어청해	5	4					4		전문			
		영어권문화 I	5	4						4	전문			
		영어작문	5	5							전문			
		영미문학	5	6			5				전문			
		영미문학 II	5	4			3	3	4		전문			
		심화영어	5	5						5	전문			
		비평적 읽기와 쓰기	5	8					4	4	전공			
		퍼블릭스피킹과 프리젠테이션	5	6				6			전공			

교과 영역	교과 (군)	과목	기준 단위	운영 단위	1학년		2학년		3학년		비고	이수 단위	필수 단위	소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전문교과		고전문학의 감상과 비평	5	5				5			전문	82	80	82
		현대문학의 감상과 비평	5	5			5				전문			
		AP 미적분학	5	4					4		전문			
		심화 통계학	5	4						4	전문			
		한국의 전통문화	5	4				4			전공			
		국제정치 I / 물리실험/화학실험/ 생명과학실험 택1	5	5				5			전공/전문			
		국제경제 I / 과학철학 택1	5	5			5				전공/전문			
		지역이해	5	3		3					전공			
		국제경제 II / 국제정치 II / 비교문화 II / 세계문명사/ 세계문제 1선택	5	5					5		전공			
		국제경제 II / 국제정치 II / 비교문화 II / 한국의 현대사회/ 세계문제 2선택	5	5						5	전공			
		비교문화 I	5	4	4						전공			
		한국의현대사회/물리실험/화학실험 /생명과학실험 택1	5	5						5	전공			
		영어문법	5	4			4				전문			
		영어작문	5	3			3				전문			
		영어청해	5	3				3			전문			
		영어권문화 I	5	4						4	전문			
		심화영어	5	6					3	3	전문			
		비평적 읽기와 쓰기	5	4					4		전공			
		퍼블릭스피킹과 프레젠테이션	5	4				4			전공			

현재 우리 학교 선생님들에 의해 개발된 자체 사회과 관련 교과서는 ‘국제 경제’와 ‘학생 과제 연구’이며, 국제 정치와 비교 문화 그리고 세계 문제 등은 개발 예정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미 개발된 ‘국제 경제’와 현재 개발 중인 ‘세계 문제’ 교과서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사회 교육과와 공동으로 개발 작업 중에 있으며 내년 중에는 발간 될 예정입니다. 한편 국제 정치는 청심 국제고 팀이 개발 중입니다.

교과서의 개발 및 집필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모든 교과서가 그렇듯이 교육과학기술부가 고시한 교육과정에 충실해야 합니다.

둘째, 현재 국제고등학교의 교과서는 개발 중이거나

미개발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사용하고 있거나 외국 대학교 혹은 고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를 비교 검토하여 우리 나라 고등학교 학생 수준에 맞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셋째, 교과서를 개발하거나 개발 예정 중에 있는 교과서는 반드시 1년 이상 선생님과 학생들이 정규 수업 혹은 방과후 수업 및 세미나 토론 등을 통해 축적된 자료와 경험을 통해 충분히 검증하여 우리 나라 국제 고등학교 학생 수준에 맞도록 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제 계열 교과서 개발과 집필의 애로점

국제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다른 일반계 고등학교와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교과서 개발 및 집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과서 개발과 집필 과정에 겪은 어려움을 몇가지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국제 계열 전문 교과서의 교육과정은 일반계 고등학교의 보통 및 심화 선택 교육과정과 차이가 있습니다. 국제 정치, 국제 경제, 국제법 등 국제 계열의 전문 교과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다루지 않거나, 다루더라도 극히 일부 내용만이 보통 교과에 실려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국제고등학교에서 조차 교과서 개발을 하지 않아 참고할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선생님들 역시 국제 계열 고등학교에 근무하기 전까지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이러한 교육과정을 다루지 않았을 뿐더러, 대학이나 대학원 과정에서도 자신의 특정 연구 분야가 아니라면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분야입니다. 따라서 국제 계열의 교과서를 개발하고 집필한다는 것은 무에서 有를 창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대학 개론서나, 영어 원서를 참고하여 하기 때문에 많은 다른 교과서 작업에 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됩니다.

둘째, 모든 교과서 연구 개발 및 집필 작업이 그러하듯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국제 계열의 고등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서, 혹은 워크북이 필요함을 누구보다도 국제고등학교 선생님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교과서 작업을 꺼려할 뿐 더러 국제계열 고등학교가 몇 개 되지 않아 교과서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교과서 수요의 부족은 현행 일반계 고등학교 교과서처럼 출판사가 적극 나서 교과서 내용 이외의 기획, 원고의 수합과 편집, 이에 수반되는 그래픽, 삽화, 사진, 디자인 등 교과서 집필과 관련된 지원 작업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결국 기존 교과서 집필을 했던 선생님들 조차도 이러한 인프라의 부족 등으로 인해 교과서 작업을 기피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수업은 개별 선생님들이나, 해당 교과 주도의 수업 자료집 형태로 개발되어 있을 뿐입니다.

셋째, 이렇게 개별 선생님들 수업의 자료집 형태나, 워크북 형태로 개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공식적 형

태를 가진 교과서로 전환되기까지는 해당 원고 내용에 대한 검토와 재검토가 필요할 뿐 아니라, 교과서 검토 수준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그에 준하는 최소한의 자체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보기 좋게 읽기 자료, 사진, 삽화 등 여러 가지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교과서 발간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교과서 작업은 매우 신중해야 하고, 또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만큼 원고를 개발하고, 집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와 시간이 소요됩니다. 특히 전국의 국제고등학교에는 전국에서 최상위급의 학생들이 모여 있습니다. 또한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국제 계열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더욱 더 교과서 개발이나 집필에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고 그에 따른 스트레스 역시 크기 때문에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학교 내부 여건이나 교육청 단위의 재정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는 거의 해당 학교의 해당 교과목 교사들의 교과서 개발 및 집필 의지는 꺾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서울 국제고등학교에서는 세계화 시대의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고 학생들에게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 다른 일반계 고등학교와 다른 이색적인 교육과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개교한지 5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서울 국제고는 물론, 경기도의 국제 청심고, 동탄 국제고, 인천의 국제고, 부산 국제고 등의 선생님과 학생들이 사용할 국제 계열 교과서를 이미 간행하였거나, 공동으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서울 국제고 선생님들은 독자적으로 혹은 다른 국제고 선생님들 및 대학교 교수 및 연구진들과 공동으로 개발 예정 중에 있으며, 무에서 有를 창조한다는 사명감으로 교육과정 분석 및 교과서 집필에 매진할 것입니다.

[자료]

우리 학교가 이미 개발 진행 중이거나 개발 예정 중인 사회와 관련 국제 고등학교 교과서에 담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국제법 교과서

1. 성 격

‘국제법’ 과목은 국제 사회의 제도적, 규범적 성격을 이해하고, 국제 사회에서 발생하는 개인적, 지역적, 국가적 갈등을 국제법적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과목이다. ‘국제법’ 과목은 국제 사회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제 사회의 다양한 주체 간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국제법이 수행하는 역할과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단순히 법조문을 소개하는 것을 지양하고, 국제 사회의 다양한 상호 관계의 본질과 그러한 제 관계의 국제법적 성격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갈등 사례들을 국제법을 적용하여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도록 한다. 이러한 법적 소양을 바탕으로 하여 여러 국제 관계와 국제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파악하고, 그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 ‘국제법’ 과목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교과목의 하나인 ‘사회’와 고등학교 보통 교과 선택 과목인 ‘정치’, ‘법과 사회’ 등의 과목과 상호 관련성을 가지고 운영되도록 한다.

2. 내 용

영역	내용
국제법의 성립과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사회와 국제법 • 국제법의 역사적 발전 • 국제법의 연원
국제법의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사회와 국가 • 국제 사회와 개인 • 국제 사회와 국제 조직
외교 사절과 국제 조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 사절의 활동 • 다양한 국제 조약 • 한국과 국제 조약
국제 사회의 사적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화 시대의 생활 관계 • 국제 사법의 의의와 기능 • 국제 사법의 내용과 적용
국제 사회와 국제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국제기구의 활동 • 국제 연합의 조직과 활동 •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활동

국제 사회의 분쟁 해결

- 주권 국가와 영토
- 국제 분쟁의 발생과 해결
- 국제 사회의 안전 보장

국제 정치

1. 성 격

‘국제 정치’는 국제 관계의 협력과 경쟁을 이해하고 바람직한 국제 질서를 창출할 수 있는 기본적 지식과 국제 시민 사회에 알맞은 시민적 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과목이다. 이 과목을 통해 국제 정치 체계의 구조와 행위 주체의 역동적 틀을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하며, 국제 관계 및 국제 질서의 성격과 변화 추세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외교의 방향과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국제 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국제 정치’는 국제 질서의 창출, 유지, 통제 및 변혁과 관련된 내용들로 구성된다. 그 구체적 내용을 보면 첫째, 국제 질서의 구성 요인,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역할과 규범, 둘째, 국제 질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행위, 제도 및 국제 규범, 셋째, 구성원의 질서 저해나 일탈 행위를 억제하고, 의무적 행위를 강제하는 과정, 넷째, 필요 시 질서의 요소를 변경하거나 교체 등을 통해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이해로 구성된다.

2. 내 용

영역	내용
세계화와 국제 정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화에 대한 이해 • 국제 정치의 영역과 연구 대상 • 국제 정치 연구 방법
국제 정치 체계의 형성과 변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사회 및 국제 체제의 본질 • 국제 정치 체제 단위의 변화 • 국제 정치 체제의 시대적 발전
국제 정치 체계의 분석 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정치의 분석 수준과 양식 • 국가의 특성과 행동 • 국가 이외의 행위자
대외 정책과 외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 정책의 개념과 형태 • 대외 정책의 결정과 유형 • 외교의 본질
군비 경쟁과 군비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비 축소의 이해 • 새로운 군축 논리 • 탈냉전과 군축

국제 경제 교과서

1. 성 격

‘국제 경제’ 과목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국내의 경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제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기 위한 과목이다. 동시에 이 과목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교과목의 하나인 ‘사회’와 고등학교 보통 교과 선택 과목인 ‘경제’, ‘생활 경제’ 과목 등과 밀접한 연계성을 가진다.

‘국제 경제’ 과목은 국제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른 국제 경제의 여러 문제, 개방 경제 체제하에서 한국 경제의 과제와 이에 대한 해결 전략, 국제 경영 활동에 대한 이해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특히, 단순히 국제 경제 현상의 변화나 국제 경제 문제의 추상적인 인식을 지양하고, 나날이 치열해지는 국제 경쟁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면서 우리 경제 및 세계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경제적 소양과 태도를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2. 내 용

영역	내용
국제 경제 환경의 변화와 국제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방화 시대의 국제 경제 경제 주체별 바람직한 자세 국제 경제 정보의 활용과 의사 결정
국제 교역 체제의 변동과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 무역 체제의 흐름 경제의 세계화와 무역 정책 국제 경제 관련 기구의 역할
자원 이동과 경제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 요소의 국가 간 이동 다국적 기업 국제 무역과 경제 발전
국제 경쟁과 기업의 국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 통합과 국제 경영의 대두 기업 국제화의 배경과 과정 한국 기업의 국제화 전략
국제 경제 환경의 변화와 한국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 기술 발전과 전자 상거래 남북한 경제 교류 국제 경쟁력 강화와 한국 경제의 과제

세계 문제

1. 성 격

‘세계 문제’ 과목은 과학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교통과 통신이 유례 없이 발달하여 국가 간, 지역 간, 문화권 간의 상호 의존도가 급속히 심화되어 가고 있는 지구촌 시대를 맞이하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전 지구적 성격의 문제들을 이해하고, 그 해결 방안에 대해 공동으로 탐구하며, 세계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여 21세기 지구촌 시대가 요구하는 세계 시민적 소양을 기르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세계 문제’는 특정한 학문 영역에 기초한 과목이 아니라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역사학, 지리학 등 인문·사회 과학 전반과 환경과 과학 기술 문제 등 자연 과학 분야의 소양을 필요로 하는 학제적 성격의 과목으로, 평화와 인권, 발전과 환경, 에너지, 이주민과 이주 노동자, 문화 다양성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2. 내 용

영역	내용
세계화 시대의 전개와 세계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화 시대의 등장 배경 세계화 시대의 특성 주요 세계 문제
평화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화의 의미 세계 분쟁 지역과 테러 세계 평화 체제의 구축
인권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 문제의 등장과 전개 인권 침해의 유형과 실상 인권 보호 제도와 해결 방안
발전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전의 개념과 역사적 전개 세계의 빈곤 지역 발전의 문제점과 대안
환경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구 환경 문제의 성격과 등장 과정 세계 주요 환경 문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대책
에너지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 문제와 발생 원인 세계 에너지 자원 지속 가능한 에너지 자원
이주민과 문화 다양성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민과 이주 노동자 문제 이민과 이주 노동자를 위한 보호 장치 문화 상대주의 문화 다양성
지속 가능한 미래와 인간 안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 불가능한 지구 지속 가능한 발전 인간 안보

비교 문화

1. 성 격 :

‘비교 문화’ 과목은 타 문화 연구와 이해를 통해 우리 문화를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봄으로써 국제 사회에서의 다양한 문제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과목이다.

‘비교 문화’는 가급적 추상적 이론 소개를 지양하고 다양한 사회의 구조적 배경을 이루는 문화적 특성과 구체적인 관습들을 소개한다. 비교 문화적 관점을 학습하고, 특정한 문화권에 대한 직접적·간접적 문화 체험과 문화 기술지 쓰기 등의 실습을 포함하도록 구성한다. 이를 통해 현대 사회의 문화 접촉과 급속한 문화 변동 과정에서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하는 방법을 인식하며,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적 상대주의를 극복하여 다문화 시대를 살아가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키운다.

2. 내 용

영역	내용
인간과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의 의미 문화의 특성 문화와 인성
문화 연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 비교의 관점 문화 연구의 방법 문화 기술지와 사례 연구 방법
문화와 사회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어와 상징의 해석 사회 제도와 문화 환경과 적응 체계
문화 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과 문화 변동 사회 변화와 문화 변동 전통과 창조
문화 충격과 적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 연구와 문화 기술지 쓰기 문화 충격과 문화 적응 문화 성찰

인류의 미래 사회

1. 성 격

‘인류의 미래 사회’ 과목은 인류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 세계인으로서의 의식과 태도를 함양함으로써 지구촌 시대의 인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제 전문인을 기르기 위한 과목이다. 인류 사회의 미래에 관심을 가지고 인류의 장래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미래학 연구 방법과 성과, 인류 사회의 변동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는 정보화와 지구촌화 등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과학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 학습함으로써 미래 사회에 대한 전망과 준비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추 수 있도록 한다.

3. 내 용

영역	내용
미래 사회의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에 대한 관심 미래학 연구 방법 미래 사회에 대한 연구 관점과 한계
정보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 사회의 특성 정보 매체의 활용과 문제점 정보 사회에서의 인간 생활
지구촌 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구촌 형성 인류의 공동 문제 지역화와 세계화
과학 기술과 인류의 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학 기술의 발전과 영향 과학 기술과 인간 과학 기술과 인간적 가치
미래 사회의 대응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 인류 사회의 문제 인류애와 세계 시민 의식 지구 환경 보전과 우주 개척


과제 연구

1. 성 격

‘과제 연구’ 과목은 ‘국제 정치’, ‘국제 경제’, ‘비교 문화’, ‘지역 이해’, ‘세계 문제’ 과목 등에서 학습한 지식을 바탕으로 학습자가 직접 탐구하도록 하는 과목이다. 학습자는 개인적 관심과 적성 및 능력에 따라 특정 영역을 자기 주도적, 창의적으로 학습하는 능력을 기른다.

‘과제 연구’ 과목은 과제 연구의 의의와 방법을 다루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들이 실제 탐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되, 탐구 영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과제 연구’는 주로 세계 정치와 경제에 관련된 문제를 비롯해서 세계의 사회, 문화, 환경, 에너지, 정보 통신 등의 문제에 집중하여 과제를 탐구한다.

학습자는 개인적 관심과 적성 및 능력에 따라 특정 세부 영역을 자기 주도적, 창의적으로 심층 탐구하고 학습하거나, 모둠별로 공동 토론 및 연구를 하여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발표한다. 

국제기구의 역할 연구

- 세계 정치 질서와 국제 연합
- 세계 경제 체제와 브레턴우즈 경제 기구
- 지역 기구와 세계의 정치·경제

2. 내 용

영역	내용
과제 연구의 의미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 연구의 의미 • 과제 연구의 대상 • 과제 연구의 방법 • 과제 연구의 평가
오늘날 세계를 보는 분석 시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상주의 시각 • 현실주의 시각 • 자유주의 시각 • 구조주의 시각
새로운 세계 정치 질서 형성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세계 정치 질서 • 세계의 안보 동맹 체제 • 새로운 이론들
전쟁과 평화의 문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의 분쟁 지역 • 국제 테러 문제 • 인종적, 민족적, 언어적, 종교적, 문화적 갈등 • 국제 연합과 지역 기구의 역할
인권과 주권의 문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과 주권의 대립 • 세계 인권 문제 • 세계 인권 보장 체제
새로운 세계 경제 체제 형성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세계 경제 체제 • 자원 문제와 남북문제 • 지역주의의 확산과 대책
발전과 저발전의 문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발전의 실태와 원인 • 발전 전략의 변화 • 국제 개발 원조와 공정한 세계 무역
국제기구의 역할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정치 질서와 국제 연합 • 세계 경제 체제와 브레턴우즈 경제 기구 • 지역 기구와 세계의 정치·경제



인정도서 정책의 쟁점과 발전 전략¹⁾



김 정 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임연구위원

요약

교과서 정책의 현안은 ‘도서 편찬 제도로서의 인정화와 존재 형태로서의 디지털 교과서를 연계시켜 시장의 창의적 자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인정제 확대 과정의 쟁점과 대안, 디지털 교과서의 운영 방안, 교과서 선진화를 위한 관련 법규 조정’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편찬 제도의 기대 가치에 대한 전문가 자문과 설문 조사 등의 결과, 인정제의 가치는 ‘자율성 확보, 다양성구현, 시장성 향상, 효율성과 효과성 증대’이지만, ‘정확성과 공정성 약화, 교육과정 준수 약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서 오류와 편향성 대책으로는 ‘공개 검증과 자문 및 모니터링제’가 긍정적이고, ‘행정 별 제’의 효과에 대한 반응 정도는 그보다 좀 낮았다. 시·도 교육청은 인정제 심사를 ‘질 관리를 앞세우는 검정의 경성 시스템에서 창의적 다양성을 추구하는 인정의 연성 시스템’으로 이행해야 된다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향후 인정제 시행의 안정적 성공을 담보하고, 미래형 디지털 교과서의 본격적 도입을 위하여 ‘교육과정·교과서 정책의 연성화 패러다임,

교육과정·교과서 정책의 소통 체계’라는 두 가지 부문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정부와 시장 및 학교가 창의적 교육을 공동 비전으로 중심으로 다양한교과서를 공급하겠다는 전략도 공유한다면 교과서 자체의 생존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보았다.

1. 연구 주제와 방법

선진화 정책의 목표인 ‘창의적인 산 지식을 제공하고, 학습자 친화적인 미래형 교과서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현행 서책형의 한계를 넘어서야 하는 데, 그것은 디지털 교과서일 수밖에 없다. 교과서 제도 변경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미래교육에 맞도록 그 존재 형태를 근본적으로 변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과서 존재 자체의 변혁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또 정부가 관여하는 바를 줄이고 시장의 창의적 자율성을 키워 주어야 한다. 검정을 줄이고 인정제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선진화 정책은 이렇게 디지털교과서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환경 조성의 의미를 갖고 있다. 앞으로 디지털 교과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천명한 스마트 교육 정책

현재(As-is)	스마트 교육(To-be)
(교육내용) 정형화 지식, 교과서·참고서 따로	서책형 + 디지털교과서 병용 (교과서·참고서 통합, 풍부한 교육자원 활용)
(교육방법) 교수자 중심, 교실 중심 수업	학습자 중심, 교실 및 온라인 수업으로 확장
(교육환경) 단말기 보급 등 인프라 중점	교원역량 및 정보기술 활용 강화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12업무보고서

1) 이 글은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의 2011년 정책과제 보고서를 요약한 것입니다.

연구진 : 김정호(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승미(일산덕이중), 소진형(성남서중), 김만곤·노진덕·이림(한국교과서연구재단)

은 정부가 다음과 같이 모형화한 ‘교육내용·방법·환경’의 혁신을 주도하는 방향이다. 교육 방법 혁신은 혁신적인 교과서를 전제로 할 때 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바로 현 시점이 교과서 정책과 시장 및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법 등 모든 부문에서 전략적 변곡점(strategic inflection point)이라 할 수 있다. 이 변곡점은 정부가 교육의 미래 전망에 따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극적인 정책적 변혁을 이루어야 할 상황을 나타내는 것인데, 인정제 확대 정책도 그런 사례가 될 것이다. 이 연구는 ‘미래형 교육을 위한 인정제 발전 방안’은 무엇일까라는 과제를 에 대한 대안을 찾으려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연구는 ‘연구주제 설정을 통한 과제구성(2011. 12.) ⇒ 선행연구분석과 전문가 자문 협의(2012. 1. - 3.) ⇒ 인정도서 쟁점에 대한 전문가 설문 조사 ⇒ 전문가 논평의견 반영한 결론 도출’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다. 설문 조사는 2월과 3월에 전문가 60여명을 대상으로 ‘1차 - 교과서의 기대 가치 평가, 2차 - 교과서 현안 인식’에 대한 것으로 하였다.

2. 인정도서 제도의 쟁점

인정제의 핵심적인 쟁점은 ‘질 관리와 인정제 본연의 가치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있다. 설문 조사 목적은 교과서 인정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치는 어느 정도이며, 교과서 질 관리를 위한 방안은 무엇이고, 교과서와 관련된 몇 가지 쟁점에 대한 판단, 앞으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지 네 가지 부문을 전문가의 관점을 통해 판단하려는 것이었다. 설문의 내용과 응답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교과서의 기본 가치

교과서 제도를 개편해 가는 목적은 바로 현 단계의 문제점을 다음 단계가 해결하거나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함이다. 교과서의 기대 가치는 현재 교과서를 검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보는 절대 기준과 사회적 쟁점이 되는 사안 및 시장질서와 사후 결과 평가를 중심으로 여덟 가지로 나누었다. 여덟 가지는 다음 표와 같

이 ‘교과서 심의 조건 가치, 개발 과정 기대 가치, 결과 기대 가치’의 세 부문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표 1〉 교과서의 기대 가치

심의 조건 가치	개발 과정 기대 가치	결과 기대 가치
교육과정 준수	자율성	시장성
정확성		다양성
공정성	효율성	효과성

□교육과정 준수 : 교과서의 내용 체계 반영

□정확성 : 오류가 없도록 내용을 구성하는 것으로 질 관리의 초점이 되는 사안

□공정성 : 이념이나 사회적 쟁점에 대한 편향을 방지하는 것으로 교과서에 대한 사회적 쟁점의 대표적인 사안임

□시장성 : 교과서도 시장 경쟁을 통해 거래되는 상품인 만큼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시장성이라고 표현하였으며, 공급자 중심의 체제에서는 실현 정도가 낮을 것임

□다양성 : 교과서의 내용 구성은 교육과정 근거하기 때문에 차이가 없지만, 그것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전개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도서별로 차별화가 될 수 있으므로, 검·인정 체제에서는 기대 효과가 가장 큰 가치임

□자율성 : 시장이 다양성을 구현할 수 있는 창의적인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하여 정부 규제를 완화하여야 하기 때문에, 자율성을 시장의 필요 조건으로 상정함

□효율성 : 좋은 교과서를 위해서는 개발이나 심의 과정에서 시간과 물적 비용을 최소화하여 공급자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고, 정부도 시스템 운영의 부담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효율성을 과정상의 기대 가치로 상정함

□효과성 : 학교의 교수·학습 과정을 교육과정 취지에 맞도록 안내하는 교과서가 좋은 교과서이기 때문에 효과성의 가치도 중요한 기대 요인이 될 것임

설문은 지금까지 세행하고 있는 검정제에서는 어느 정도 실현되어 왔는지 평가해 보고, 앞으로 인정제를 확대 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측해 보고자 한 것이다. 그 평가는 5단계 척도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기대 가능성이 높고, 낮을수록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해석한다.

기대 가치별로 응답 결과를 정리하며, 검정제와 인정제의 차이는 '교육과정 준수, 정확성, 공정성, 다양성, 자율성' 부문에서 크게 나타났고, '시장성, 효율성, 효과

성'에서는 미세한 차이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검정제에서 실현도가 가장 높다고 평가한 가치인 교육과정 준수는 무려 4.69점으로 그것이 교과서 심의의

〈표 2〉 교과서 기대 가치의 전체 평균 비교

구분	교육과정 준수	정확성	공정성	시장성	다양성	자율성	효율성	효과성
검정	4.69	4.23	4.32	3.28	2.98	2.82	3.25	3.47
인정	3.83	3.32	3.27	3.95	4.03	4.12	3.32	3.57
인정/검정	81.7(%)	78.5(%)	75.7(%)	120(%)	135(%)	146(%)	102(%)	103(%)

절대 조건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엄격한 심의 과정을 통한 합격·불합격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발행사는 내용의 정확성과 공정성 등 기본적인 질 관리 자체에 주력하였을 것이다. 그 결과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해석하거나 내용 구성을 새롭게 해 보려는 자율성이 위축되고, 당연히 합격된 교과서 간에도 차별화가 약한 정도(자율성 2.82점 / 다양성 2.98점)로 되었다. 특히 이 두 가지 자율성과 다양성의 실현 정도를 다소 부정(3점이 보통임)적으로 인식한다는 사실은 바로 검정제의 한계이자 동시에 그것이 인정제의 기대치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점에 대한 개선 기대를 인정제에 대한 응답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정제에서 기대하는 가장 큰 가치는 자율성 확보(평균 4.12점)이기 때문에, 그 연계선상에서 교육과정 준수 정도는 좀 낮아지지만(평균 3.83점) 시장을 겨냥한(평균 3.95점) 다양성에 대한 기대(평균 4.03점)는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즉 인정제를 확대하면 교과서 개발의 '자율성 확대 ⇨ 교육과정 준수 완화 ⇨ 다양성 강화 ⇨ 시장성 확산'이라는 민간 시장 중심의 선순환적 생태계가 작동될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정부 규제 완화 ⇨ 자율성 강화 ⇨ 정확성 ⇨ 공정성 약화'라는 시장기능의 오작동(誤作動)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다.

이 설문 결과를 중심으로 찾을 수 있는 핵심적인 쟁점은 '시장 기능의 오작동 방지'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시장 기능의 선순환적 생태계 형성'을 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 쟁점에 대한 정책 전략은 무엇인지 계속해 보기로 하자.

나. 교과서의 오류·편향 방지 방법

우리는 앞에서 인정제의 기대 효과를 자율성과 다양성이라고 보았고, 그 과정에서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점이 오류와 편향 가능성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렇다면 쟁점은 당연히 인정제의 취지를 살리면서 내용 오류나 이념 편향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다.

이 설문에서는 그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공개 검토제, 전문 감수제, 모니터링제, 행정 벌제'를 상정하고, 응답은 5단계 척도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답으로 판단한다.

- 공개 검토제(심의 과정에서 심의본을 일정 기간 공개하여 내용 오류에 대한 일반 대중의 검토 의견을 받아서 판정 시 참조)
 - 전문 감수제(교육청에서 인정한 교과서를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오류나 편향 여부 등 검토)
 - 모니터링제(사용 중인 교과서의 내용 오류를 상시적으로 찾아 수정)
 - 행정 벌제(사용 중인 교과서의 결정적인 오류 확인이나 인정 취소 등 중대한 문제 발생 시 경·중에 따라 과태료 부과)
- 네 가지 방안의 응답 결과를 평균치로 계산하여 비교해 보자.

응답자들이 교과서의 오류를 줄여 질 관리를 하는 데 효과성이 가장 높을 것이라고 본 방안은 전문 감수제

〈표 3〉 교과서 오류 방지 네 가지 방안의 평균치

방안	공개 심사	전문가 감수	모니터링	행정벌
평균치	3.25	4.08	3.95	2.85

(4.08점)이고, 가장 낮은 것이라 한 것은 행정별제(2.85점)이다. 공개 심사제와 모니터링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역시 심의 과정에서 전문가 감수를 받아 오류에 대한 검증은 한 번 더 하는 것이 좋다는 뜻이라고 할 것이다. 모니터링은 이미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이 공식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때, 공개 심사와 행정별제는 시행해 본 적이 없는 생소한 방법이라서 신뢰성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교과서 현안에 대한 설문에서, 다수는 '검정제와 인정제의 본질적인 구분 기준으로 정부의 역할 정도'를 들었고, 향후 교과서 정책의 이슈가 될 것으로는 '인정제 확대와 자유발행제 등의 발행 제도 변경'이라

고 하며, 2020년경의 미래 교과서상은 서책형 중심에 다지컬 교과서 보조 '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

3. 인정도서 제도의 발전 방안

인정제의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은 다음 <표 4>와 같이 '인정 시스템, 스마트 교과서'의 2대 부문으로 나누고, 그 정책 요소 다섯 가지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정책 제언의 대전제는 '인정제의 취지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시장 질서를 통한 교과서 미래 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가. 인정 시스템 개선 방안

이 방안은 '인력 동원 체제의 광역화, 심의기준·판

<표 4> 교과서 인정제 발전을 위한 제언 대안

정책 부문	정책 요소	세부 사안
1. 인정 시스템 개선	1.1. 인정제 운영 시스템	1.1.1. 인력 동원 체제의 광역화 1.1.2. 심의기준·판정원칙 연성화
	1.2. 교과서 질 관리 시스템	1.2.1. 내용조사 과정의 공개화 1.2.2. 감수 체제의 효율화
	1.3. 교과서 가격 자율화	1.3.1. 시장의 자동 조절화
2. 디지털 교과서 개발	2.1. 디지털 교과서 공급	2.1.1. 교과서 DB 구축 공공화
	2.2. 디지털 교과서 심의	2.2.1. 디지털 교과서 심의 효율화

정 원칙 연성화'라는 두 가지이다. 중앙 정부가 교과서 유관 기관을 지정하여 교과 전문가 인력풀 구축과 필요 시 자격과 참여 여부를 확인하여 시·도 교육청에 중개 토록 하는 인력의 광역화 방안은 전문성 제고와 교육청의 업무 경감 등 가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교과서 심사 기준과 원칙은 '경성(硬性)과 연성(軟性)'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경성 심사는 난도가 높은 지표를 제시하고 가치 판단을 엄격하게 하는 원칙적인 시스템으로서, 시장에서는 자율적인 창의성 보다는 기준과 원칙에 맞추어 불합격을 피하는 전략으로 대응해야 된다. 연성 심사는 반대로 최저 필수 기준만 제시하여 그 이행 여부만 확인하고 그 이상의 가치 판단은 시장 '에 맡기도록 하는 유연한 시스템이다. 이 연성 시스템으로 간다면 시장은 필수 최저 기준을 반드시 지켜

불합격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재량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창의성을 발휘하여 다양한 교과서를 구성하려 할 것이다. '2010 교과서 선진화 정책'의 비전을 실현하고, 앞으로 '스마트교과서'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인정제는 '질 관리를 앞세우는 검정의 경성 시스템에서 창의적 다양성을 추구하는 인정의 연성 시스템'으로 이행해야 된다는 제언을 하고자 한다.

나. 교과서 질 관리 시스템

현재 인정제를 통해 공급되는 교과서는 검정제 교과서보다 질적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오류와 편향 등 질적 저하 현상을 방지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앞의 설문 조사에서 이미 보았듯이 그 방법에는 '내용에 대한 공개 조사, 감수, 모니터링, 행정 발'이

있다. 여기에서는 공개 조사와 감수제에 대한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교과서 심의의 완결성은 누가 어떻게 심의를 하는가에 달려있는 데, 그 방안은 심의 과정 공개 즉, ‘공개 검증’이다. 현재 검정 과정에서는 심사를 마치고 합격본을 발표할 때까지 심사본을 공개하지 않는다. 교과서 공개 조사 검증은 심의회가 판정을 하기 전에 심의본 내용을 세상에 내 놓고, 공개적으로 내용 검증을 받는 것이다. 이 과정은 ‘심의본 제출·공개(저작자와 발행사는 익명으로 하여 온라인에 탑재) → 불특정 다수의 의견 수렴 → 연구위원의 기초 조사에 선별적 반영 → 심의회 회부’라는 절차로 진행하면 된다. 공개 검증을 받는 방법은 검정 신청 발행사가 교과서 심의본과 함께 PDF 파일도 제출토록 하여 검정심의 관리기관이 각 교과서를 홈페이지에 올린 뒤, 일정 기간(약 1개월 정도) 불특정 다수의 검증 의견을 받는다. 특히 교과서의 당해 학교 교사와 배경 학문의 학계에는 이 사실을 널리 알리고 참여를 공식적으로 의뢰한다. 고지를 할 때는 누구든 실명이나 익명으로 검토 의견을 문서로 제출하면 심의 과정에서 참조하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검토 의견은 어떤 도서가 좋다･ 나쁘다와 같이 판정에 영향을 미칠 가치판단은 제외하고, 내용오류와 위법적 내용 및 이념적 편향성 또는 시의성 등에 대한 사실 관계에만 한정시키면 된다.

교과서 감수는 긍정적이고, 또 시도 교육청이 인정하는 교과서의 내용 정밀성이나 이념 균형성 등에 대한 아직 검증되지 않은 우려도 있기 때문에 감수를 법규에 규정하여 공식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감수위원회의 역할은 국가 정체성과 헌법 가치에 비추어 반국가적인 주장이나 이념적 편향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교과 내용 중 특수 전문 분야에 대한 사실 확인으로 한정하는 것이 좋다. 즉 심사 과정을 ‘연구위원회의 기초조사 ⇨ 심의위원회의 판정·수정지시 ⇨ 감수위원회의 확인 ⇨ 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최종 수정지시와 확인’ 순서로 진행해야 법리상이나 현실적으로 혼란 없이 감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다. 교과서 가격 자율화

시장 원리에 따르면 가격 자율화가 맞지만, 교과서는 무조건 자율화할 때, 다양성 실현 및 자율성 확대 미명하에 인정 교과서 내지 지도서 가격이 급상승할 경우 학생과 학부모 및 시·도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매우 커질 것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된다. 그 대안은 ‘가격 자율화에 대한 시장의 자동 조절화’이다. 학교가 교과서를 선정할 때 가격 조건을 반드시 검토하여 학생과 정부의 부담이 많이 가지 않도록 판단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공급자도 가격을 무조건 올리지는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과정을 몇 년 되풀이 하면 교과서 가격은 시장의 힘에 의해 자동적으로 정정 수준을 회복할 것이다. 단 이 방안은 시장 수요자의 합리성을 전제로 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라. 디지털 교과서 개발

스마트 교육에 필요한 디지털 교과서 개발의 성공 여부는 데이터 베이스(DB)를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달려 있다. 그런데 방대한 양의 교육용 DB 관리 종합 서비스 망 구축은 정부가 공공조직을 활용하여 구축하고, 발행사를 포함하는 민간 부문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설문조사에서도 통합적인 자료 저장 시스템(DB)은 정부가 ‘특정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의뢰하거나’ (35.9%), ‘중앙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설치하여 운영’ (33.3%)하자, 민간 발행사 협회(12.8%)와 일반 기업이나 사회단체가 개별 또는 연대하여(10.3%) 등’도 있었지만 다수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DB 운영을 해주기 바라고 있다.

그러면 디지털 교과서를 비롯한 교육용 콘텐츠에 대한 검증은 어떻게 해야 할까? 디지털 교과서는 연성 심의를 전제로 해야 할 것이고, 수많은 자료를 하나하나 가치를 검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또 수시로 교체할 자료를 검증하는 것의 실익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자료 출처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것이 더 실용적인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대량의 자료를 검증해야 하는 기술적인 난점과, 다변화되는 사회의 지식의 원활한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문화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검증만 철저하게 하고 다른 선택 사항은

유연하게 인정하여야 한다는 인정제 취지에 기반한 것이다.

4. 결론 및 제언

인정제 시행의 안정적 성공을 담보하고, 미래형 디지털 교과서의 본격적 도입을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교육과정·교과서 정책의 패러다임, 교육과정·교과서 정책의 소통 체계'라는 두 가지 부문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그 키워드는 '교과서 생태계의 창의적 자율성 강화를 위한 정부·시장·학교의 패러다임 전환'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학교의 자율성을 중요한 가치로 보는 상황에서 교육 정책은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연성화를 지향하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예상되는 오류와 편향 등의 문제는 공개 검증 및 엄격한 심사와 사용 중 모니터링 제를 활용하여 줄여나갈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교육과정과 교과서 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책적으로 더 보완시켜야 할 사안으로 '이해관계자의 합리적인 소통 체계 활성화'를 들 수 있다. 교육과정과 교과서 정책도 다를 바 없다. '교육과정과 교과서 시스템 운영 과정의 소통 체계 강화' 전략을 위해서는 두 가지 방안으로 접근할 수 있다. 하나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 제고'와 '학교의 소통력 제고'라는 두 가지이다. 교육과정·교과서 정책의 예측 가능성은 사실 학교나 시장에서는 매우 궁금해 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다. 정부가 직접 발표를 하여 정책 전망을 알리지 않더라도, 시장이 과거와 현재 상황을 합리적으로 분석하면 향후 흐름을 추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정부와 시장의 소통 체계이다. 그리고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전문성은 학교에 있으므로, 학교가 사회와 소통하는 창구가 되면 효과가 클 것이다. 현 정부의 교육과정·교과서의 정책 비전은 무엇이고, 또 사회가 바라는 교육 내용과 방법은 어떤 것인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곳이 학교이다. 그러므로 학교가 전문성을 갖고 사회와의 소통을 잘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정책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

참고 문헌

- 교육과학기술부·경기도교육청·시도인정도서협의회(2011). 인정도서 업무 매뉴얼.
-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과서연구재단(2011). 주요국의 교과서 제도 요람 - 국제 교과서 심포지엄 2011.
- 교육과학기술부(2011), 인제대국 진입으로 선진 일류국가 실현, 2012년 업무보고.
-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교육과학기술부, 스마트교육 추진전략, 2011. 6. 29.
- 김만곤(2009). "교과서 제도의 변화와 그 영향에 대한 전망", 교과서연구 57호, 한국교과서연구재단, 4-9.
- 이화성(2009). "인정 도서 확대 정책에 따른 해결 과제", 교과서연구 57호, 한국교과서연구재단, 10-18.
- 김재춘(2012). "인정도서 정책 도입의 취지: 의미와 과제", 교과서 연구 67호, 한국교과서연구재단, 13-16.
- 김정호 외(2006). 사회과 교과서 질 관리 체계 구축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06-03, 한국교과서연구재단.
- 박진용 외(2011). 수요자 중심의 교과서 체제 개발 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심재호 외(2011).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에 따른 인정교과서 질 관리 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심재호·권유진·황수영(2010). 미국의 교과서 검정 및 선정 제도 분석 - 텍사스주 & 아이오와주를 중심으로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서지영·김정호·노희방·유은미(2007). 미국의 교과용도서 정책과 질관리 체계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서지영 외(2011). 교과서 정책 국제 비교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유대균(2012). "인정도서 정책의 배경과 방향", 교과서연구 67호, 한국교과서연구재단, 8-12.
- 조난심·진재관(2010). 교과용도서 정책 현안 검토 및 제도화 방안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 한국교과서연구재단(2011). 교과서 정책의 동향과 전망, 국제교과서 심포지움 2011 자료집. 한국교과서연구재단.

교과 구분의 기준 연구¹⁾

—공통필수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황 수 아

서울대명초등학교 교사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과는 학교 교육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적 측면을 뒷받침 해주는 것으로서, ‘무엇을 가르치는가?’는 교육을 통해 ‘어떤 학생을 길러내고자 하는가?’를 나타낸다. 학생들의 발달과 사회적인 적합성을 고려하여 행해져야 하는 교과 수업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복이나 누락 없이 필요한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교과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것은 교과를 구분함에 있어 포괄성과 배타성이 있어야 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학교 교과의 구분은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모든 것을 포괄함과 동시에 서로 중복되는 것 없이 배타적이어야 한다.

국가 교육과정으로 학교 교육 활동을 안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교과 구분의 기준에 따라 교과서가 만들어지고, 각 교과서가 포괄하여야 하는 교과의 성격과 내용이 정해져 전체 학생들의 학습을 결정하게 된다.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과정이지만,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논의의 대상이 되는 교과 구분의 문제는 교육적 시각에서 벗어나 다루어지는 측면이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매 교육과정 개정 시 등장하는 교육 내용의 적정화 논의는 교과 간 내용 중복의 과다로 인하여 학생들에게 과중한 학습 부담을 주고 교육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에서 비롯된다. 이것은 각 교과의 교과서 분석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으며(홍후조, 2010), 중복된 내용을 교과서에 싣게 되어 교과서 사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비용의 증가를 야기한다. 학교 교육의 제한성을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교과를 정선하여 제공하여야 하나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교육과정 개정에는 정치적인 요소와 교과 집단의 이해관계가 우선 반영되어 개선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덜고 교육 내용을 적정화하기 위해 학년군제, 집중 이수제와 더불어 기존 10개의 교과를 7개의 교과군으로 재정비하는 개선을 단행하였다. 이것은 기존에 유사하다고 여겨지는 교과목을 묶어 하나의 교과군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수적이었던 교과 구분에 변화를 주고자한 것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교과를 교과군으로 묶는 과정에서 교과 구분 기준이 불충분하여 교과군 내 교과간 결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2011년 고시된 교과 교육과정의 모습은 10개 교과로 나누어져 있던 이전과 크게 다를 바 없게 되었다. 교과 구분 기준을 확립한다는 것은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어려움을 겪는 교과의 존재 문제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주는 것으로서, 전체 교육과정을 조망하는 총론적 입장에서 중요하게 논의해야 하는 문제이다.

특히 공통필수 교육과정의 경우 모든 학습자들이 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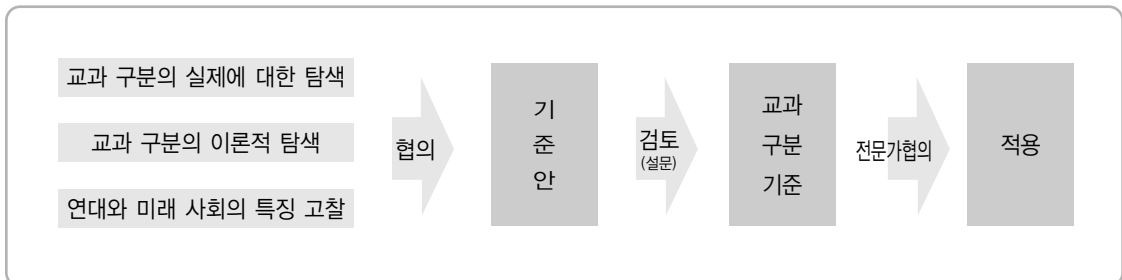
1) 황수아(2012). 교과 구분의 기준 연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을 재구성한 것임.

은 수준에서 동등하게 이수해야하는 교육과정인 만큼 타당하게 구분된 교과가 제공되어야 한다. '모든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은 학습자의 개인적 측면, 사회적 측면 등에 대한 세심한 고려를 통해 정련되어 답해져야 한다. 공통필수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교과 구분은 12년 동안 제공되는 학교 교육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교과의 형태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하위의 교육활동에서는 이것이 통합되어 나타나고 상위의 교육활동에서는 이것이 다양한 교과목으로 분화되어 나타나는 기준이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기본 교과를 도출해내기 위한 교과 구분 기준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탐구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기준을 찾아내고자 탐색하였고, 그 과정을 제시하고 실제로 교과를 구분해 봄으로써 교과 구분 기준의 타당한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II. 교과 구분 기준 탐색

1. 교과 구분 기준의 설정 절차

우리나라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서 타당한 교과 구분을 통한 교과의 적정화를 이루고자 시작한 이 연구는 기준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타당성과 관련자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검토하여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떠한 절차에 의해 연구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고찰은 결과적으로 도출되는 교과 구분 기준의 타당화에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절차를 [그림 II-1]과 같이 제시하고 그 절차에 따라 교과 구분 기준을 도출해 냄으로써, 교과 구분 기준 연구의 기틀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그림 II-1] 교과 구분의 기준 선정 과정

이 절차는 교과 구분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다양한 절차 중 하나로서 제안된 것이다. 연구자는 제시한 절차 중 교과와 관련된 이론적인 탐색과 이를 통해 추출한 기준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여 교과 구분 기준을 생성해 보는 과정까지 수행하였다. 기준을 탐색해 내기 위해서는 방대한 자료의 탐색과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하지만, 개인 연구자에 의한 탐색이라는 점에서 자료의 검토와 기준 도출상의 제한성으로 말미암아 연구의 한

계점이 있음을 밝힌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 교과 구분 기준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후속하는 연구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교과 구분의 실제적 탐색

교과 구분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교과 구분이 실제 우리 교육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살펴보는 것은

교과 구분의 정당성과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교과 구분의 실제적인 탐색은 역사적 측면에서 교과 구분을 살펴보는 것과 현재 다른 여러 교육 상황에서의 교과 구분을 살펴보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교과 구분의 역사

교육에 대한 역사적인 조망은 정치, 행정적인 맥락, 그리고 교육과 학교에 대한 일반적인 변화의 모습을 알 수 있게 해준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굿슨 Goodson, 1998).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교과는 어떻게 성립하게 된 것인지, 교과의 성격은 어떻게 변모해 왔는지, 무엇 때문에 교과로서 지위를 얻게 되었는지 알아보는 것은 앞으로의 교과 구분 기준을 선정함에 있어 역사적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다.

먼저 서양의 교과 구분 역사를 살펴보면, 고대부터 학문 중심적 전통이 발달하였으며, 지식에 대한 이해, 학교 교육의 목적, 학습자에 대한 인식 등에 의해 교과 구분이 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서양에서는 전통적으로 그리스 시대의 7자유과를 중심으로 한 자유교육이 인문 중심 교과를 바탕으로 오랫동안 그 지위를 유지해 왔고, 그것은 특권층을 위한 장식적인 교육의 성격이 강하였다. 고대에는 전인적인 인간 발달과 성숙한 지도자 양성을 위한 변증법, 논리학 등이 발달하였고, 이를 이어받은 르네상스 이후에는 고전에 대한 낭만주의적인 인식에 의해 상당한 기간 동안 현실적인 필요와는 상관없이 전통적인 교과가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교육의 수요계층이 점차 확대되고 산업 혁명, 과학의 발달 등에 따라 세계관과 지식관이 변화하면서 교육 내용 또한 달라졌다. 실용적이고 유용한 교과들이 학교 교육에 추가되었으며 사변적이고 철학적인 교과들은 점차 정리되었다. 신분 사회 속에서 귀족들의 요구만 수용하던 교육은 교육 수요자가 확대되고 교육이 국가 제도로 정립되면서 학습자, 국가, 사회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게 되었다. 이것은 교육의 기능과

역할이 옛날과는 달라졌음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교과 또한 균형적인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함은 역사적 흐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서양 교과의 역사적 흐름과 유사하게 중국 유교경전 중심의 인문 교과들이 학교 교육의 중심을 차지해 왔다. 실용적이고 유용한 교과들보다는 학문적이고 철학적인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한 경전이 교육의 중심이 되었고, 교육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과거 시험을 통해 신분이 세습되는 형태를 띠었다. 그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유학 숭배 사상으로 학자와 교사가 동일시되면서 학문적 교과가 우세하였다.
- 과거 시험을 통한 관리 등용으로 시험 과목이 학교 교과를 결정하였다.
- 중앙집권적 국가 체제의 지속적인 유지로 국가·사회적 요구가 교과에 많이 반영되었다.
- 교육을 통한 교화를 강조하여 윤리 교과가 강조되었다.
- 교육에 대한 개인적 요구, 학습자의 측면이 간과되어 다양한 교과가 나타나지 못했다.

조선 후기에 들어서야 제국주의 국가들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면서 근대 교과가 도입되었고, 일제 침략 이후에는 일제의 황국신민화를 위한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교과의 조정이 일어났다. 침략기에는 교육이 국민 교화의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교과는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 초등교육과정에서는 모두를 위한 공통필수 교육과정으로서의 교육적 고려보다는 신민으로서의 기초 능력 함양이 주된 목적이 되었다.

해방 이후 국가교육과정을 제시함으로써 교육을 통한 국민 양성에 힘쓰고자 하였지만 이 역시 정치적 격동과 맞물려 정치적 요구가 교육과정 개정의 주요 기준이 되어 왔다(조난심, 2009). 이와 더불어 각 교과들이

학문적 체계를 형성해 나가며 집단화 되고 독립된 교과 간 경쟁과 배제가 나타나면서,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는 교과의 구성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국가 교육과정 체제 하에서 국가의 정치적·사회적 요소들이 교육에 포함되는 것은 필연적이지만, 미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교육 내적인 요구에 의해서 교육적인 방향으로 교과의 구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에서 정치적 특성을 배제한 정당한 교과 구분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타당한 교과 구분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2) 현대 교과 구분의 실제

다른 국가의 교과 구분을 살펴보는 것은 교과 구분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알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교육과정이란 사회적 산물이니만큼 그 사회의 역사적, 문화적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사회에 따라 고유한 특성을 나타내게 된다. 한 국가 내에서도 시대적 상황에 따라 교육과정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국가들 간의 차이가 나타남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각 사회의 교육과정 속에서 인간의 성장·발달이라는 본질적이고 바람직한 교육의 궁극적 목적 아래 나타나는 교육의 보편성을 찾아볼 수도 있다. 비교해 본 나라는 국가교육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영국, 독일, 프랑스, 핀란드, 스웨덴, 싱가포르, 일본과 유사 국가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는 호주, 그리고 각 주에 교육과정 자율권이 부과된 미국과 캐나다이며, 추가적으로 세계적인 교육과정인 IBO(국제학위협회)도 포함하였다.

필수교과는 그 성격상 국가의 모든 학습자들에게 필수적으로 가르쳐야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국의 모든 학교들에 강제력을 행사하는 국가 교육과정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많은 나라에서 국가 교육과정을 세우고 학교에 강제력을 행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역사적으로 여러 개의 주(州)가 모여 연방 국가를 이룬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는 국가 교육과정 없이 주마다 자율적으로 교육을 관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교육의 질과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강령과 권장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강제성이 없을지라도 국가는 학생들이 배워야 할 교과들을 학교에 권장함으로써 학습자들이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자질을 함양시키고자 한다.

베나보트(Benavot) 등(1991)은 교육과정 비교를 통해 각 국가의 교과가 국가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에서 점차 벗어나 서로 유사해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각 국가들은 핵심적인 교과들을 공통적으로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있으며, 이 교과 교육을 위해 투자하는 교육 시간도 유사함을 보였다. 초등학교 교과의 근대적인 유형은 언어의 확대와 함께 수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체육, 예술을 교육과정에 포함하는 것이다. 이것은 공통된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으로서 필요한 덕목과 지식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교과 구분의 세계적인 경향성을 파악하여 우리 교육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각 국가들의 필수 교과 구분을 통해 나타나는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필수교과는 평등교육의 일환으로 학습자의 수준을 담보함과 동시에 고등학교 선택 교육과정의 준비과정으로서 제공된다.
- 사회 구성원(시민)으로서 필요한 능력과 태도를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초등학교에서는 기초·기본적인 교과들로 3R(읽기, 쓰기, 셈하기)을 포함하는 문해력과 수리력 교육이 중심적으로 이루어진다.
- 국제화, 세계화 추세를 반영하여 초등학교 시기부터 외국어 교과가 교육과정에 새롭게 편성되고 있다.
- 폭넓고 균형있는 전인적 발달이 가능하도록 교과를 제시한다.
-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체육, 예술, 외국어는 기본 교과로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 필수교과의 수는 초등학교에서는 5-9개로 제시되고 있다.

- 역사적, 사회 문화적 요소가 반영되어 종교, 모국어와 같이 국가별 특색 있는 교과가 제시되기도 한다.
- 초등학교에서는 주로 통합적 교육이 이루어지며, 중학교에 진학하면 교과목이 더 세분화되어 제시된다.

3. 교과 구분의 이론적 탐색 : 교육과정 결정의 세 기초와 교과 구분

교과는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교육과정의 핵심이다. 교육 목적은 교육을 통해 무엇을 실현할 것이냐, 어떤 학습자를 길러낼 것이냐에 대한 답

으로서, 교육의 성립과 연결된 기본적인 교육의 문제이다. 교육을 통해 실현해야 하는 모습은 학자들마다 다양하지만 결국 크게 학습자, 사회, 교과(학문) 중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정리해 볼 수 있으며, 여기서 교육과정 결정 기초로서 세 요소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세 요소에 기반을 둔 서로 다른 교육관으로 말미암아 각각 강조하는 교과 또한 달라지기 때문에 교과구분 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학습자, 사회, 교과(학문)의 측면에서 요구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표 II-1〉 학습자, 사회, 교과(학문)의 요구

학습자	사회	교과(학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아실현 • 자아존중, 정서적 안정, 정신 건강 • 창의적 표현 • 개인적 재능과 흥미의 배양 • 여가선용 • 현대 상황에 대한 준비 • 건강과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으로서의 책임감 • 직업 준비 • 민주적 태도의 개발 • 건강 • 개인적 및 사회적 적응 • 윤리적 가치 및 행동 • 타인의 복지에 대한 관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자 이해력 • 기초 기능의 숙달 • 중요 교과의 기본적인 사실과 이론들에 대한 완벽한 습득 • 비판적 사고력 • 문제 해결력 • 좋은 학습기술과 학습태도 • 학습의욕

출처 : 워커(Walker, 1997), 허숙·박승배 역(2004: 66-70)에서 수정

먼저 학습자 측면에서는 공통적으로 인간의 성장, 발달이라는 교육적 목적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인적인 성장을 강조하고 있고, 이에 따라 다양한 교과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교과를 제시함에 있어서도 지, 덕, 체의 고른 발달을 강조하며, 이것은 개인적인 유용성 보다는 인간적인 발달과 성장에 초점이 맞추어진 경우가 많다. 인간의 성장이 곧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생활의 요구와 연결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외적인 실용성 보다는 학습자의 본성에 입각한 내적인 성장을 추가한다는 점에서 사회를 강조하는 입장과 교과상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크게 국가의 유지·발전과 생활능력 향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시대에 따라, 교육과

정 결정자의 교육철학에 따라 강조되는 지식이 다를 수 있지만 이 관점에서는 국가 유지에 필수적인 시민의 자질을 기르기 위한 예체능과 기초 교육에서부터, 국가의 발전을 위한 상위의 지적 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과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반면 생활에 유용한 교육을 추구하는 교육의 목적에서는 좀 더 실용적인 교과가 강조되며, 이전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수공, 실물교육이 등장한다. 인간이 삶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삶에서 유용성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기 때문에 건강한 생활을 위한 체육 등도 강조되고 예술 또한 교과로 제시된다.

앞의 두 입장과는 다르게 교과에 대한 강조, 지식에 대한 강조는 지식의 탐구, 지력의 계발을 목적으로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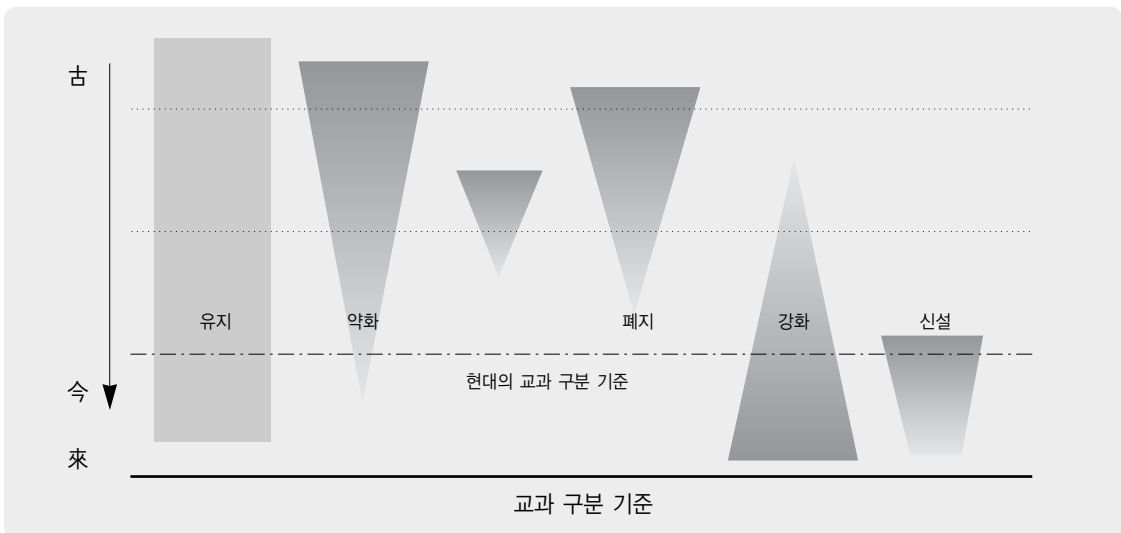
고 있어 상대적으로 학문 위주의 교과를 중시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교과와 학문이 일대일 대응을 이루고 있으며, 학문적 체계를 갖추지 못한 교과들은 사고의 계발이라는 교육 목적상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강조되지 않는다. 교과의 실제적인 유용성 보다는 탐구력, 사고력 등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교육의 목적이 있으므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교과가 제시되는 것이 특징이다.

역사적으로 서로 다른 요구를 가진 학습자, 사회, 학문 각각의 관점들은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다른 요소들을 배제하여 왔다. 하지만 오늘날 모든 학생들을 위한 공통필수 교육과정의 존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학습자, 사회, 학문 세 요소에 대해 균형적인 관점을 가지고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은 이 세 요소 모두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학생들의 지적 능력과 자아실현, 사회적 필요와 관련된 교육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지식·기술을 실용적 지식 그 자체로서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 능력 함양과 연결시켜 궁극적으로 학생

의 내적 성장과 자아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4. 현대와 미래 사회의 특징과 교과 구분

앞서 살펴본 것은 고대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의 교과 구분과 관련된 내용을 망라한 것으로서, 이러한 탐구 결과를 통해 교과 구분 기준을 추출해 낼 수 있다. 하지만 이것만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교과 구분 기준을 확정해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과거의 교과 구분 기준이 오늘날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참고 자료를 제공하여 주는 것은 사실이나, 시대적인 적합성이 부족하다. 근래의 교육과정 개정에 있어서도 시대와 사회가 변함에 따라 교육과정의 삭제·폐지, 확대·강화, 축소·약화, 추가·신설 등이 이루어지는 것(홍후조, 2011)처럼 교과 구분 기준에 있어서도 기존 기준의 생명주기(life cycle)를 판단하여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홍후조는 이러한 기준 설정의 원리를 아래의 [그림 II-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림 II-2] 교과 구분 기준의 변화

유지되는 교과 구분 기준은 시대를 초월한 교육의 본질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현대의 교과 구분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도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전인적 발달과 같이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기존에 강조되었던 것 중에는 오늘날 우리 교육 실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적합하지 않은 것들 또한 있다. 이는 공간적, 시간적 차이로 인하여 그 적절성이 약화된 것들인데, 예를 들어 종교와 신앙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기존의 교과 구분 기준 중에는 그 중요성이 약화되거나 아예 없어지는 것도 있으며, 이는 기준의 약화, 폐지로 나타난다. 이와는 반대로, 학습자의 진로에 대한 고려와 다양한 매체 활용을 통한 정보처리 능력은 사회 변화에 의해 새롭게 강조되는 것들이다. 이렇게 교과 구분 기준은 기존의 것이 강화되기도 하고 없던 기준이 신설되기도 한다.

기존의 교과 구분을 현대 교육에 맞게 수정하고 약화, 폐지, 신설, 강화되는 기준들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미래 사회의 변화를 예측하여 사회가 교육에 요구하는 바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윤현진 등(2007)의 연구를 보면 미래 사회는 과학 기술이 고도로 발전하여 기술이 경제의 원천이 되는 사회이며, 정보 통신의 발달로 시간의 제약과 거리의 원근이 사라지는 사회이다. 이에 따라 2차 산업보다 기술과 서비스를 중시하는 3차 산업이 더욱 강화될 것이며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 중심으로 산업, 경제 활동이 변화할 것이다. 물리적인 거리의 제약에서 벗어나면서 세계화가 가속되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면서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요구된다. 사회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기존의 지식들은 생멸주기가 짧아져 무용지식(obsolete)이 되고, 이에 따라 지속적인 학습이 이루어져야 하는 평생 학습 사회가 도래할 것이다(토플러 Toffler, 2006). 이러한 변화들은 이미 나타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며 미래에는 더욱 그 속도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것이 공통적으로 예측되는 미래 사회의 모

습이다. 이렇듯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의 변화는 필연적이다. 이는 사회 변화에 따른 국가의 유지·발전과 더불어 미래 사회를 살아갈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검토라고 할 수 있다.

5. 교과 구분 기준 설정

여러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교과 구분의 기준과 제시된 교과를 정리하는 것은 교육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과 그에 따른 교육 내용 선정의 차이를 알아보는 작업임과 동시에 교육에 대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요구, 준거를 탐색해 볼 수 있는 방법이다. 교과 구분 기준은 타당성과 포괄성, 배타성을 띠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영역에서 교과 구분 기준 관련 논의들을 살펴보고 정리하였다.

실제적, 이론적 측면과 현대와 미래 사회의 특징에 대한 고찰을 통해 살펴본 교과 구분 기준은 반복적인 검토와 협의의 과정을 통해 <표 II-3>으로 재조직하였다. 교과 구분 기준안은 문헌 연구를 통해 파악한 다양한 기준들을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것은 통합하고 현대 사회에 적합하지 않은 것들은 삭제하여 서로 배타적 이면서도 학습자를 둘러싼 요구들을 포괄할 수 있는 진술로 나타낸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수많은 문헌 조사와 협의를 바탕으로 선정된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이는 연구자가 임의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타당성을 보장받기는 어렵다. 잠정적인 기준안의 보완을 위해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 기준들이 실제로 교과를 유효하게 구분해 낼 수 있는지 점검하고자 설문을 실시하였다.



〈표 II-3〉 교과 구분 기준안

신체적·정리적 성장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 기능과 체력을 발달시키고 신체적 성장을 도와준다. • 바람직한 가치판단능력과 실천 의지를 길러준다. • 미적 정서를 순화·함양하여 감성을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
진로와 직업 생활 능력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 이해력과 진로 탐색 능력을 길러준다. • 현대 산업·기술의 기초를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준다.
일상 사회생활 능력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국어로 사고하고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길러준다. • 대인관계능력과 갈등관리능력을 길러준다. • 의식주와 관련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생활 능력을 함양시킨다. • 건강, 안전, 보건·위생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여 건강을 증진하고 관리하도록 한다. • 여가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을 길러준다.
사회 유지·개선 능력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가지 사회현상과 문화를 이해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 •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 속에서 행동할 수 있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길러준다. • 세계화 시대의 지구촌시민으로서 자질을 길러준다. • 외국어로 사고하고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길러준다.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 의식을 길러준다. •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반영하고, 다문화 이해력을 길러준다. • 정보화 사회에 적응하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준다. • 불합리한 사회 관행과 제도 등을 개선하는 능력을 길러준다.
기초, 기본 지식의 숙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유형의 담화와 글을 이해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 • 수와 양의 관계와 원리를 탐구하는 능력(numeracy)을 길러준다. • 자연 현상과 사물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익히고 탐구하는 능력을 길러준다.
사고력 및 지식 탐구 능력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칙의 타당성에 근거하여 추리하는 논리적 사고력을 길러준다. •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 평가하는 비판적 사고력을 길러준다. • 새롭게 유익한 것을 창조해내는 창의적 사고력을 길러준다. • 추구하는 목표에 적합한 의사결정력을 기르고, 목표달성의 효율적 수단을 모색하는 능력을 길러준다. •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를 수집·분석·활용할 수 있는 정보처리능력을 길러준다.

〈표 II-3〉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설문은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설문 응답은 도출한 기준안이 교과를 구분하는 유효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보고, 교과 간, 기준 간 그 속성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대응분석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대응분석표와 관련 그래프를 분석한 결과 기준안으로 제시된 여러 가지 기준들이 크게 예술·체육 관련 기준, 사회 관련 기준, 과학 관련 기준, 언어 관련 기준, 수리 관련 기준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중 예술·체육, 언어, 수리 관련 기준들은 상대적으로 뚜렷이 구분되는 편이었으나 사회 관련 기준들과 과학 관련 기준들은 서

로 얹혀 있었다.

교과의 경우, 도덕과 사회, 미술과 음악 교과 간의 관계는 밀접하게 나온 반면 외국어와 수학은 상대적으로 다른 교과와는 독립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가 밀접하게 나온 교과의 경우 이들 교과를 구분하는 기준이 유사하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것은 공통필수 교과로서 두 개 이상의 교과가 중복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유사한 기준으로 구분될 수 있는 교과의 경우 교과간 통합이나 융합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설문 분석을 바탕으로 기존에 제시한 26개의

기준안 중 특정 교과와 높은 관련성을 가진 배타적인 교과 구분 기준들을 선정하였다. 하지만 선정된 교과 구분 기준들을 종합한 결과, 각각 서로 다른 영역을 드러내는 배타성은 있었지만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것에 대한 포괄성은 부족하였다. 이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앞서 언급한 미술과 음악, 사회와 도덕 등 유사한 교과를 통합한 후 재분석하였다. 그 결과, 처음 제시하였던 교과 구분 기준안 중 배타성과 포괄성을 갖춘 15개의 교과 구분 기준을 확정하였다. 이 교과 구분 기준들을 통해 구분될 수 있는 교과를 연결하고, 관련 기준들을 하나의 문장으로 진술하여 최종적으로 8개의 교과 구분 기준을 마련하였다.

- 모국어로 사고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으며, 다양한 유형의 언어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
- 외국어로 지식을 습득하고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길러준다.
- 여러 가지 사회 현상과 문화를 이해하고 개선·발전시키는 능력과 다양한 개인과 공동체 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바람직한 민주시민의 자질을 길러주어, 세계화 시대에 부합하는 역량을 함양시킨다.
- 수와 양의 관계와 원리를 탐구하는 능력(numeracy)을 길러준다.
- 자연 현상과 사물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익히고 탐구하는 능력을 길러준다.
- 의식주와 관련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생활 능력과 기술 활용 능력을 길러준다.
- 신체 기능과 체력을 발달시키고 신체적 성장을 도와주며, 관련 지식을 습득하여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
- 미적 정서를 순화·함양하고 그것을 표현·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

만들어진 기준이 실제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그 타당성과 적합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동의가 필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선 과정을 통해 기준이 만들어지면, 마지막으로 교육과정에 적용하기 위한 협의와 검토의 단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과정 전문가들은 총론적 입장을 바탕으로 각 교과의 균형적인 진술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각 교과 전문가들은 교과에서 추구하는 목적의 반영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다. 교과 구분 기준은 교육과정 총론과 각 교과 전문가들의 합의가 있어야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만큼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교육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유효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III. 결론 및 제언

공통필수 교육과정에 교과는 최소 필수수의 교과로 정려되어 제시되어야 한다. 교과 구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본 연구는 필수교과를 타당하게 구분하기 위한 근거로서 그 과정과 기준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교육과정 총론에서 타당한 교과 구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학생들의 효율적, 효과적인 학습을 가능하여 학교 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교과서 출판에 있어 중복되는 내용 연구에 들어가는 비용과 노력을 줄일 수 있게 해준다.

교과 구분 기준들은 해당 교과가 다른 교과와 달리 교육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그 목적이나 성격에서 상호 구분되도록 진술되는 것이 적절하다. 교과를 교육목적이나 교육적 기능 수행 측면에서 구분하지 않고, 내용영역이나 그 탐구방법 등에 따라 구분하면 교과목의 수가 무한히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후자는 적절한 구분 기준이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마련한 기준은 1) 모국어로 사고하고 의사소통능력을 증진시키는 국어과, 2) 외국어로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키우는 외국어과, 3) 개인과 사회 집단 및 공동체의 상호작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과, 4) 수와 양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탐구하는 수학과, 5) 자연

과 사물의 작용 원리를 탐구하는 과학과, 6) 인간의 식의주를 효율적으로 조달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기술과(실과), 7) 감성을 순화하고 창의적 표현을 장려하는 예술과, 8) 심신의 건강과 체력을 도모하는 체육과 등이다. 여기서 제시한 기준들은 하나의 예시로서, 실제로 교과 구분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기 위한 과정에서는 이것에 더하여 마련된 기준에 대한 교육과정 전문가, 교과 전문가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자는 교과 구분 기준을 제시함에 있어 다양한 교육적 논의에 대한 검토와 설문 해석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기준이 포괄성과 배타성을 띠도록 하였다. 하지만 교과 구분 기준을 세우는 일은 교육과정의 뼈대를 세우는 중요한 작업인 만큼 진술 방법이나 단어 선택, 타당성 검증에 있어서 더 다양한 방법과 정치한 과정이 동원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완전한 교과 구분 기준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교과 구분에 대한 문제 제기 차원의 시론(試論)적 연구로서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후속하는 연구의 길잡이로서 활용될 수 있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교육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균형적인 시각과 교과 개념에 대한 유연한 사고, 공통필수 교육과정의 역할에 대한 고려, 교과서의 신설·폐지를 위한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 장기적인 교과 개편 체제의 확립 등이 선행되고 관련 후속 연구가 이어진다면 교육적으로 타당한 교과 구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윤현진 · 김영준 · 이광우 · 전제철(2007). 미래 한국인의 핵심 역량 증진을 위한 초 · 중등학교 교육과정 비전 연구(Ⅰ). KICE 연구리포트 2007.
- 조난심(2009). '교수학습과정의 개선: 교육과정, 교과서, 교육평가', 한국교육 60년-성취와 과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O 2009-8-1, 86-110.

• 홍후조(2009).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에서 학년군, 교과군 개념의 교육과정적 의의 분석. 교육과정연구, 27(4), 47-70.

• (2011). 알기쉬운 교육과정. 서울 : 학지사.

• 홍후조 · 강현석 · 안영수(2001). 국가 교육과정 기준 설계에서 공통필수 교육과정과 상이선택 교육과정의 분리 기준 탐색을 위한 기초 연구. 교과교육공동연구 2000.

• 홍후조 · 김영순 · 민부자 · 이승미(2010). 교과 교육과정 내용 연계와 적정화 방안 연구.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연구과제.

• 황수아(2012). 교과 구분의 기준 연구-공통필수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enavot, A., Kamens, D., Cha, Y. K., Wong, S. Y.(1991). Knowledge for the Masses: World models and National curricula, 1920-1986.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6(1), pp. 85-100.

• Boyd, W.(1964). The history of Western education(7th ed). 유한구 · 이홍우 · 박재문(2011). 서양교육사. 서울 : 교육과학사.

• Goodson, I. F., Anstead, C. J. & Mangan, J. M.(1998). Subject Knowledge: Readings for the Study of School Subjects. London : The Falmer Press.

• Toffler, A. & Toffler, H. (2006). Revolutionary Wealth. New York : Knopf. 김중웅(2006). 앨빈 토플러 부의 미래. 서울 : 청림.

• Walker, D. F. & Soltis, J. F.(1997). Curriculum and Aims third edition, New York : Teachers College Press, Columbia University. 하숙 · 박승배(2004). 교육과정과 목적. 서울 : 교육과학사.





삶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표현한 화가, 샤갈

그림1



박희숙 (작가)

삶은 언제나 고통과 인내를 요구하지만 또 다른 내일이 있다는 희망이 있기에 견딜 수 있는 것이다. 샤갈은 몰아치는 삶의 파도에도 결코 희망을 잃지 않았기에 세계적인 화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그는 평탄하지 않는 자신의 삶이지만 한 순간도 세상이 아름답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 샤갈은 평생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표현하는데 주력했다.

마르크 샤갈은 러시아 비테프스의 가난한 유대인 가정에서 9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전원적인 분위기의 유대인 공동체에서 생활은 평화로웠지만 유대인들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없었다.

샤갈의 어머니는 장남에 대한 기대로 그를 유대인은 공립학교에 진학할 수 없음에

도 불구하고 뇌물을 주고 공립학교로 전학시킨다. 어머니 덕분에 샤갈은 유대인 공동체에서 탈피해 다양하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얻게 된다.

다방면에 재능이 많았던 샤갈은 그림을 공부하지 않을 공평했다. 그는 독특한 개성과 기질로 자유롭게 그림을 그려 일찍부터 두각을 나타내지만 샤갈은 거기에 만족할 수 없었다.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고 싶었다.

샤갈은 유대인 후원자의 도움으로 프랑스 파리로 떠난다. 20세기 전반 예술가들은 창작의 자유로움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파리로 몰려들었다. 정치, 종교, 전통을 강요하기보다는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파리의 분위기 때문이었다.

□ 가난도 꿈을 막을 수는 없었다.

파리에서 샤갈은 지독한 가난에 시달렸다. 생선도 하루는 머리, 다음날은 꼬리로 나누어 먹었으며 캔버스도 재사용해 다시 그렸다.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샤갈은 파리시가 예술가들에게 제공한 작업실에서 작품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작업실은 파리 근교에 있는 도살장 근처에 위치한 별집 모양의 목조 건물이다. 별집형태의 건물로 인해 '라 뤼슈(별집)'라고 불렸다. 라 뤼슈에는 140개의 작업실이 있었으며 세계 각지에서 국제적인 성공을 꿈꾸며 작업을 하고 있었다.

샤갈은 세계 각지에서 몰려든 예술가들을 만나 교류하면서 새로운 작업을 모색한다. 그는 국제적으로 활동을 하기 위해 이름도 세갈 모슈에서 마르크 샤갈로 바꾸었다.

샤갈이 라 뤼슈에서 그린 대표적인 작품이 〈나와 마을〉이다. 이 작품은 파리에서 샤갈의 첫 번째 전시회에 출품한 작품이다.

화면 오른쪽의 녹색의 옆얼굴을 반쯤 보이고 있는 사람이 샤갈 자신인 '나'다. 유대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샤갈은 자신의 얼굴의 특징을 날카로운 삼각형의 코로 표현했다. 화면 속에 말이나 양에서 젖을 짜는 여인, 건물, 농부 등은 고향 비테프스크의 모습을 묘사했다.

이 작품에서 마치 공중에 떠 있는 농부와 건물은 샤갈에게 고향이 현실 세계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꿈의 세계를 뜻하고 있다.

샤갈은 파리에서 야수주의와 입체주의의 영향을 받으면서 환상적이고 공상적인 자신만의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만들어낸다.

□ 사랑을 위해 고향 러시아로

파리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던 샤갈은 벨라와 결혼을 위해 러시아로 돌아간다. 두 사람은 러시아 유대인 구역에 같이 살고 있었지만 집안 환경은 달랐다. 샤갈은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이었고 벨라는 대규모 상회를 운영하는 부르주아 집안의 딸이었다. 유대인이라는 것 외에는 서로 이질적인 존재였다. 하지만 두 사람은 열열히 사랑을 한다. 결국 두 사람은 벨라의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1915년 결혼을 한다.

샤갈이 결혼해 두 사람의 행복한 생활을 그린 작품이 〈전원의 창〉다. 이 작품은 행복하고 편안한 신혼생활을 집으로 표현하고 있다.

두 사람은 커튼을 걷고 창밖의 녹색의 정원을 바라보고 있다. 붉은색 향아리와 과일, 커피 잔 등이 놓여 있는 창가 앞 선반은 그들의 소박한 삶을 나타내고 있으며 과일과 붉은색의 향아리는 자연에게 바치는 선물을 의미한다.

두 사람의 얼굴이 포개져 있는 것은 행복이 심정을 나타내며 자작나무가 울창한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결혼으로 아름다운 세계가 열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결한 백색의 커튼의 그들의 결혼의 감정을 암시한다.

하지만 러시아는 격동의 중심에 있었다. 샤갈은 정



치적 위험을 피하고자 비테프스크에 있는 벨라의 집에서 어떤 정치적 행동을 하기 보다는 사태를 관망하고 있으면서 그림 그리기에 열중한다. 샤갈은 사랑하는 아내 곁에 있다는 사실에 기쁨을 가졌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은 샤갈로 하여금 조국 러시아를 떠나 프랑스로 망명하게 한다.

□ 예술적 영감의 원천 파리

샤갈은 파리에서 가족과 함께 머물면서 행복한 감정을 환상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샤갈의 시적인 감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작품이 〈에펠탑의 신랑 신부〉다. 처음 파리를 찾은 샤갈은 에펠탑에 매료되었고 자신의 작품에 에펠탑을 여러 차례 그렸다. 에펠탑을 그린 작품 중 이 작품이 가장 유명하다.

샤갈은 이 작품에서 사랑의 찬가를 표현했는데 신랑 신부 발밑에는 고향 비테프스크가 펼쳐져 있고 전통적인 유대인 결혼식 광경을 수탉의 꼬리 깃털 속에 그려 넣었다.

샤갈에게 유대인의 전통의식은 매우 중요하다. 화면 밑에 있는 천사들이 촛대를 들고 마을을 내려오는 모습은 전쟁이 다가옴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수탉은 연인들을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을 상징한다.

암소, 황소, 당나귀, 말, 염소, 수탉, 물고기는 샤갈의 세계를 가장 명확하게 표현하는 동물들이다. 비테부르크의 세계에서 유래하는 동물들은 유대교를 상징하며 숭고함을 함축하고 있다.

샤갈은 파리에서 그 이전의 성공으로 편안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지만 세계 2차 대전으로 인해 평화로움은 깨진다. 유대인으로서 그의 삶이 흔들렸던 것이다.

샤갈이 유대 민족의 불행을 그린 작품이 〈백색 그리스도의 수난도〉다. 이 작품은 1938년 뮌헨과 뉘른베르크의 유대 예배당이 파괴된 것을 보고 제작했다.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가 죽어가고 있고 붉은 깃발을 든 혁명군들이 약탈과 방화를 일삼으며 날뛰고 있다. 나치 제복을 입은 사람들은 유대 예배당에 불을 지르고 있고 그들에게 태워진 성서가 땅위에 내뿜어져 있다. 화면 앞 탈출하는 가난한 사람들과 랍비는 올법두 루마기를 꺼안고 있으며 그 뒤로 배에 탄 난민들은 구조를 요청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걸치고 있는 천은 예배당에서 유대인 남자들이 기도할 때 걸치는 어깨걸이로 유대인의 순교를 상징한다. 또한 예수 발밑의 촛대와 십자가 위의 유대 장로와 랍비의 모습은 순교를 더욱 강조한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으로서 아슬아슬하게 살고 있던 샤갈은 비시 정부에서 공포한 반유대인법(유대인은 재산이나 명성, 작품을 소유할 수 없다) 때문에 프랑스를 떠나기로 마음을 먹는다.

□ 억압과 예술적 자유를 위해 미국으로 망명

샤갈은 마티스, 피카소 등 남프랑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화가들을 피신시킬 목적으로 기획된 뉴욕 현대 미술관 초청을 받아 뉴욕으로 망명을 한다.

샤갈과 벨라는 거대한 뉴욕에 매료된다. 유럽에서 볼 수 없었던 자유와 활기를 느꼈다. 하지만 샤갈은 영어 배우는 것을 거부하고 벨라는 도시의 소란스러움이 마음에 들지 않아 전쟁만 끝나면 파리로 돌아가겠다고 생각했다.

뉴욕에서 두 사람은 파리와 마찬가지로 시골로 여행하는 것을 즐겼다. 1943년 에디론덱 산맥에 있는 크렌베리 호숫가에 작업실에서 샤갈과 벨라는 파리가 해방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곧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피서지 작업실에서 얻은 전염병 때문에 벨라가 쓰러지고 만다.

30여년이 넘는 동안 샤갈의 여신이었던 벨라는 크렌




베리에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병원에 입원한지 3일 만에 죽음을 맞이한다. 1944년 벨라의 죽음으로 절망에 빠진 샤갈은 9개월 동안 그림을 그리지 못했다.

벨라가 없는 미국에서의 생활은 샤갈에게 부담스러웠다. 또한 프랑스에 대해 변함없는 애정이 그를 미국에 머물게 하지 않는다. 결국 샤갈은 두 번의 망명을 걸쳐 프랑스 파리로 돌아온다.

파리에서 안정을 찾은 샤갈은 말년에 성서에 몰두한다. 하지만 그는 성서를 표현하는데 있어서도 샤갈 특유의 인물들은 절대적인 자유로움을 가지고 움직인다.

그것은 어떤 종교화에서도 볼 수 없는 독창적인 표현방식이다.

마르크 샤갈(1887~1985)은 전 생애동안 가족과 러시아 농가의 생활, 고국에 대한 향수, 성서 등의 주제를 몽환적이고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샤갈은 회화뿐만 아니라 도자기, 조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독특한 예술세계를 펼쳤는데 그는 미술사조에 쫓아가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그림 속에 담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가난한 유대인으로서 평범한 인생을 살 수 없었던 그의 환경에서 비롯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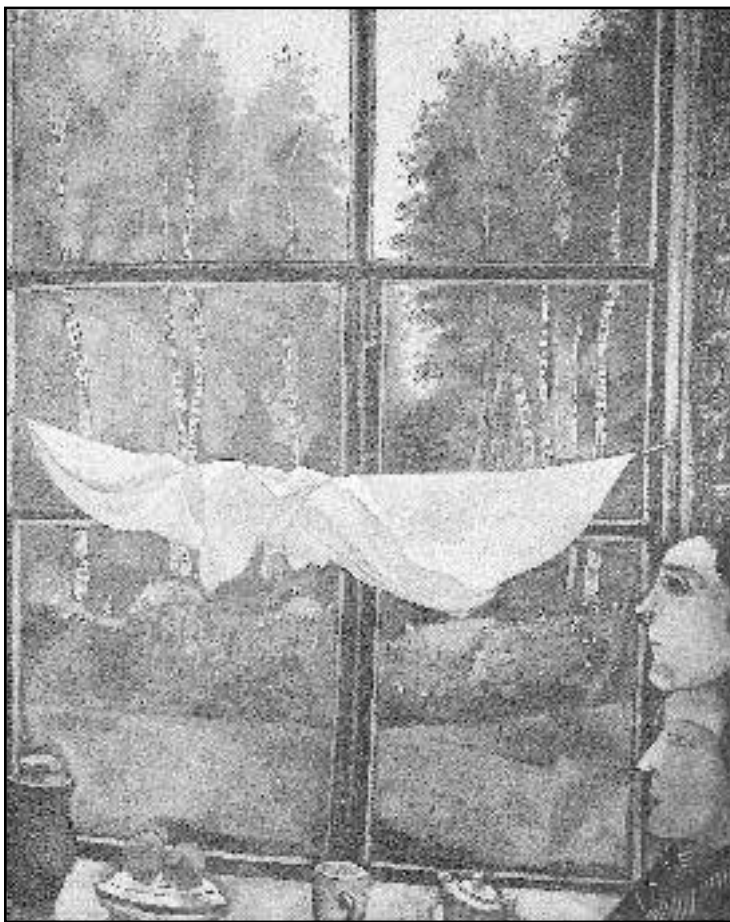


그림2 〈전원의 창〉-1915년, 판지에 유채, 100*80, 모스크바 트레티야코프 미술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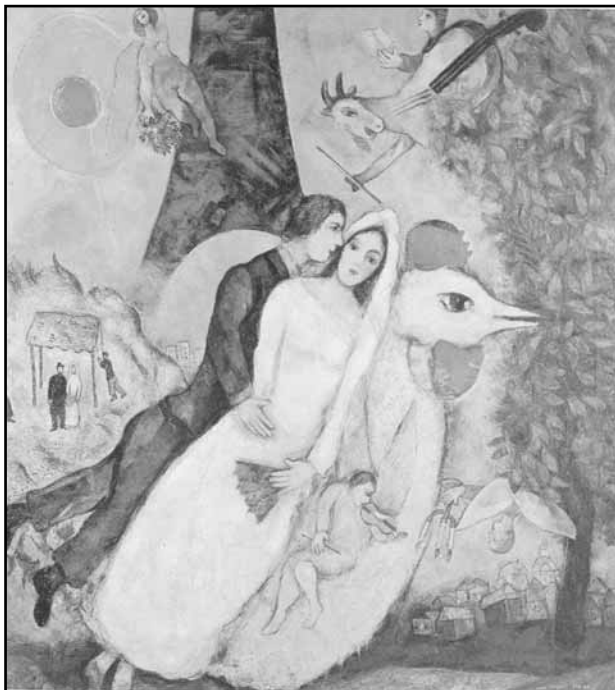


그림3 <에펠탑의 신랑 신부>-1938~1938년, 캔버스에 유채, 150*136,파리 국립현대 미술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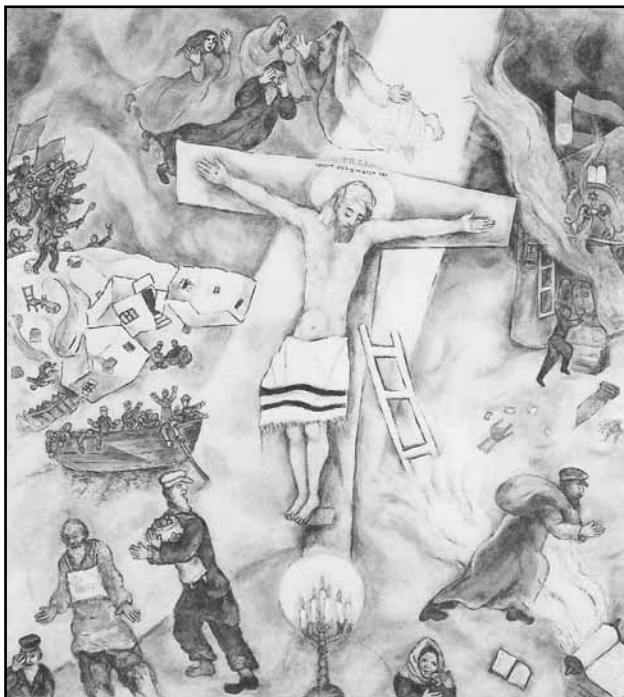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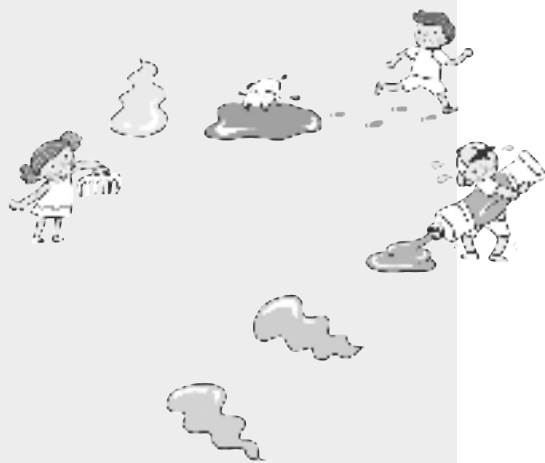


그림4 <백색 그리스도의 수난도>-1938년, 캔버스에 유채, 155*140,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 소장



오늘의 교과서 출판인

YBM 시사 민선식 사장



Q

YBM 하면 “시사영어사”하고 떠오릅니다.

A

YBM은 작년 매우 뜻 깊은 한 해를 보냈습니다. 흔히 교육을 백년대계라 하는데 그 절반인 반세기를 채워 창사 50주년을 맞이한 것입니다. YBM이 걸어온 50년간의 발자취는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기에 우리나라 영어 교육에 이바지한 성과들이 적지 않습니다. 마땅한 영어 교재가 거의 없던 1960년대, 국내 최초의 영어 학습 월간지 《시사영어연구》 발간을 기점으로 《영어세계》, 《Audio Magazine》 등을 발간하여 현지의 살아 있는 영어와 해외소식을 담아냄으로써 50여 년간 독자들의 크나큰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 또한 70년대 초에는 〈English 900〉이라는 오디오 영어회화 교재를 보급함

으로써 ‘듣고 말하는’ 영어 교육의 시대를 여는 데 앞장섰으며, 80년대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원어민 강사로 구성된 영어전문학원 ELS의 개원으로 영어 교육의 현지화라는 교육환경을 조성한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실용 영어 능력 평가시험인 TOEIC을 국내에 도입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90년대부터 TOEIC은 기업인사의 객관적이고도 표준화된 도구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어린이 전문 영어학원 ECC를 전국 70여 지역에 열어 조기 영어교육 활성화의 불씨를 당긴 것 또한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새천년을 맞아 영어교육 환경이 크게 변화하는 가운데 YBM은 지난 반세기에 그랬듯 금세기에도 새로운 매체의 도입으로 선진적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어학원을 비롯한 온라인 영어교육을 확장하는 한편 어학원을 평생교육의 장으로 육성해 가고 있으며, 영어 콘텐츠의 저작권 수출에도 힘써 이제는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기업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Q YBM이 영어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출판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경영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교과서 전문 편집인 양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A 1961년 창사 이래 외국어 관련 수험서, 단행본, 잡지, 사전, 교과서, 학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총 12,000여권의 교재를 발간했습니다. 매월 20여권의 책을 발행한 셈인데, 조금 과장하면 반세기 동안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영어책이 출간되었다고 할까요? 이렇듯 많은 책을 발행하면서 가장 밑바탕에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는 한 가지 생각은 바로 ‘살아 있는 영어’를 가르치는 일입니다. 창업주이신 민영빈 회장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국제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람을 자원으로 남여노소 모두가 영어를 평생 배워야 한다. 그러므로 책 속에 갇혀 있거나 입 안에 담아 두는 영어가 아닌, 살아 숨 쉬는 영어를 가르쳐 실생활에 즉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토대로 YBM은 듣고 말하는 영어시대를 열고자 하였습니다.

영어 외 다른 분야의 출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영어에서 50여 년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중국어, 일본어 등 여타의 외국어 교재와 오랫동안 잡지를 발간해 오면서 축적된 자료를 활용한 사진자료집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교과서의 경우 교과서 전문부서를 두어 영어 외에도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음악, 한문, 보건, 체육 등의 교과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출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인력인데 전문 편집 인력을 키워 내는 데는 부단한 노력과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해

당 교과에 대한 전문지식과 교육학에 대한 이해를 갖춘 인재를 찾아내야 하고,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과서 개발의 노하우가 축적된 팀장 아래 실무 교육을 받으며 해당 교과 연구진과 집필진 및 검토진을 포함한 모든 관계자와 자유롭게 토론하고 직접 학습 현장을 방문하거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교과서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합니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준수해야 하므로 일정한 틀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서 창의적 사고를 끌어내야 합니다. 또한 삽화나 색감, 활자에 이르는 전반적 지식이 요구되는 만큼 하루아침에 전문 편집인이 된다고 보다는 2년, 3년 팀을 이루어 연구하고 작업하는 가운데 갖춰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YBM의 교과서에 관련된 일들, 힘든 점, 보람을 느끼는 점을 소개해 주십시오.

A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보다 YBM의 교과서 개발 역사는 오래 되었습니다. 1960년대 검인정 교과서 개발에 참여한 것이 처음입니다. 특히 80년대 중반 전국 중고생의 2분의 1, 90년대 중반 전국 고교생의 4분의 1이 우리 교과서로 영어를 배울 만큼 영향력이 컸습니다. 현재도 초등영어 교과서의 시장 점유율이 대략 3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YBM교과서가 추구하는 바가 ‘살아 있는 영어’를 가르치려 함이므로 실생활에서 쓰고 있는, 그리고 쓰일 법한 소재와 상황을 구현하여 저술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YBM 교과서에 쓰인 영문은 YBM에 근무하는 원어민뿐만 아니라 국내외 우수 대학이나 기관의 검수를 이중삼중으로 거치므로 죽어있는 표현이나 오류가 비교적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과서 발행을 하면서 힘든 점은 급작스레 바뀌는 정책의 변경과 촉박한 개발 일정 때문에 충분히 연구 검토된 교과서를 개발하는 데 어려움이 따랐으며, 또한 많은 비용을 들여 개발된 교과서의 사용 연한이 짧다 보니 투자비용의 회수가 용이치 않았던 점입니다. 그 가운데 보람이라고 한다면 YBM 교과서로 가르치는 선생님들께서 우리 교과서 콘텐츠의 선도적 소재와 교육적 접근에 대해 높은 호응을 보여 주시는 점입니다.

Q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어떤 교과서를 만들어야 할까요? 우리나라 교과서의 문제점과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A 정부에서는 시대의 변화를 적극 수용하여 교과서를 선진화하고 스마트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격언처럼, 미래의 교육환경에는 그에 알맞은 미래형 교육도구가 필요하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며, 그 중심에 교과서가 있음은 물론입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90년대로 기억하는데 당시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초고속 정보통신사업을 추진했고,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통해 단말기와 이동통신 서비스 분야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스마트 혁명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회 전반의 급속한 변화를 가져오는 작금의 현실에서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으로 손꼽힐 정도가 된 것도 그러한 노력에 힘입은 바 큼니다. 그러나 잘 닦여진 정보 고속도로에 정작 흘러 다니는 것은 양질의 정보 또는 콘텐츠보다는 무분별한 그리고 수준 낮은 정보들로 가득 채워졌다는 씁쓸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교과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질의 교육 콘텐츠가 담보되어야 합니다. 마침 연전에 발표한 교과부의 '교과서 선진화 방안'은 '창의적인 산 지식 제공'과 '학습자 친화적인 미래형 교과서 보급'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살아있는 영어', '미래를 향한 도전정신'을 경영철학이자 기업목표로 삼고 있는 YBM으로서는 너무나 친숙한 키워드라서 참으로 반가웠습니다. 현재의 교과서는 지나치게 많은 내용을 압축해서 담고 있으며, 딱딱하고 지루해서 멀티미디어 시대의 학습자가 가까이 하기 어려운 교과서입니다. 이런 기존 교과서들을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습자 개개인에 맞는 학습량과 난이도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수준별 단계학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Q 최근 우리나라 교과서 정책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A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만들어지는 교과서 중 80%가 넘을 정도로 인정도서가 크게 확대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간편한 인정절차를 거쳐 다양한 콘텐츠가 교과서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교육 콘텐츠의 양적 확대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정보화에 대해 논의하면서 거론되는 3대 측면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휴먼웨어가 그것입니다. 작년에 교과부에서 내놓은 '스마트교육 추진전략'의 5대 과제를 보면, 디지털 교과서 개발, 온라인 수업 활성화, 교육 콘텐츠 환경 조성(소프트웨어), 교원 스마트 교육 역량 강화(휴먼웨어), 클라우드 교육 서비스 기반 조성(하드웨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견 입체적인 전략으로 비추어지지만, 충실한 콘텐츠 확보보다는 화려하게 보이는 하드웨어 측면만을 우선시하지 않을까 염려를 하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그 중에서도 디지털 교과서로 대표되는 콘텐츠 부분의 제도적 육성과 실천방안 및 예산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직 예측하기 이르지만 양자를 분리하지 않고 스마트 교육 기기를 비롯한 하드웨어 공급 측면을 강조하여 디지털 교과서의 정책이 하드웨어를 공급하는 대기업 중심으로 추진

된다면, 콘텐츠를 담당하는 기업들의 활동이 위축되어 결과적으로 참신하고 창의적인 콘텐츠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심도 있는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Q 미래 교과서는 기존 교과서와 많이 다를 것입니다. 향후 교과서의 모습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A 미래 교과서의 기술적 측면에 대해서는 지면을 아끼도록 하고, 콘텐츠에 관한 큰 흐름을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멀티미디어라는 말 속에는 다양한 매체라는 뜻도 있지만, 미디어의 생산 및 소비 주체가 다양해짐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온 프로슈머(prosumer)란 용어도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콘텐츠를 생산하고 동시에 소비하는 디지털 프로슈머(digital prosumer)란 말로 옷을 갈아입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미래의 교과서는 소수의 출판사가 독점하는 장벽이 허물어지고 다수가 참여하는 콘텐츠의 양적 확대와 다양성이 증대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미래에는 한정된 공간 안에 비좁게 갇혀져 있는 서책형 교과서보다는 무한한 공간 속에 펼쳐져 있는 방대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보유한 디지털형 교과서가 보편화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올바른 정보를 찾아가도록 길을 보여주는 교과서로 발전, 개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Q YBM이 교육 출판계에서 나아갈 비전을 말씀 해 주십시오.

A ‘대한민국 콘텐츠 교육문화 기업’으로 그리고 ‘스마트 교육의 선도 기업’으로 더욱 발전하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교재 및 잡지 등을 앱으로 개발하고 전자책 출판 유통사인 와이투북스(Y2Books, www.y2books.com)를 설립하여 외국어를 넘어선 다양한 분야의 전자책을 제작,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영어교육을 지원하는 역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YBM의 브랜드 가치를 무기로 해외시장 진출에도 적극 임하고 있습니다. 비영어권 나라로의 외국어 교재와 어학 프로그램 수출은 물론 캐나다나 미국 등 영어권 나라로의 역수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YBM이 꿈꾸는 기업목표는 전 국민의 한국어 외국어 Multilingualism입니다. 다시 말해 국민 개개인이 다국적 언어 능력을 갖춰 세계무대에서 경쟁력 있는 한국인으로 우뚝 서게 하는 것입니다. 

『교과서 연구』를 통해 다양하고 소중한 생각을 만들어가기를...

김현아 인천용일초등학교 교사

나는 경력 2년차, 햇병아리 교사이다. 우연히 학교 장학자료 틈새에서 『교과서 연구』간행물을 보게 되었다. 단순하고 깔끔한 디자인의 표지, ‘연구’라는 다가가기 쉽지 않은 이름, 하지만 교사와 떼어 놓을 수 없는 ‘교과서’ 그리고 ‘연구’.


『교과서 연구』를 읽고 나서 느낀 점은 교과서를 향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교과서를 향한 마음’은 교과서를 갖고 수업을 하는 교사에 대한 마음이며, 이는 교사에게 수업을 받고 교과서를 통해 학습하게 되는 우리 어린이를 위한 선생님, 연구자들의 마음이 담긴 학술지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


임용후보자 선정 시험, 흔히 말하는 임용고시를 치르기 위해 2010년 1년 동안 교과서를 계속해서 들여다보았다. 아니, 달달달 교과서를 외웠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수험 기간 동안 교과서 때문에 막막하고 답답했던 기억이 난다. 2011년 처음으로 발행되는 검정 교과서 때문에 7차 개정 교육 과정에 따른 체육, 음악 교과서를 구할 수 없었고 특히 실과의 경우 5, 6학년에 해당하는 교과목이라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감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당시 나의 생각은 ‘발행부터 선정과정까지 번거롭고 불필요한 정책을 왜 시행할까?’였다. 현장에 나와서도 6학년을 맡은 선생님들과 같은 생각을 이야기하곤 했다.

『교과서 연구』를 접한 뒤 나의 이러한 생각이 달

라짐을 느낄 수 있었다. 가장 크게 변화된 생각은 수험생 시절 나의 ‘교과서관’이다. 검·인정 교과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고 새롭게 바라볼 수 있었다. 특히 교사의 전문성, 학교 현장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을, 교사를 더 힘들게 만드는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했던 나를 반성하게 되었다.

매일 교사와 함께하는 교과서, 이를 위한 연구는 교사들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교과서를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자신만의 ‘교과서관’을 확립해야 한다. 현장의 많은 선생님들이 『교과서 연구』를 만나게 된다면 교과서를 향한 마음에 열정과 애정이 더 커질 것이라 확신한다.

현장교사들과 교육연구자의 열정이 담긴 『교과서 연구』를 읽으며 한 가지 큰 이상을 품어본다. 교사가 되어 매일 손에 잡고 생활하는 교과서, 교육과정을 준수하기 위한 수단인 교과서, 가끔은 뭔가 부족하기도 하고 가끔은 필요 이상으로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교과서, 이러한 교과서가, 지금보다 교사의 필요와 실정에 맞게, 그리고 지금 우리 반의 특색을 반영하여 구현되는 날이 올까? 교과서와 관계있는 많은 사람들의 ‘좋은 교과서’에 대한 열정을 통해서라면 가능할 것이다. 그 일을 위해 많은 분들이 『교과서 연구』를 통해 다양하고 소중한 생각을 가꾸어가기를 바란다. 

편집자 주 우리 ‘교과서 연구지’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교과서 연구’를 보시고 도움이 되었다고 느낀 특집기사 또는 다른 원고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담당자에게 보내주세요. 담당자의 이메일(editor@ktrf.re.kr) 또는 연구재단 홈페이지의 참여마당-연구지 제안에 접수된 의견 중에서 독자의 소리에 게재되면 교과서 연구지를 1년간 무료로 배송해 드립니다. 

[교과용도서 개발 전문가 양성 과정 연수 안내]

우리 재단에서는 전국 초·중등학교 및 교육전문직 선생님을 대상으로 교과용도서 개발 전문가 양성을 위한 특수분야 연수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과정 소개

- 과정명 : 교과용도서 개발 전문가 양성 과정(전문성 향상 과정)
※ 서울특별시교육청 2012년도 특수분야 연수 과정 지정(서울교육 2012-473)
- 연수종별 : 직무연수
- 연수 대상 : 전국 초·중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
- 연수 시간 : 30시간(인정 학점 : 2학점)
※ 최저 이수 기준 시간 : 24시간, 80% 이상 출석(성적 산출 없음)
- 교과 편성 : 교과서 제도와 법령, 개발 방법, 편집 및 인쇄 등

□ 기간 :

구 분	기 간	시 간	인 원	신청마감
제5기	2013. 1. 7 ~ 1. 11	10:00~17:00	40	연수시작 20일전까지
제6기	2013. 1. 14 ~ 1. 18	10:00~17:00	40	연수시작 20일전까지

□ 신청 방법

- 교원직무연수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
 - 주소 : (137-808)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06-9 한국교과서연구재단 특수분야 연수 담당자 앞
(팩스 : 02-2651-1954)
- 연수비
 - 총 연수비 : 15만원(재단 부담액 8만원, 본인 부담액 7만원)
 - 납부 방법 : 해당 과정 신청 마감일까지 지정 계좌 입금
(신한 140-009-109202, 예금주 :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선종근)
 - ※ 연수비 환불조건 : 연수 시작 3일전까지 연수취소(포기) 신청서 제출한 자에 한함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Q 교과서(국정,검정,인정) 개별 구입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A 네, 교과서 개별구입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교과서 개별 구입방법

1. 국정 교과서

- 온라인 구입
 - 각 과목의 발행사를 확인하여 해당 발행사 홈페이지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 구입
 - (주)미래엔 직매장 : 지하철 7호선 논현역 5번 출구 직진 도보 5분 소요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41-10 (주)미래엔빌딩 1층)
(초등학교 국정교과서만 판매) ARS : 02-3475-4097
 - 두산동아(주) 상설판매장 : 2012년 폐쇄

2. 검정(전과목) · 인정(일부과목: 1,064책)

- 온라인 구입
 - (사)한국검정교과서 홈페이지 “www.ktbook.com” 또는 “(사)한국검정교과서”로 검색하여 ‘교과서구입’ 메뉴에서 조회 및 판매되는 검정교과서(전과목) 및 인정교과서(일부과목:1,064책)는 온라인 주문하시고, 나머지 인정교과서는 발행 출판사로 구입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검정교과서 및 일부 인정교과서(1,064책) 판매)
- 방문 구입
 - (사)한국검정교과서 직매장 : 지하철 2호선 당산역 1번 출구 30m 동양생명건물 2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6가 331-12 다옥빌딩 별관 2층)
(검정교과서 및 일부 국정 · 인정교과서 판매)
ARS : 02-3663-5409~12
 - 교과서 판매서점 : (사)한국검정교과서 홈페이지 “www.ktbook.com” 또는 “(사)한국검정교과서”로 검색 후 ‘교과서 구입’ 메뉴의 ‘교과서 판매서점’ 항목을 참고하여 인근 서점의 재고확인 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 단체 구입
 - (사)한국검정교과서 홈페이지 “www.ktbook.com” 또는 “(사)한국검정교과서”로 검색 후 ‘교과서구입’ 메뉴의 ‘단체주문’ 항목을 참고하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3. 인정 교과서

- 위 인정교과서를 제외한 나머지 각 과목에 대해서는 발행사를 확인하여 해당 발행사 홈페이지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2012학년도 교과서 개별 구입안내



□ 교과서별 구입처

교 과 서			구 입 처	전 화 번 호
국정	초등	• 국어(말하기 · 듣기 · 쓰기)	(주)미래엔 textbook.mirae-n.com	080-730-3800
		• 수학(수학익힘책 포함), 사회(사회과탐구, 사회과부도), 1,2년(바른생활, 슬기로운생활, 생활의길잡이, 즐거운 생활 포함)	두산동아(주) www.doosandong.com	1644-0600
		• 도덕(생활의길잡이 3~6학년 포함)	(주)지 학 사 www.jihak.co.kr	02- 330-5302
		• 과학(실험관찰 포함)	(주)금성출판 kseshop.co.kr	080- 969-1000
		• 예체능(음악3, 4, 미술3~4, 체육3, 4)	(주)교 학 사 www.kyohak.co.kr	02-707-5184
	고등	• 확률과통계, 이산수학, 공업계, 수산해운계, 상업계, 가사실업계	두산동아(주)	1644-0600
		• 윤리계열, 농업계	(주)지 학 사	02-330-5302
		• 외국어계(아랍어 I · II, 러시아어 포함)	(주)천재교육	1577-0902
		• 과학계(생활과 과학 포함)	(주)금성출판	080-969-1000
		• 체육계	(주)교 학 사	02-707-5184
검정	초등 중등 고등	• 위 교과서 이외의 교과서 - 검정교과서 전체 - 인정교과서 일부(1,064책)	(사)한국검정교과서 www.ktbook.co.m	02-3663- 5409~12

□ 서울지역 직매장

(사)한국검정교과서 직매장 - 검정교과서 전문매장 (국 · 인정일부)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6가 331-12 다옥빌딩 별관 2층 ☎ 02-3663-5409~12)
- 지하철 : 2호선 당산역 1번, 9호선 당산역 13번 출구에서 롯데리아, 스타벅스 사이 골목 30m 지점 (동양생명 2층)

(주)미래엔 직매장 - 초등학교용 국정교과서만을 판매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41-10 (주)미래엔빌딩 1층 ☎ 02-3475-4097)
- 지하철 : 7호선 논현역 5번 출구에서 직진 도보 5분소요

각 지역별 지정판매점

지 역 별		상 호	전화번호	판매 도서	지 역 별		상 호	전화번호	판매 도서
서울	종로구	(주)교보문고	02- 397-3551~2	검정, 국정	경기	수원	(주)경기서적	031- 248-6300	검정, 국정
	서초구	교보문고(강남점)	02- 530-0313	국정		의정부	송문당	031- 846-2666	검정, 국정
	송파구	교보문고(잠실점)	02-2140-8821	국정		안산	대동서적(주)	031- 406-6666	검정, 국정
	종로구	(주)영풍문고	02- 399-5625	검정, 국정		부천	(주)경인문고	032- 613-2197	검정, 국정
	서초구	영풍문고(강남점)	02- 595-0928	국정		수원	동남서적	031- 251-3929	검정
	성북구	영풍문고(미아점)	02-2117-2880	국정		부천	영글북스	032- 623-1600	국정
	성동구	경일사	02-2296-7671	검정		성남	리브로분당점	031- 701-2800	국정
	중구	(주)리브로(을지점)	070-4006-4317	검정, 국정		성남	종원문고	031- 736-2600	국정
	동대문구	성현문고	02- 967-3838	검정		성남	베스트북	070-7570-5172	국정
	영등포구	(주)지에스북	02-2671-5651	검정, 국정		구리	동원서적	031- 563-4621	검정, 국정
	관악구	광장서적	02- 876-9081	검정, 국정		일산	정글북	031- 922-5000	검정, 국정
	광진구	프라임문고	02-3424-1450	국정		광명	일지서적	02-2613-2744	국정
	강남구	반디앤루니스	02-6002-6021	검정, 국정		시흥	한가람문고	031- 404-8664	국정
	노원구	그랜드문고	02- 938-1065	국정		평택	평택문고	031- 651-9204	검정, 국정
	강동구	예림문고	02- 477-8600	국정		안양	교보문고(안양점)	031- 466-3501	국정
	동작구	골드북	02- 841-7100	국정		용인	수지문고	031- 265-4031	국정
용산구	(주)대교문고	02-2012-3544	검정, 국정	김포	열린문고	031- 982-2007	국정		
노원구	(주)노원문고(중계점)	02-2091-0633	검정, 국정	화성	삼성문고	031-8003-3838	국정		
도봉구	예일문고	02- 995-5206	국정	성남	공손서점	031- 703-7279	국정		
강동구	대성문고	02- 427-8190	국정	강원	춘천	교학사	033- 244-0044	검정, 국정	
부산	부산진구	영광도서	051- 816-9500	검정, 국정	충북	춘천	제일서점	033- 521-3131	국정
	중구	문우당서림	051- 241-5555	국정		충주	유신상사	043- 252-5945	검정, 국정
	사하구	문학서점	051- 204-0465	검정, 국정	충남	충주	이학사	043- 844-3494	국정
	사하구	예림서적	051- 203-3383	검정		천안	열린문고	041- 573-0827	검정
	중구	남포문고	051- 245-8911	검정	전북	천안	국민도서	041- 556-0003	국정
	사상구	태학도서	051- 313-1718	국정		전주	홍지서림	063- 288-5311	검정, 국정
	부산진구	교보문고(부산점)	051- 806-3501	국정	전남	순천	중앙서림	061- 723-9902	검정, 국정
	해운대구	영재서적	051- 703-0708	국정		목포	책사랑문고	061- 279-2504	국정
대구	수성구	(주)세원출판유통(범어점)	053- 423-0517	검정, 국정	경북	포항	학원사	054- 249-3396	검정, 국정
중구	영풍문고(대구점)	053- 428-6700	국정	경주		현대서점	054- 742-4885	국정	
인천	중구	(주)대한서림	032- 764-7337	검정, 국정		경산	경산서적	053- 813-2724	국정
부평구	부평문고	032- 529-0077	국정	구미	춘양당서점	054- 455-6669	국정		
광주	동구	종합도서	062- 222-4354	검정, 국정	경남	창원	그랜드문고	055- 283-2848	검정
대전	중구	(주)계룡문고	042- 222-4600	검정, 국정		창원	창원서적	055- 282-1544	국정
	서구	세이북스	042- 483-4441	국정		진주	대양서적	055- 741-2835	국정
울산	남구	민중서림	052- 275-0313	국정	제주	제주시	탐라도서(주)	064- 755-3335	검정
						제주시	현대서점	064- 748-1177	국정

교과서 연구지의 발간에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❶ 참여 분야

<현장교육>, <논단>, <단상>, <제언>,
<교과서 편집자의 변>, <독자의 소리>

❷ 교육과정과 교과서 관련 연구활동,

- 교과 운영과 교과서 활용 사례 연구 활동,
- 교과서와 관련된 제언 또는 단상,
- 기타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등



보내실 곳 : E-mail 접수 editor@ktrf.re.kr

기타 문의 전화

02-2651-1953 연구지 담당자 앞



◎ 교과서 정보관 이용 안내

| 운영 개요 |

- 우리나라 교과서의 수집 및 보존
- 외국 교과서 수집 및 보존
- 교육과정·편수 자료의 수집 및 보존
- 교육과정·교과서 제도 관련 자료 수집 및 보존
- 교과서 관련 자료의 DB 및 정보 인프라 구축
- 교과서 관련 연구 단체 협력 체제 구축
- 교과서 및 교육과정 정보 제공
- 교과서 비교 전시회 개최 등

| 보유 자료 |

구분	국내	국외	계
교과용 도서	36,246	7,046	43,292
일반 자료	2,988	—	2,988
계	39,234	7,046	46,280

| 열람 시간 |

평일 | 오전 9시~ 오후 5시

점심시간 | 12:00~13:00 *토요일, 공휴일은 휴관합니다



02-2651-1953
www.ktrf.re.kr

서울 서초구 반포동 706-9 한국교과서연구재단 빌딩 4F

- 지하철 7호선 논현역 3번 출구
- 버스 : 3412, 462, 4312, 642, 9408번



한국교과서연구재단
Korea Textbook Research Foundation

